

연구보고서 20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오영희

손창균 방효정 유삼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고령화가 사회적 아젠더로 떠오르면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법정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노인복지법의 개정(2007. 1)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법정 조사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책적 필요성과 조사 실시 예산의 확보가능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법정 조사의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이러한 주기상의 불규칙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주기별 진행과정의 체계화, 효과적인 조사설계와 조사결과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 2004년도 조사가 실시된 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조사의 규모와 지향성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 합의체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7년도에 1차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과제와의 연계 속에서 조사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년기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실시되고 있어, 그러한 타 조사와의 관계에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우리사회는 노인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표본설계와 조사표 내용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며, 원내 이소정 부연구위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이윤경 선임연구원, 손창균 부연구위원, 방효정 연구원, 유삼현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조애저 부연구위원과 여유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조사자료 정리에 힘써준 도선혜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1
요 약	13
제1장 서 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1
제1절 국제기구의 기본방향 검토	32
제2절 국내외의 노인관련 조사내용 검토	36
제3절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검토	68
제3장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기본방향	79
제1절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욕구의 포괄적 파악	79
제2절 학술연구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척도의 적극적 활용	80
제3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83
제4절 고령화 적응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 확보	85
제5절 국제적 흐름의 반영	86
제6절 지역통계 산출이 가능한 표본설계 및 조사규모	89

제4장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개선방안 및 패널화 방안	91
제1절 표본설계 개선방안	91
제2절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패널화 방안	108
제5장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개선 방안	117
제1절 가구조사 설문지	117
제2절 노인 개인조사	125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5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4
제2절 향후 과제	162
참고문헌	164
부 록	175

표 목 차

〈표 2- 1〉 UN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의 행동권고	34
〈표 2- 2〉 ACL 4차년도 조사항목	45
〈표 2- 3〉 MIDUS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자가진단 척도 예시	47
〈표 2- 4〉 The State of 50+ America의 조사 지표	51
〈표 2- 5〉 미국의 노인관련 조사	54
〈표 2- 6〉 일본 고령자대책 종합조사 실시 현황	56
〈표 2- 7〉 일본 고령자대책 종합조사 주요 조사내용	58
〈표 2- 8〉 일본의 정책조사연구(1994년~2005년)	61
〈표 2- 9〉 일본의 정책조사연구의 주요내용	64
〈표 2-10〉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부문과 실태조사항목의 비교	71
〈표 2-1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의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부문과 실태조사항목의 비교	73
〈표 2-1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부문과 실태조사항목의 비교	77
〈표 3- 1〉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90
〈표 4- 1〉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노인가구에 대한 기술통계량	93
〈표 4- 2〉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광역단위별 노인가구에 대한 기술통계량	94
〈표 4- 3〉 급내상관계수와 표본 크기에 따른 설계효과()비교	96
〈표 4- 4〉 모집단 동·읍·면부별 조사구 규모(90%)	99
〈표 4- 5〉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동·읍·면부별 가구수 분포(90%)	100

〈표 4-6〉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동·읍·면부별 표본조사구 배분결과	101
〈표 4-7〉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동·읍·면부별 표본가구 배분결과	102
〈표 4-8〉	인구비율과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비교	104
〈표 4-9〉	우선 배정 후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105
〈표 4-10〉	광역단위별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107
〈표 4-11〉	노인패널(가칭) 조사의 체계	110
〈표 4-12〉	횡단면 조사와 병행한 패널조사	110
〈표 5-1〉	가구의 일반특성 영역 설문지 개선안	119
〈표 5-2〉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1
〈표 5-3〉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지 개선안	122
〈표 5-4〉	노후준비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4
〈표 5-5〉	노인의 일반특성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6
〈표 5-6〉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7
〈표 5-7〉	노인의 가구형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8
〈표 5-8〉	노인의 부양교환 실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8
〈표 5-9〉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영역 설문지 개선안	129
〈표 5-10〉	노인의 노후준비 영역 설문지 개선안	130
〈표 5-11〉	노인의 경제상황 영역 설문지 개선안	131
〈표 5-12〉	노인의 소비 영역 설문지 개선안	133
〈표 5-13〉	노인의 경제활동 영역 설문지 개선안	136
〈표 5-14〉	노인의 사회활동 영역 설문지 개선안	139
〈표 5-15〉	노인의 보건의료 영역 설문지 개선안	142
〈표 5-16〉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145
〈표 5-17〉	노인의 생활환경 영역 설문지 개선안	147
〈표 5-18〉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 이용욕구 영역 설문지 개선안	151
〈표 5-19〉	새로운 관심사 영역 설문지 개선안	153

〈표 6- 1〉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구조사 설문지 개선안 개요	159
〈표 6- 2〉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개인조사 설문지 개선안 개요	160

그림 목 차

[그림 2-1] HRS의 세 가지 조사 범주별 조사시간의 할당	40
[그림 2-2] MIDUS 1의 조사내용	48
[그림 2-3] MIDUS 2의 조사내용	49
[그림 3-1] 마드리드 선언문과 국제노년학회의 노화 연구 아젠다	88
[그림 4-1] 노인패널(가칭)의 표집방법	109

부 표 목 차

〈부표 1-1〉 국내 주요 노인 대상 전국조사 비교	177
〈부표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	191
〈부표 2-2〉 국토개발연구원 「2007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 가구주’, ‘노인가구 노인개인’	195
〈부표 2-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07	197
〈부표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 ...	198
〈부표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2
〈부표 4-1〉 2004년 무응답율 0.5% 이상 조사항목표	204
〈부표 6-1〉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제별 활용목록	230

Abstract

A Base Study for '2008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Recently, the survey of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became legalized as a national survey to be conducted at three-year interval. This legalization, which stems from increasing social and policy concerns on the aging population, urgently necessitates a re-examination of the direction of the survey and discovery of new ways to improve the sampling methods and contents of the survey.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UN guidelines, and the survey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 involving the population aging and older persons. Also, recent policy issues and 'the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which is newly introduced are reviewed. Based on the reviews in the first part, 6 basic directions the survey have to pursue are suggested. The second part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survey in terms of sampling. In the third and last part, ways to modify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question items of the questionnaire are suggested.

요 약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가 사회적 아젠더로 떠오르면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법정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조사주기의 불규칙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주기별 진행과정의 체계화, 효과적인 조사설계와 조사결과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2004년도에 조사가 실시된 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조사의 규모와 지향성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을 필요로 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선행연구 검토

1. 국제기구의 기본방향 검토

- UN은 마드리드 선언문을 통해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등 모두 세 가지의 주요 방향을 채택하였음. 또 그 하부에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 밑으로 구체적인 행동 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2. 국내외의 노인관련 조사내용 검토

가. 국내 관련 조사

-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특정 영역 중심의 조사에서도 노인 또는 노년기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등 노인 또는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가 이루어졌음.
- 한편 통계청에서는 2007년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의 복지부문 조사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후준비방법,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생활비 마련 방법,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의 6개 항목을 포함시킨 바 있음.
- 특정 영역 중심의 최근 조사에서도 노인 및 노년기와 관련된 별도의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음.
 - 별도의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영역에 대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이 가능한 전국조사가 있음.

□ 국내 관련 조사 검토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한 분야별 조사는 개별 분야의 정책 입안에 필요한 욕구파악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영역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욕구의 포괄적인 파악에 그 강점을 두고 설문지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노인의 특성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가 현재 없는 상태임. 따라서 가구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포괄적인 욕구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구조사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존의 관련 조사에서 세대관계, 여가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유일하게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넷째, 타 조사에서는 특정 분야의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파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으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욕구와 의견이 파악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나. 미국

□ 미국의 노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건강의 측면 및 고용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성 담론이 지배적인 미국의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

동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인조사가 우리나라의 노인조사에 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노인에 관한 다수의 미국 조사들은 패널자료로서 시계열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인조사 역시 2008년을 기점으로 3년 주기의 조사가 의무화되었는데 이같은 외국의 선례를 받아들여 장기적으로 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음.
- 둘째, ACL(American's Changing Lives)의 경우 중년기 이후의 '일상생활'의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상생활의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측면과 생활시간의 활용 등 보다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음.
 - 이처럼 소비, 생활시간 등 노인의 일상생활의 양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의 질적 측면에 관한 자료 수집에 더욱 주력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 셋째, 세대간 관계 및 세대 통합 양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측면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함으로써 노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다. 일본

□ 일본 고령자관련 조사체계

- 일본에서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1)고령자대책종합조사, 2)정책연구조사, 3)고령화문제기초조사(국제비교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령자대책종합조사는 고령자와 관련된 5개 주제별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고령사회대책의 시책분야가 되는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일반고령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정책연구조사는 비정기적 조사로 필요한 주제가 있을때 실시되며, 고령화문제기초조사(국제비교조사)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 『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5개국의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의 비교를 위해 5년주기로 실시되며, 2005년 6회 조사가 실시되었음.

3.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검토

가. 정부 노인보건복지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

-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며, 노인의 교육수준 등 세 특성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함.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연계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화대책의 목표는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eing)보장을 통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항목을 구성하도록 함.

Ⅲ.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기본방향

1.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욕구의 포괄적인 파악
2. 학술연구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척도의 적극적 활용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4. 고령화 적응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 확보
5. 국제적 흐름의 반영
6. 지역통계 산출이 가능한 표본설계 및 조사규모

Ⅳ.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개선방안

1. 표본설계 개선방안

□ 표본설계시 고려사항

-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기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비해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줄임으로서 보다 정도 높은 통계값을 산출하도록 함.

□ 집락당 표본가구수의 결정

-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증가시킬 경우 집락효과에 의해 추정치의 상

대표준오차는 증가하게 됨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조사구당 표본가구 수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자료의 60가구 단위 조사구를 이용하고,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약 30~40가구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시·도단위 통계산출을 위한 표본설계시 고려사항

- 지역별 표본조사구수의 배분: 시·도(6대 특광역시 및 도지역)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조사구 수가 일정규모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위해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과대 표집하기 위해서 충남, 전남 지역의 읍·면부별에서 표본가구의 비율을 높게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가구조사 보다 표본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개인조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노인이 표본으로 확보되지 않게 된다면 노인실태에 대한 시·도별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노인가구의 응답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이에 비례하도록 표본수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광역단위 통계산출을 위한 표본설계: 지역별 통계산출이 예산이나 표본수 부족으로 산출할 수 없을 경우는, 광역단위로 지역을 병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패널화 방안

- 방안 1: 조사가 수행되는 해에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횡단면적인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약 5,000가구를 부차표집(subsampling) 하여 이들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를 지속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방안 2: 기존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병행하여 패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3년마다 새로운 표본이 생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정 지을 수 있음.
 - 이 경우 앞에서 제시한 표본수 보다 적은 수의 표본(약 3,000가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안 3: 만일 2008년 조사 이후 횡단면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패널조사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패널 설계가 필요하게 됨.
 - 보다 빠른 주기로 노인인구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연동 표본설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V.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개선방안

1. 가구조사

- 장기적인 정책방안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전 연령층의 부모세대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과 구조적인 차원의 행태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강화가 필요함.
 - 이는 2004년도와 달리 제3자료부터 노인의 인지기능 및 행동에 관한 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음.

- 전 연령층의 세대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비동거 부모와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의 교환 상황을 파악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음.
- 장기적인 연령통합사회로의 진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연령규범이나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강화하도록 함.
-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측면, 즉 경제,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 세 측면에 대한 준비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노후준비하는데 어려운 점,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표 1〉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구조사 설문지 개선안 개요

2004년도	2008년도 개선안	비고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일반특성 1. 가구원사항 2. 가구주 관련 사항 3.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일반특성 1. 가구원사항 2. 가구주 관련 사항 3.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	* 동일 <추가> - 주택소유주 - 주택가격 -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 금융자산 - 경제상태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 세대간 부양교환 파악 강화 <추가> - 비동거 부모/배우자 부모의 신체, 경제, 정서적 부양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 장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종합적 태도 파악 <추가> -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 부모에 대한 책임의 범위 - 가족관계중 가장 관심을 두는 관계 - 고령화 인식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노후준비	* 신규 영역으로 구분 *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양상 주목 <보완> - 각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세부 내용: 경제,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 -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방법 <추가> -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있어 향후 필요한 정책적 보완
<input type="checkbox"/> 인지기능 및 행동	삭제	기능상태 파악 방법의 변화에 따라 가구조사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조사원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조사원 확인사항	

2. 노인개인조사

- 가구형태, 부양의 교환실태는 2004년도 조사내용과 동일하며, 일반특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경제상황,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은 몇 개 항목이 추가되는 변경만이 이루어졌음.
 - 일반특성 영역의 경우 배우자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는 노인이 가깝게 느끼는 관계가 무엇이며, 그러한 관계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되었음.
 - 경제상태에서 부채와 주관적 경제상황평가 항목이 보강되었으며, 경제활동의 경우는 퇴직 이후의 근로경력, 일자리 만족 사유 등이 추가되었음.
- 한편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도 있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경우, 연령규범 및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고, 노후준비에 관한 항목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설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 사회활동의 경우 사회활동 항목의 체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변화가 제안되었으며,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음.
 - 또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된 경로 및 정보원, 정책적 요구사항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음.
 - 생활환경의 경우, 기존의 주택내부에 대한 질문 항목에 더하여 주거 환경에 관한 항목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주택개조 사업의 맥락에서 주거개조의 필요성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음.
 - 한편, 전기노인들 사이에서 자가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자가운전 관련 항목도 추가하였음.
 - 기능상태와 관련하여 2004년도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앞

서 판정도구 개발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토중인 노인기능판정도구가 조사되었지만, 본 조사에서는 그런 정책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인식 및 태도는 2004년 조사 이후 발생한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항목을 수정보완하였음.
- 또한,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소비 영역은 2004년도에 없었던 영역으로 신설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의 성, 노인 자살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음.

〈표 2〉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개인조사 설문지 개선안 개요

2004년도	2008년도 개선안	비고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일반특성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일반특성	<추가> - 배우자 관련 사항 (건강상태,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추가> - 각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삶에 갖는 의미와 기대 - 가장 가까운 관계 5인 <삭제> - 친척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input type="checkbox"/>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가구형태	동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 교환실태	<input type="checkbox"/> 부양의 교환실태	동일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장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종합적 태도 파악 <추가> -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 연령차별의 경험 -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input type="checkbox"/> 노후준비	* 신규 영역으로 구분 * 노후준비 다차원적 양상 주목 <보완> - 각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세부내용: 경제,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 -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방법

〈표 2〉 계속

2004년도	2008년도 개선안	비고
□ 직업 및 경제상태	□ 경제상태	<추가> -부채상황 -다각적인 주관적 경제상황 평가 파악
	□ 소비	* 신규영역으로 설정 -10대 비목에 대한 지출구성 -특별항목에 관한 조사
	□ 경제활동	<추가> -퇴직 이후 근로경력 -일에 대한 만족 사유
□ 사회활동	□ 사회활동	* 사회활동 만족도 및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항목 대폭 추가
□ 보건의료	□ 보건의료	<추가> -건강·영양교육 참석 여부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유
□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 기능상태 측정 항목 수정 * 정서적 건강 측정을 위한 우울도 측정 추가
□ 생활환경	□ 생활환경	* 주거환경관련 항목 대폭 추가 <추가> -주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주택개조 필요성 -자가운전관련 항목
□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신규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
	□ 새로운 관심사	* 성, 죽음 및 자살에 관한 조사 실시
* 확인사항	* 확인사항	

VI. 결론 및 제언

1. 체계적인 조사준비

-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표본설계 개선방안과 설문지 구성안에 기초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시·도별 통계가 산출될 수 있는 규모의 예산확보 여부가 확정되어야 함.
 - 조사규모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일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조사일정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조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됨.
-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설문지 구성안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와 정책계획 및 집행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갖도록 함.
 - 또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함.

2.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 조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정책입안자,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기술통계로서는 거의 모든 출판물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자료의 심층분석 등 학술적 활용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조사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학술대회를 통한 제고방안과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통한 제고방안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적 아젠더로 떠오르면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evidence-based)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정책평가의 한 요소로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지가 포함되고 있다(박병식, 2003).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법정 조사회가 이루지게 되었다. 즉, 노인복지법의 개정(2007. 1)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법정조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¹⁾. 그 전까지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책적 필요성과 조사 실시 예산의 확보가능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1994년과 1998년도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체예산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후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조사는 1994년 조사 실시 후 4년만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2004년 조사는 1998년 조사 후 6년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법정 조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주기상의 불규칙성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자리잡음에 따라 주기별 진행과정의 체계화, 효과적인 조사설계와 조사결과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 제5조(노인실태조사)에서는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4년도에 조사가 실시된 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조사의 규모와 지향성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범사회적 합의체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6년도에 1차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과제와의 연계 속에서 조사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및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실시되고 있어, 그러한 조사와의 관계에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 또한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우리사회는 노인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2008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활한 수행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통계청이 실시한 통계품질진단 결과이다. 2006년 처음 이루어진 통계품질진단은 6

개 단계를 거친 품질진단에 기초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우수한 조사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보고서 발간시 오타자 등의 오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질문의 추가, 자료의 공표시기와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을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표본규모의 확대 및 조사주기의 단축,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지역별로 조사원을 훈련하고 활용하는 방법, 원자료 이용방법에 대한 매뉴얼 제공 및 구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개선방안 중 연구 외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 국내외 관련 조사의 검토, 정부의 중장기 복지정책 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인 제2장은 선행연구 고찰로, 이를 위하여 외국사례의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부분인 제3장은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이다. 이를 통하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지향성과 기능이 명확해질 것이다. 셋째 부분인 제4장은 표본설계관련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넷째 부분인 제5장에는 선행연구 고찰과 2004년도 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기초하여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설문지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지향점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관련 기본방향, 국내외의 노인관련 조사,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이슈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대규모 전국 조사로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노인 및 노년기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지가 구성된 최근 시작된 패널조사의 주요내용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함에 있어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국외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의 영역구성과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설문지 구조 개선과 구체적인 설문항목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조사 이후 이루어진 노인복지정책의 현안 정책 변화와 2006년에 작성된 '새로맞이 플랜'의 주요 정책과제를 2004년도 조사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국제기구의 기본방향 검토

UN은 198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에서 세계의 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각 회원국의 공통 과제로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한 바 있다. 이로부터 20여년 후인 2002년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UN은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일명 마드리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마드리드 선언문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 ②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수립에 대한 재확인을 통한 노후 안정성 확보
- ③ 노인들이 소득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④ 노인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등을 통해 노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의 기회 제공
- 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 ⑥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노인의 성평등 달성
- ⑦ 사회개발을 위해 가정, 세대간 상호의존, 연대 및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 ⑧ 예방적 보건의료와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 ⑨ 국제행동계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및 노인들 사이의 협력관계 촉진
- ⑩ 개발도상국의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기술적 잠재력

- 의 초점을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맞춘
- ⑪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 고유의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모색의 필요성 인식

이와 같은 주제의식 하에 UN은 마드리드 선언문은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등 모두 세 가지의 주요 방향을 채택한다. 또한 그 하부에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 밑으로 구체적인 행동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표 2-1>은 마드리드 선언문에서 채택된 행동권고에 관한 조문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 UN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의 행동권고

방 향	과 제	행동목표
노인과 발전	사회발전에 적극적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기여 인식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기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 부여
	농촌개발, 이주와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하부구조 개선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외 완화 노인 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
	지식·교육·훈 련에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지도 및 배치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전생애를 통한 기회 균등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험의 이익을 인식하여 모든 연령계층 사람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의 완전한 이용
	세대간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간 평등과 상호이익을 통한 연대성 강화
	빈곤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의 빈곤감소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금, 장애보험, 건강급여를 포함한 기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증진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노인들에게 충분한 최저소득 제공
긴급상황하의 노인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와 기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기간과 그 후 식량, 피난처,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 비상사태 이후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재건에 노인들의 기여 제고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증진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증진과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의 위험과 그 결과로 노년에 잠재적 의존을 증가시키는 누적적인 영향요소 감축 노인질병 예방정책 개발 식품 및 적절한 영양에 대한 모든 노인들의 접근
	보건의료서비 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건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연령, 성별, 언어적 장애를 포함한 기타 사회경제적 불평등 철폐 노인욕구에 대응하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과 강화 및 그 과정에서 노인참여 증진 노인욕구를 만족시키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발 노인의 개발참여 및 일차보건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치료서비스 강화

<표 2-1> 계속

방 향	과 제	행동목표
	노인과 HIV/A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노인 및 감염 가족을 돌보는 노인 모두를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향상 ▪ 에이즈 감염노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기술 관련 훈련, 치료, 의학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제공 ▪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부모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도록 노인들의 기여 증진
	보호제공자와 보건전문가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욕구와 관련된 보건전문가와 준 전문가들을 위한 향상된 정보와 훈련 제공
	노인과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부터 개입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보호서비스 개발
	노인과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노인의 전 생애에 걸친 최대한 기능적 능력 유지 및 완전한 참여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과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선호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 제공을 통해 친고령 지역사회 여건 증진 ▪ 특히 장애노인 등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 설계 증진 ▪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공 증진
	보호와 보호제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및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 제공 ▪ 노인-특히 여성노인-의 보호자 역할 지원
	노인 유기, 학대와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 ▪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
	노인 이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여타 중요한 공헌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2절 국내외의 노인관련 조사내용 검토

1. 국내 관련 조사

국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대규모 전국조사로는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인구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과 같은 노인 또는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두 패널조사는 그 내용에 있어 특정 연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소득 및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 특정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부표 1-1 참조).

한편,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최근 특정 영역 중심의 조사에서도 노인 또는 노년기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 실시된 「차상위 조사」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지가 구성되었으나, 차상위층의 노인이 응답자이며 주요 내용이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07년 2차로 실시되는 「차상위 조사」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다(부표 2-1 참조).

아직 조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2007년 10~12월에 걸쳐 「2007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노인의 주거실태 관련 현황과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시설도 관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부표 2-2 참조). 본 조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둔 전국조사로는 최초로 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2007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고령층 부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내용은 경제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사항목도 13개로 제한적이다. 또한 조사대상도 노동부에서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55세를 시작으로 하여 7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부표 2-3 참조).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구성이 되어있지 않지만, 특정 영역에 대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이 가능한 전국조사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부표 3-1 참조). 또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경우 2003년 조사내용에 응답자나 응답자의 배우자의 부모와의 부양의 교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다(부표 3-2 참조). 통계청에서는 2007년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의 복지부문 조사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후준비방법,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생활비 마련 방법,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의 6개 항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 또한 특정 영역의 개별적인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의 관련 조사 검토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조사는 개별 분야의 정책 입안에 필요한 욕구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영역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욕구의 포괄적인 파악에 그 강점을 두고 설문지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노인의 특성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며, 현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가구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포괄적인 욕구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구조사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관련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대관계, 여가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여 유일하게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역에 관한 종합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타 조사에서는 특정 분야의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파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므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욕구와 의견이 파악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외 관련 조사: 미국

노인에 관한 해외 조사를 검토할 때 미국은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국가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한 규모의 노인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각국의 노인조사 및 패널조사 가운데 다수는 미국의 노인조사를 모델로 벤치마킹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원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

미국의 노인조사는 국가 규모와 지역적 다원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축은 전국조사(national data)이며, 다른 한 축은 각 대학 부속 연구기관이나 독립 연구기관, 민간단체들이 자립적으로 축적해 오고 있는 시계열적 자료(longitudinal data)이다.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자료는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인데 이러한 전국 수준의 자료가 갖는 특징은 주로 정신보건 위주의 사회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인들이 건강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미국 내에서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가 차지하는 중요성 등으로 인해 건강관련 변수가 풍부하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미국의 노인관련 전국조사인 HRS를 비롯해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심리학적 차원의 조사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중년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둔 American's Changing Lives, 노화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둔 Mid-life in the United States 등의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그 밖에 대표적인 노인 관

련 민간단체인 AARP에 의해 수행된 The State of 50+ America와 The Grandparent Study 2002 Report 등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1) 조사 개요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이하 HRS)는 노인에 관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조사로서, 개인의 생애주기 가운데 ‘은퇴’를 정점으로 건강 상태, 가족관계, 고용상태와 소득, 자산현황, 소비행태, 개인의 은퇴결정,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의 영역에서 야기되는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²⁾. 199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패널데이터 형식으로 구축되고 있는 HRS는 원래 목적이 유사하지만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두 개의 조사가 결합됨으로써 현재의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1992년에 처음 HRS 조사가 착수되었을 때, 2년을 주기로 한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HRS와 동일한 형식을 띠지만 당시의 조사 대상자는 51세에서 61세 사이의 미국인(당시 기준으로 1931년에서 1941년 사이에 출생한 자)과 그 배우자에 국한되었다. 한편 1993년에 시작된 ‘Study of Assets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는 2년 주기의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한해 앞서 시작된 HRS와 유사했지만 70세 이상의 미국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1992년에 시작된 HRS(일명 ‘오리지널 HRS’)와 1993년에 시작된 AHEAD는 각각 2년을 주기로 자료가 구축되다가 1998년에 이르러 현재의 HRS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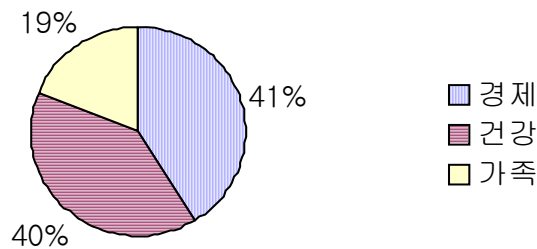
2) HRS의 보다 구체적인 조사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은퇴관련 변인 및 은퇴의 영향 분석 ② 시간에 걸쳐 건강, 소득, 자산 사이의 관계 분석 ③ 자산축적과 소비의 생애주기에 걸친 패턴 분석 ④ 근로 장애 모니터링 ⑤ 경제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정책/제도(프로그램)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은퇴, 비저축(dissavings), 건강감퇴, 시설입소 등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상호 통합되었다. 2년 주기의 패널데이터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조사 대상은 각 자료가 포괄하던 대상자들을 통합해 50세 이상의 미국인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통합된 HRS는 1998년 이후 미국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의 재정지원과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ISR)에 의해 공동 주관되고 있으며 약 22,000여명의 표본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같은 HRS 자료 구축은 고령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영국과 유럽에 영향을 미쳤으며 HRS를 벤치마킹하는 각국의 조사를 탄생시켰다³⁾.

2) 조사 항목

HRS의 조사항목은 크게 경제, 건강, 가족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특히 경제와 건강의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림 2-1] HRS의 세 가지 조사 범주별 조사시간의 할당



3)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영국에서 구축하기 시작한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와 2004년부터 시작된 유럽 13개국 대상의 고령자 패널자료인 SHARE(Stud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등이 이에 해당하며 한국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 역시 같은 맥락의 자료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소득액, 총자산 및 그 구성, 급여수급(예: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고용보험, 기업 의료보험 등), 퇴직 전과 퇴직 이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자산의 이동 등 미국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집한다. 덧붙여 직무 특성, 직업 이동성, 노동시간, 퇴직에 대한 태도, 고용주에 의한 급여(예: 기업 의료보험, 연금,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기타 고용주 후원의 저축 프로그램 등), 퇴직 급여, 조기퇴직 인센티브 등 직업 및 고용에 관한 상세한 수준의 정보를 수집한다.

건강 영역의 조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만성질환, 기능상태, 우울, 자가 건강 진단 지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동습관(예: 흡연, 음주, 운동 등) 등 노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다. 둘째, 노인의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로 진료 및 입원 횟수, 요양시설 입소 일수, 수술여부, 치과진료, 약물복용 상태, 보조기구 사용(예: 돋보기, 지팡이 등) 여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의료 서비스 혜택 현황에 대한 조사로서, 돌봄 서비스의 수혜여부,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여부, 그 밖의 진료비 혜택 등에 관한 데이터가 포괄적으로 조사된다. 넷째, 노인들의 인지에 관한 정보 수집인데, HRS의 특징은 공인된 임상도구를 활용해 인지 정보를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인지상태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상태의 변화 및 치매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지 상태와 경제 행위, 조사 응답 패턴과의 관계 등 다방면적인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2006년도 조사부터 HRS는 생물학적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강영역의 자료 수집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요소와 건강 및 사회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의 제기에 따른 것이며, 생물학적 정보에는 노인의 키와 체중, 심폐기능, 혈압, 손힘, 도보 속도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실제 혈액샘플을 채취해 콜레스테롤 및 글리코실화(glycosylated), 헤모글로빈 수준(혈당 통제 지표)을 조사하며 미래 유전학 연구의 목적으로 타액샘플 채취를 통해 DNA 정보를 수집하는 등 HRS 데이터의 생물학적·의학적 활용 여지를 확장시키고 있다.

가족 영역의 조사는 크게 생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와 인구학적 및 가족관계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 활용 및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신체적 결함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 주거 조건 등 노인들의 주거 및 주거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주거 소유 여부 혹은 주택 관련 경제적 상황, 시설 입소 비용 등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관한 조사와 자녀 및 다른 사람들과의 동거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인구학적 및 가족관계에 대한 자료는 연령, 인종적 배경, 교육수준, 결혼여부 및 결혼사(結婚史), 가족 구성 등과 같은 표준적인 인구학적 정보 수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혼 응답자의 경우 보다 정교한 건강 및 경제적 정보가 본인 및 배우자 모두로부터 조사되며 응답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기타 가족원에 대한 일반적 인구학적 정보를 조사한다. 그밖에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세대간 가족 지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적 이전, 돌봄 제공, 공동 주거 부담,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은 대표적인 세대간 가족 지원 변수로 포함시키고 있다.

나. American's Changing Lives

1) 조사 개요

American's Changing Lives(이하, ACL)는 중년기 이후 미국인들의 일

상생활에 관한 사회적, 심리적, 정신건강 및 의학적 측면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ACL은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전 미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흑인 및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과대표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⁴⁾. 1차년도에는 3,617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2,867명이 2차년도로 계승되었다. 3차년도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모든 응답자들과 재접촉을 시도한 결과 2,562명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 있었으며, 4차년도 현재 총 3,617표본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한 상태이다. ACL의 자료수집은 NIA의 재정지원과 Survey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제간 연합팀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

2) 조사 항목

2006년도에 실시된 4차년도 ACL 조사에서 명시된 조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측면에서 조망한 미국인들의 광범한 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특성, 둘째, 개인의 건강, 효율적 기능 및 생산적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생애사의 위기 사건과 만성적 스트레스에 개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셋째, 생산적 활동 및 관계의 성격, 의미, 결정요인, 결과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편차 등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ACL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둔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첫째, 배우자, 자녀, 부모, 교우관계 등 포괄적인 대인관계, 둘째, 삶의 만족도 및 만족의 주된 원천,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여가 활동, 넷째, 타인에 의한 육체적 상해, 심각한 질환, 이혼, 측근의 죽음, 재정적·법적 문제 등과 같은 개인의 충격적인 경험, 다섯째, 은퇴에 대한 인

4) 그 결과, ACL 표본의 인종 및 연령별 표본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비흑인, 25-59 = 1:1

비흑인, 60+ = 2:1

흑인, 25-59 = 2:1

흑인, 60+ = 4:1

식, 여섯째, 흡연, 음주, 과체중, 휴식 등과 같은 건강관련 행위, 일곱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정도(병원 방문, 입원, 요양원 입소, 외병일수 등), 여덟째, 육체적 건강, 심리적 복지상태, 인지기능 관련 지표 등이다. 개별 조사사례의 배경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구성, 자녀 및 손자녀 수, 고용지위, 직업, 고용이력, 소득, 가구 재정상태, 종교, 인종·민족, 교육수준, 성별, 거주지역 등이 조사된다. 2006년도에 실시된 4차년도 조사는 ① 가구구성원 정보, ② 사회통합 및 육체적 활동, ③ 생활평가 및 자기평가, ④ 결혼지위 및 결혼관계, ⑤ 사회적 지지, ⑥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⑦ 육아·보육 및 가사노동, ⑧ 건강·활동의 제약·건강위협 행위·의료 서비스 이용, ⑨ 유급노동의 9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섹션의 대표적인 문항은 아래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다. Mid-life in the United States

1) 조사 개요

Mid-life in the United States(이하, MIDUS)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측면적 변인들(근로경력 및 가족경력,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심리적 측면,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학제간의 연합에 의해 착수된 연구이다. 1994-1995년 맥아더재단 연구팀(MacArthur Foundation Research Network)에 의해 첫 번째 조사(일명 MIDUS 1)가 착수되었으며 여기에는 심리학, 사회학, 인구학, 역학, 인류학, 의학, 보건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5세에서 74세 사이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모두 7,108명의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MIDUS 1의 정보는 모든 응답자로부터 약 30분 가량의 전화 인터뷰와 두 개의 자가진단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SAQs)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 2-2> ACL 4차년도 조사항목

조사항목	대표적 문항
□ 가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 및 관계
□ 사회통합 및 육체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이웃, 친척과 ①통화 횟수 ②모임 횟수 ▪ 집단, 클럽, 조직의 회합 또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빈도 ▪ 정원 일을 하는 빈도 ▪ 산책 빈도 ▪ 활동적인 스포츠 혹은 운동을 하는 빈도
□ 생활평가 및 자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삶에 대한 관점(낙관적 vs 비관적) ▪ 자존감 ▪ 문제해결능력/주도권
□ 결혼지위 및 결혼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동거)년수 ▪ 부부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 결혼생활 만족도
□ 사회적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수 및 연령 ▪ 자녀/친구/친척의 정서적 지지 ▪ 부모로서의 만족감/불만족 ▪ 자녀의 성장에 대한 만족 ▪ 사적 고민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 물리적환경 및 사회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형태 ▪ 주거환경 및 위생 ▪ 이웃관계/수준/안전도 ▪ 지역사회 환경
□ 육아, 보육 및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소요 시간 ▪ 가사노동 소요시간 ▪ 가사노동 항목별 소요시간
□ 건강, 활동의 제약, 건강위험행위,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강상태 ▪ 일상생활 및 활동 수행능력 ▪ 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 제반 행위 ▪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입소 경험 및 기간 ▪ 병원 및 응급실 등 입원경력 ▪ 진료 경력 ▪ 건강관련 검진 ▪ 의료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재정상태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제약 ▪ 과거 및 현재 병력
□ 유급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고용상태 ▪ 퇴직사유 ▪ 노동시간 ▪ 근로소득

2004년에는 NIA의 재정지원과 위스콘신대학의 노화연구소(Institute on Aging)의 주관에 의해 MIDUS 1의 응답자에 대한 시계열적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다(일명, MIDUS 2). 이를 기점으로 MIDUS는 패널자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MIDUS 1의 7,108명의 응답자 가운데 4,963명에 대한 추적이 가능했으며, MIDUS 2 역시 MIDUS 1과 마찬가지로 약 30분 분량의 전화 인터뷰와 두 개의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MIDUS 2는 MIDUS 1을 통해 수집된 광범한 정보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것에 덧붙여 생물학 및 신경학적 측면 등 새로운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지향하였다. 이같은 지향을 반영해 MIDUS 2는 5개의 개별 연구과제로 세분화되었다.

2) 조사 항목

MIDUS 1의 목적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 및 정신건강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MIDUS 1의 조사영역은 일상생활의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전학적 변인, 신경생물학적 변인, 건강관련 태도 변인, 심리적 및 사회적 변인, 건강 및 질환 변인 등의 구체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진다(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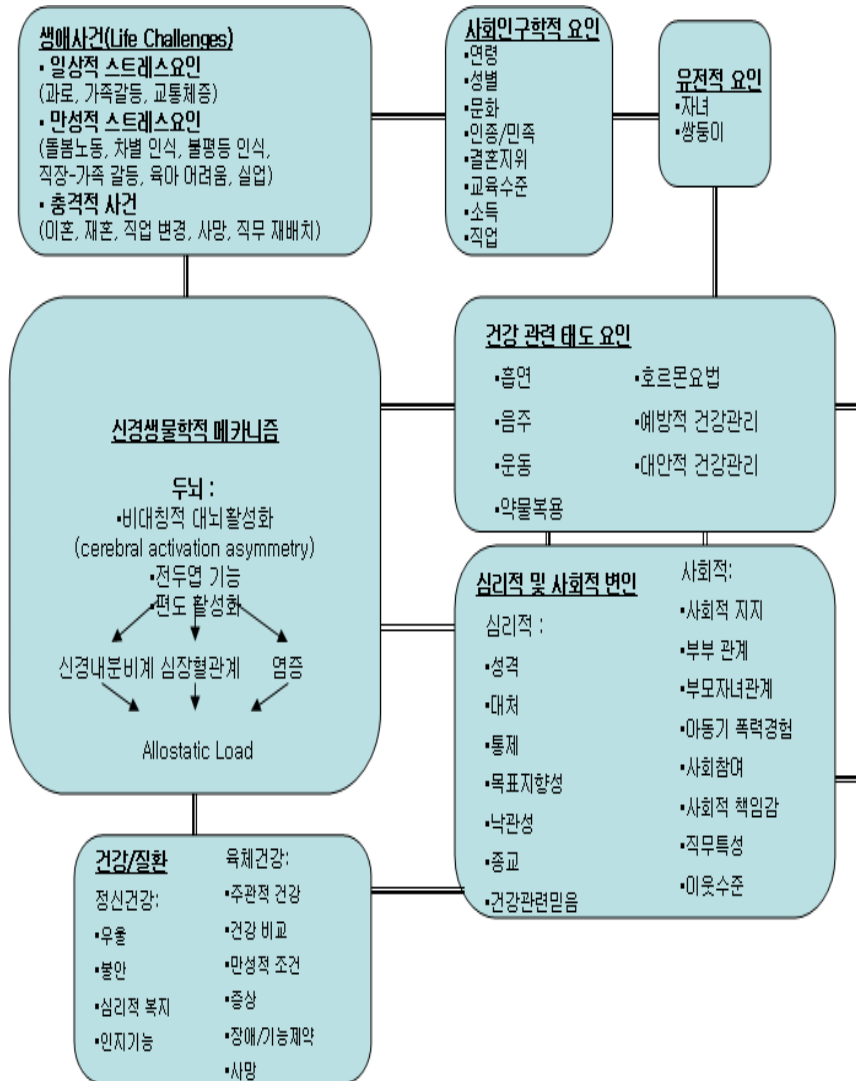
이같은 광범한 영역에 걸친 조사 내용은 전술하였듯, 응답자에 대한 전화면접과 자가진단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가진단 설문지의 경우 각 조사 항목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가진단 척도 및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자가진단의 경우 총 35개의 척도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척도 및 그 하부 항목은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⁵⁾

<표 2-3> MIDUS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자가진단 척도 예시

항 목	지 표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① 인생 전반, 직장,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② 0-10점 사이의 점수 부여
심리적 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	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② 자아수용력 ③ 자율성 ④ 개인적 성장 ⑤ 환경에 대한 주도권 ⑥ 삶의 목적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과거에 대한 통찰 Planning and making sense of past	① 자기 주도력 및 계획력 ② 현재에 대한 인식 ③ 미래에 대한 예견 및 기대 ④ 과거에 대한 통찰
사회적 복지감 Social well-being	① 사회의 의미(사회적 응집성) ② 사회통합 ③ 타인의 수용(사회의 수용) ④ 사회적 기여 ⑤ 사회적 진보
사회적 책임성 Social responsibility	① 시민의 책무 ② 직업 책무 ③ 이타심
차별 인식 Perceived discrimination	① 생애주기의 차별 ② 일상적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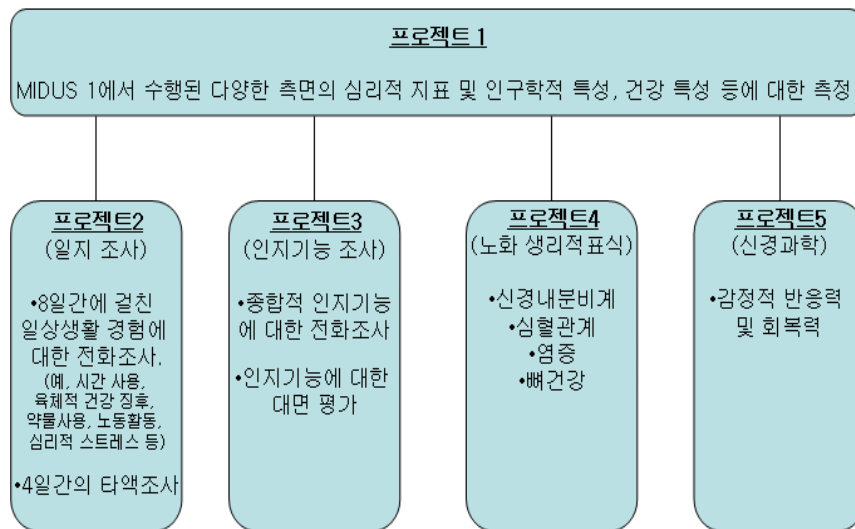
5) 35개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음주측정, 결혼 및 가족관, 갈등행동 양상(conflict tactics inventory), 우울, 가족 의무, 가족지원 및 갈등, 친구지원 및 갈등, 일반화된 불안장애, 생성척도(generativity scale), 직무 특성, 삶의 만족도, 결혼 위기, 공황 장애, 유년기의 부모애착, 인지된 차별, 인지된 가족내 불평등, 인지된 가정내 불평등, 인지된 작업장 불평등, 이웃·가정에 대한 개인적 신념, 성격 특성,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과거에 대한 통찰, 긍정적·부정적 정서, 일차적·이차적 통제, 심리적 복지감, 신앙심, 사회적 지원 획득, 통제력,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지원, 사회적 복지감, 신체적 민감도(somatic amplification scale), 배우자·동거자 불화, 배우자·동거자의 의사결정, 배우자·동거자의 지원 및 갈등, 일·가족 갈등(work to family spillover).

[그림 2-2] MIDUS 1의 조사내용



한편, 2004년도의 MIDUS 2에서는 조사항목이 보다 다변화되었는데, MIDUS 2는 첫째, MIDUS 1의 심리적, 사회인구학적, 건강 변수에 대한 후속정보를 수집하는 것, 둘째, MIDUS 1에 포함된 일지(diary) 조사에 대한 후속 정보를 수집하는 것, 셋째, 새로운 조사 영역으로서 인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 넷째, 노화의 생리적 표식(biomarker)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다섯째, 신경과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조사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MIDUS 2는 총 5개의 하부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인지, 신경과학 등의 영역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다.

[그림 2-3] MIDUS 2의 조사내용



라. The State of 50+ America

1) 조사 개요

The State of 50+ America는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대표적인 노인조사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 민간단체인 AARP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50세 이상 미국 노인의 경제, 건강, 사회적 측면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경향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영역별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25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표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제시해 준다.

2) 조사 항목

The State of 50+ America에서 미국 노인의 삶의 질을 보여주기 위해 총 4개의 영역에서 25개의 지표를 제시하는데 이는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경제적 영역에서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연금 등 구체적인 가구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부채관계 및 경제적 자신감 등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사항까지 조사한다. 건강의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관리 행동 등에 대해 조사한다. 생활양식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인의 소비, 인터넷 사용, 대인관계,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 등에 대해 조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독립성에 대한 조사에서 노인이 일상생활, 교통, 주거 등의 측면에서 얼마만큼 독립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다.

<표 2-4> The State of 50+ America의 조사 지표

영역	지표
경제	① 가구 중위소득 ② 중위 금융자산 ③ 빈곤선 200%의 비율 ④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장이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총당하고 있는 62세 이상의 인구 비율 ⑤ 연금 급여 ⑥ 고용율 ⑦ 노동시장 참여율 ⑧ 1년 전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진 사람들의 비율 ⑨ 퇴직 후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⑩ 개인적 채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건강	① 건강상태가 ‘완벽함’ 혹은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② 비시설 메디케어 급여(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애급여 포함)를 받으면서 동시에 처방약품 급여(Rx drug coverage)가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③ 당해연도에 일정 기간동안이라도 건강보험(유형 막론) 가입자인 50에서 60세 사이 사람들의 비율 ④ 지난 12개월 동안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 ⑤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 ⑥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 ⑦ 우울증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생활양식 /사회	① 선택재에 대한 지출 비율 ②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 ③ 가족, 친구, 이웃과 만족스러운 정도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④ 지난 12개월 동안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
독립적 생활 /장기요양	① 타인으로부터 보조를 필요로 할 정도의 기능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의 비율 ② 돌봄 제공자 가운데 과도한 돌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비율 ③ 교통수단을 결여함으로써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④ 주거지역이 안전의 측면에서 ‘양호’ 혹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마. The Grandparent Study 2002 Report

1) 조사 개요

The Grandparent Study 역시 민간 노인단체인 AARP의 Grandparent Information Center에 의해 주관된 것으로 세대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2001년 11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 착수했으며 총 1,500명의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대상자를 '조부모'로 규정했는데, 실제 응답자의 연령은 45세부터 100세까지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평균연령은 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항목

이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특히 '조부모'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인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손자녀와의 접촉 빈도 및 수단(대면접촉, 전화, 우편, 이메일 등), 손자녀와 공유하는 대화주제 및 활동 등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 가지 축의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덧붙여, 조부모와 자녀(즉, 손자녀의 부모) 사이의 공감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는데, 이는 부모가 종종 손자녀와 조부모를 연결시키는 촉진자로 기능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연간 총 비용 및 소비항목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 다음은 The Grandparent Study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이다.

- 조부모의 역할규정
- 손자녀와의 대면접촉 및 대면접촉의 장애요인
- 함께하는 활동 유형

- 조부모의 운동 및 스포츠활동
-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 손자녀와 의사소통 수단
- 대화 주제/소재
- 손자녀에게 제공하는 선물 아이템(조부모-손자녀 시장)
- 인터넷 접근성 및 사용
- 조부모 역할의 중요도 및 관련 요인
- 손자녀 육아 지원 여부
- 손자녀 양육 여부

바. 종합 및 함의

이상, 미국에서 실시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노인조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의 <표 2-5>와 같다.

이같은 미국의 노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건강의 측면 및 고용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성 담론이 지배적인 미국의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인조사가 우리나라의 노인조사에 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에 관한 다수의 미국 조사들은 패널자료로서 시계열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노인관련 이슈가 항구적이라기보다 시대에 따라, 그리고 동년배(cohort)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횡단면적인 자료보다 종단적 자료가 현실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조사 역시 2008년을 기점으로 3년 주기의 조사가 의무화되었는데 이같은 외국의 선례를 받아들여 장기적으로 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표 2-5〉 미국의 노인관련 조사

조사	조사 년도 및 주기	조사대상	표본수	주관기관	재정지원	조사목적
H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년 2년주기 패널자료 	50세 이상	약2,000명	미시건 대학	NIA	'은퇴'를 정점으로 제 영역(건강, 가족, 경제, 소비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 조사
AC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1989, 1994,2006 패널자료 	25세 이상	약3,617명	Survey Research Center	NIA	중년기 이후 미국인 일상생활 변화양상 조사
MID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2004 2004년-패널자료 	25-74세	7,10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맥아더 재단 위스콘신대학 Institute on A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맥아더 재단 NIA 	노화로 인한 육체·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심리, 사회, 생물학적 요인연구
The State of 50+ America	2004, 2005, 2006년	50세 이상	-	AARP	AARP	50세 이상 노인의 경제, 건강, 사회적 측면의 삶의 질 변화 경향 조사
The Grandparent Study	2001	조부모	1,500명	AARP	AARP	세대 관계

둘째, ACL의 경우 중년기 이후의 '일상생활'의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상생활의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측면과 생활시간의 활용 등 보다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매일 되풀이되는 삶으로서 일상생활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개인의 가장 표준적인 삶이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틀이며, 따라서 삶의 질 및 욕구를 포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예컨대 개인 및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그 개인·가구의 소비 경향을 통해 표출되며, 소비 수준은 소득만큼이나 삶의 질과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4시간의 일과는 취미, 지향, 건강, 관계, 가치관,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 복지 변수들을 합한 것 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이처럼 소비, 생활시간 등 표출되는 노인의 일상생활의 양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의 질적 측면에 관한 자료 수집에 더욱 주력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대간 관계 및 세대 통합 양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대통합의 문제는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보편적인 노인복지의 이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특히 동양문화의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 및 손자녀들과의 교류 등 세대간의 통합에 의해 중요하게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함으로써 노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수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외 관련 조사: 일본

일본에서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1)고령자대책 종합조사, 2)정책연구조사, 3)고령화문제기초조사(국제비교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대책종합조사는 고령자와 관련된 5개 주제별로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고령사회대책의 시책분야가 되는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에 대해 일반고령자의 인식에 관한 종합적 조사이다. 정책연구조사는 비정기적 조사로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마다 실시되는 조사이며, 고령화문제기초조사(국제비교조사)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별 특성과 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령자대책 종합조사

본 조사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되 정해진 5개의 주제별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조사 주제는 (1)주택과 생활환경, (2)일상생활, (3)지역사회 참가, (4)건강, (5)경제의 5개 주제이며, 각 주제는 5년주기로 실시된다.

『고령자의 주택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는 본격적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고령자가 가능한 한 생활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주택 및 생활환경을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을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나 고령에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응한 구조, 설비 등과 함께,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도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기능과 안심하고 불편함이 없이 외출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표 2-6〉 일본 고령자대책 종합조사 실시 현황

조사명	최근 조사	조사대상	조사규모
고령자 주택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식조사	2005	60세이상	1,886명
고령자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2004	60세이상	4,000명
고령자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2003	60세이상	1,941명
고령자 건강에 관한 의식조사	2002	65세이상	2,308명
고령자 경제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2001	60세이상	2,077명

조사대상자는 전국 60세 이상의 남녀로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방식이며, 최근 조사인 2005년 조사에서는 1,886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내용은 (1)주택의 상황: 거주기간, 주택종류, 주택의 건축시기, 방수, 주택의 평수, 주택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 (2)낙상사고: 자택, 주택외의 사고, (3)재해에 준비해두고 있는 대책, (4)리폼(개조):리폼의 경험, 고령자

를 위한 필요한 구조·설비, (5)생활 스타일: 식사, 휴식, 취침, 입욕스타일, (6)주택과 주택환경에 관한 우선도, (7)허약할 때의 주거형태, (8)자녀와의 동거·별거, (9)동거를 위한 주택계획, (10)재산의 용도, (11)외출 상황: 외출을 잘 나가는 시간, 외출 수단, 자동차의 운전빈도, 향후 운전에 관한 의향,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 (12)지역에서 불편한 점으로 구성되었다.

『고령자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조사』는 고령자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야 하며, 다른 한편 고령자의 모습과 현황은 성별, 건강상태, 경제력, 가족구성, 주거, 그 외 각 개인의 취미나 기호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인으로서의 노인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현황, 생활만족도, 의식주를 비롯, 가사, 외출, 일상적 즐거움, 일상생활 정보에 관한 충족도 등 고령자 일상생활 전반, 의식을 파악하고,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을 행해서 고령사회대책 자료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최근 실시된 조사는 2004년으로 전국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구체적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안관련 질문: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 장래 일상생활에의 불안, 불안을 느끼는 이유, (2)가사분담, 가사에 관한 의견, (3)이동, 외출, 주된 외출수단, 외출시 장애, (4)고령자 정보: 고령자용 정보를 얻는 정보원, 일상생활에 관해 불편한 점, 원하는 일상생활 정보, (5)고령자로 인식되는 연령, (6)매일의 일상생활에 관해 사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고령자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는 노년기의 활기찬 생활, 안심하고 충실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풍요로운 장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참가,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제까지 키워온 경험과 능력을 살린 적극적인 참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관점 하에 실시되었다.

〈표 2-7〉 일본 고령자대책 종합조사 주요 조사내용

조사명	조사내용	
(1) 고령자주택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황 ▪ 낙상사고 ▪ 재해 대책 ▪ 주택개조 ▪ 생활스타일 ▪ 주택과 주택환경 우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약시 희망 주거형태 ▪ 자녀와의 동거·별거형태 ▪ 동거를 위한 주택계획 ▪ 재산의 용도 ▪ 외출상황 ▪ 지역에서 불편한 점
(2)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만족도, 불만사항 ▪ 가사 업무 부담 ▪ 이동, 외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관련 정보 ▪ 노인 인식 연령 ▪ 사회가 증점을 두어야 할 관심 사항
(3)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가 환경 관련 사항: 지역사회 거주년도, 외출 빈도, 이웃, 친구 유무, 가족 생활에 맞는 고령자 역할, 시간 소요방식, 취미 등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 정보기기 사용여부 ▪ 지역사회활동실태: 참가하는 활동, 활동형태, 주력활동, 빈도, 참가계기, 사회활동의 좋은점, 활동하지 않는 이유, 지역활동 참가의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동 관련 인식: 지역활동 필요조건, 사회적 인프라,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희망사항 등 ▪ 세대간 교류·인식: 세대가 교류 기회, 교류 상대, 참가 의향, 교류내용, 세대교류 하지 않는 이유, 교류추진 필요조건
(4) 고령자의 건강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건강상태, 요개호도, 건강유지 증진 활동, 운동유무 ▪ 외출 및 식사 등 정서상태: 외출빈도, 식사관련 사항, 정서적 지지상대 등 ▪ 개호에 대한 인식: 개호 불안, 개호 희망장소·대상, 배우자 개호의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현황: 장기요양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 죽음관련 조사: 죽음인식, 죽음 희망장소, 연장의료에 대한 인식 ▪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 기대
(5)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대한 사항: 현 경제상태 및 과거 직업, 취업희망에 대한 인식 등 ▪ 수입·지출 관련 사항: 수입원별 소득액, 세금·사회보장 부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관련 사항: 저축, 노후준비, 부동산 관련 사항 ▪ 자산 증여·관리 사항: 자산의 증여에 대한 인식, 자산관리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자녀로부터의 지원 등

6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에 참가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사항: 거주년수, 외출빈도, 가까운 이웃의 정도, 친한 친구나 또래 유무, 가족 생활에 맞는 고령자의 역할, 가사와 일 이외 시간소요 방식, 취미 등 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기 위한 필요조건, 정보기기의 이용현황, (2)지역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사항: 참가하고 있는 활동, 활동형태, 가장 주력하는 활동, 빈도, 참가계기, 활동 전체를 통해 참가해서 좋았던 점, 활동에 참가 안 한 이유, 지역활동에의 참가의향, 향후 참가하고 싶은 활동, 참가한 이유, 참가하고 있는 단체, 특히 주력하는 단체, 학습활동에의 참가상황, 비영리단체(NPO)활동 관심의 유무, 퇴직자의 지역과의 연결방안,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 (3)지역활동에 대한 사고방식: 지역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필요조건, 가장 필요한 조건, 필요한 사회적 정비, 활동자금의 확보, 가장 바람직한 활동자금의 확보, 보수에 대한 의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방식, 고령자가 지역을 위해 활동에 참가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희망사항, (4)세대간 교류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젊은 세대와의 교류 기회 유무, 교류의 상대, 참가 의향, 교류의 내용,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이유, 세대간 교류추진을 위한 필요조건, 삶의 보람 정도로 구성된다.

고령자대책종합조사의 네 번째 주제는 「고령자 건강에 관한 의식조사」이다. 이 조사는 고령자의 건강상태, 복지, 개호 등에 관한 고령자 의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전국 65세 이상 남녀이다. 조사내용은 (1)건강상태와 건강관리: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의 영향, 일상활동 현황, 요개호도 현황,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신경쓰고 있는 것, 운동 유무, (2)외출 및 식사 등 정서상태: 외출빈도, 식사에 관해 신경쓰는 것,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 현재의 즐거움, 걱정 등 고민거리, 불면 유무, 걱정 등 고민거리의 상담할 상대, (3)개호에 대한 인식: 개호에 대한 불안, 개호를 받고 싶은 장소, 개호를 부탁할 상대, 배우자 개호에 대한 불안,

개호를 부탁하고 싶은 장소, (4)서비스 이용현황: 재택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 재택복지서비스의 이용빈도, 의료서비스의 이용현황, 통원정도, 통소 재택서비스 이용현황, 개호장소, (5)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을 맞을 장소, 자신에 대한 연장의료, 가족에 대한 연장의료, (6)건강관리에 대해 행정에 대해 거는 기대, 생활전반의 만족도 등이다.

고령자대책종합조사의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취업·소득 분야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식을 주제로 수입, 지출, 취업, 자산, 자산의 양도, 활용 등 고령기에 있어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 항목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60세 이상 남녀이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취업에 관한 사항: 건강상태, 현재 경제적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 수입이 있는 직업의 유무와 그 내용,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는 이유, 취업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던 연령, 향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의향,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직업이 있는지의 여부, 취업에 의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에 의한 생활비,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는 방법, 생활비 부족분의 가장 주요한 대응방법, (2)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1개월당 평균수입액, 취업에 의한 1개월당 평균수입액, 1개월당 평균공적연금액, 사적연금액, 평균재산수입액, 평균세금·사회보장부담액, (3)자산(금융·부동산)에 관한 사항: 현재의 저축액, 퇴직일시금의 액수, 저축액의 증감, 취업에 의한 수입을 얻을 수 없을 때의 저축 용도, 고령기 저축액인출에 대해, 노후준비, 노후에의 저축액, 부동산의 유무, 후계자 유무, 부동산의 평가액, 부동산취득방법, (4)자산양여·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양여에 대한 생각, 노후의 의지와 부동산양여, 재산관리를 부탁할 상대, 재산관리지원제도의 이용, 자녀로부터의 지원, 지원받는 형태와 비용, 사회보장급여와 부담 등으로 구성된다.

나. 정책조사연구

정책조사연구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1994년부터 2005년동안의 정책조사로 실시된 조사종류는 7종이며, 이 중 독거노인·노인부부세대에 관한 의식조사는 1994년과 1999년 2회 이루어졌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는 「세대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독거노인에 관한 의식조사」, 「독거노인·노인부부세대에 관한 의식조사」, 「기업퇴직경험자의 의식조사」이다. 또한 고령화문제에 대한 의식조사는 40~50대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20대~60대의 연령·가령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정책조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 연령층의 의식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세대유형 특히 노인단독가구인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이 정책적 관심임을 반영한다.

〈표 2-8〉 일본의 정책조사연구(1994년~2005년)

조 사	년도	조사대상	규모
세대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2005	65세이상	2,756명
연령·가령에 대한 사고방식 의식조사	2003	20-60대	3,941명
독거노인에 관한 의식조사	2002	독거노인	1,941명
독거노인·노인부부세대에 관한 의식조사	1999,1994	독거·부부노인	2,203명
아동·학생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1998	아동·학생	2,984명
기업퇴직경험자의 의식조사	1997	60세 이상	-
중고령층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1996	40-50대	-

「세대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실태 등에 관한 의식조사」는 현재 핵가족화의 진행 등에 의한 고령자의 단독생활·부부만의 세대가 증가하고 향

후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기존 각종 의식조사에서는 이들 세대에 착안한 실태·의식조사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역에서 생활하는 고령자 단독세대, 부부만의 세대 및 속성을 한정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생활상의 걱정 등을 비롯, 가계, 건강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관계정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1)조사대상자의 기본사항: 성별, 연령별구성, 결혼여부, 사별·이혼시연령, 동거형태, 혼자살게 된 연령, 혼자살기 이전에 같이 살던 사람, 자녀의 독립시기, 부모부양, 자녀유무, 친족유무, 자녀·손자와의 거리, 건강상태, 개호인정상황(개호보험 등급), 신체상황, 가장 오래 근무한 직업, 주거형태, 거주년수, 도시규모, (2)걱정·즐거움에 관한 사항, (3)식사에 관한 사항, (4)외출에 관한 사항, (5)교제(대인관계)에 관한 사항, (6)경제에 관한 사항, (7)건강·복지에 관한 사항: 건강유지·증진 방법, 개호에 대한 의식, (8)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독거노인에 관한 의식조사』는 현재 핵가족화의 진행 등에 의해 혼자 사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각종 의식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는 점에 착안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걱정되는 것, 걱정의 내용, 장래의 불안, 걱정거리를 상대할 사람, 외출빈도, 이웃과의 만남, 친족과의 접촉빈도, 노후에 있어 바람직한 자녀와의 교제, 일상적 일을 부탁할 상대, 향후 동거의향, 재산관리를 부탁할 상대, 통원빈도, 개호장소, 긴급시 연락처 등을 조사하였다.

『독거 노인·노인부부세대에 관한 의식조사』 또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인 단독, 노인부부 세대만을 대상으로 생활상의 걱정, 생계, 건강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와 의식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독거세대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고 둘만 사는 세대를 조사대상

으로 하였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1)생활상의 걱정거리, (2)수입원, (3) 건강관리관련 희망하는 정보, (4)개호 욕구, (5)고령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 고령사회의 이미지 (6)고령사회의 과제, (7)건강유지증진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퇴직경험자의 의식조사』는 취업자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는 고용자의 퇴직후 생활실태, 생활상의 문제점, 기대 되는 지원 대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종업원규모 1,000명 이상의 기업(32개사)의 퇴직경험자(OB회원 명부) 중에서 추출(10%)된 6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최장근속회사,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 퇴직 후 생활변화에 관한 사항, 퇴직 후 생활준비에 관한 사항, 향후 취업의향에 관한 사항, 향후 취업의향에 관한 사항, 자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이다.

20대~6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령·가령(加齡)에 대한 사고방식 의식조사』는 고령자에 대한 획일적 시각을 개선하는 국민 의식개혁, 고용에 관한 연령제한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방해하는 것, 또는 거꾸로 고령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제도 등의 필요성과 세대간의 연대강화에 관한 항목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과 급여 등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 청취법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1)고령자, 노인에 대한 정의, (2)고령자의 이미지: ‘고령자·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3)고령기의 생활에 대한 불안 여부와 요소, (4)세대교류에 관한 의향, 교류하고 싶은 내용, 교류하고 싶지 않은 이유, (5)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대우 및 연령차별 경험, (6)공적연금·의료·사회보험제도 등의 변화에 대한 의식, (7)고령자 사회대책에 관해 기대하고 있는 것 등이다.

〈표 2-9〉 일본의 정책조사연구의 주요내용

조사	조사내용	
(1) 세대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일반사항: 가구 및 동거형태, 자녀와의 관계, 걱정·즐거움에 관한사항 식사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 관련 사항 대인관계 경제 건강·복지 주택
(2) 연령·가령에 대한 사고방식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에 대한 정의 고령자 이미지 고령기에 대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교류 의향,내용 고령자 차별에 대한 인식 공적연금·보험에 대한 인식
(3) 독거노인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의 인식되는 문제점 외출, 이웃과의 접촉도 자녀 관계, 동거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관리해 줄 사람 통원빈도, 개호장소 등
(4)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상의 걱정거리 수입원 건강관리관련 희망 정보 개호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차별에 대한 인식 고령사회의 관제 건강유지증진 방법
(5) 아동·학생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모 접촉, 동거의향 고령자, 고령사회에 대한 이미지 고령자와의 교류 경험, 인식변화, 교류 희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호방식에 대한 의식 사회보장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6) 기업퇴직 경험자의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취업상태, 취업욕구 퇴직 후 생활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사항
(7) 중고령층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복지관련 사항 취업·소득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사회참여 관련 사항 생활환경 관련 사항

「아동·학생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는 고령자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적극적 사회참가활동을 확대하여 활력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젊은 세대층의 고령사회에 대한 의식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조부모와의 동거의향, 고령자의 이미지, 고령기에서 중요한 것, 고령자와의 교류경험, 고령자와의 교류경험에 의한 의식의 변화, 고령자와의 교류에 참가의식, 참가하고 싶은 고령자와의 교류내용, 고령자와의 교류 저해요인, 고령자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조건,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의식, 가족의 개호방법에 관한 의식, 고령사회에 관한 의견청취, 고령사회의 구체적 이미지, 고령기의 마음자세, 사회에서의 어린이의 수,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등이다.

『중고연령층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는 고령기에 접어드는 40~50대 중·고연령층에 대해 의식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40~59세 남녀(이하 중고연령층이라 함)와 전국의 60세 이상 남녀(이하 고령층이라 함)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기본적 사항, 건강·복지에 관한 사항, 취업·소득에 관한 사항, 학습·사회참가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 고령화문제기초조사(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5개국의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의 비교를 위해 5년주기로 실시되며, 2005년 6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1)가정생활에 관한 사항: 주요 가사종사자,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의 접촉빈도, 자녀와 손자녀와의 만남의 방식, 마음의 의지가 되고 있는 사람, 2)건강·복지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 원조 필요여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3)경제생활에 관한 사항: 노후수입원, 4)취업에 관한 사항, 5)주택·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주택의 종합만족도, 지역환경에 관한 만족도, 6)사회와의 연관, 활력에 관한 사항: 이웃과의 교제, 정보기기의 이용상황, 7)불안, 관심, 만족도: 고민과

스트레스 유무, 사는 보람, 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라. 일본 고령자 관련 조사의 함의

일본의 고령자 관련 조사는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령자 대책종합조사」, 비정기적이지만 정책적으로 필요가 요구될 때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조사」, 국제비교를 위한 「고령화문제기초조사」로 구성되어진다.

2005년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세계 최초의 초고령화 국가가 된 일본인 만큼 고령자와 관련된 조사는 종류 및 횟수면에서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자 관련 조사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인 관련 조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고령자 관련 조사는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루기 보다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령자대책종합조사는 고령자 삶의 영역을 5개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 대한 세부조사들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제별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건강과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욕구가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가 특화되고 있어 이들 영역은 우리나라 조사내용에 비해 매우 풍부하다.

우리나라는 노인관련 조사가 많지 않은 상태로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노인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노후보장패널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연구자 또는 특화된 연구기관에서 노인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기관간의 협업이 부족하여 조사내용의 조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점차 조사내용이 특화된 조사들이 증가하면서 현

재 노인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또한 타 조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특화된 영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고령자 관련 조사는 노인의 삶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통합과 연령통합을 위한 조사가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조사연구로서 「연령·가령에 대한 사고방식 의식조사」, 「아동·학생의 고령화문제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세대간 연대 등을 주제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아동·학생조사에서는 조부모와의 관계, 동거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구성됨으로써 고령사회에서 예기되고 있는 연령간 갈등의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보여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연령통합의 중요성이 제기되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노인인구의 부양이 점차 개인·가족 단위에서 사회·국가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세대간 통합, 세대간 연대감은 원활한 고령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는 우리사회에서의 세대간 연대감, 노인에 대한 이미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셋째, 일본의 고령관련 조사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조사 뿐 아니라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국제연구 등이 수행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일반화되어짐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공동대응하고자 하는 선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고령화가 늦게 시작되었을지라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제적 관점을 갖을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3절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검토

본 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정책 방향과 고령사회 대책의 근간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사회부문의 세부과제를 검토하여 조사표 내용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 노인보건복지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었으며, 정부도 고령사회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비전인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인보건복지정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강화와 보람있는 여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활발한 사회참여를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다(참여복지기획단, 2004).

정부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단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치매·중풍 노인 등의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요양시설을 확충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일상적 안전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하여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2008년부터 도입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년기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노후건강보장으로 명명되던 정책분야를 좀더 구체

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노인을 사회 인력으로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한편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인보건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통합 또는 연령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뿐만 아니라, 노인의 교육수준 등 제 특성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연계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근간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부문의 정책과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의 보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화대책의 목표는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eing) 보장을 통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주거·교통·여가·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a).

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후생활 안정의 기반으로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계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절반 정도가 자신들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득지원'이라고 할 만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다양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세부영역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특수직역연금의 제도 개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그리고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영역으로는 경로연금의 확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부문이 있다. 노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조사에서 소득종류별 소득액을 파악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에 대한 세부항목별 소득파악은 노후소득보장의 세부 방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표 2-10 참조).

사적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세부영역에는 퇴직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관련 세제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별 노후생활 경제대책에 대한 항목과 종사직업에 대한 질문 항목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표 2-10〉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부문과 실태조사항목의 비교

구분	세부영역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항목
공적연금 제도 내실화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 제도개혁 ▪ 2차 재정계산 실시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 재정계산 실시 ▪ 책임준비금 검토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 가입기간 연계 방안 확정 및 법제정안 마련 ▪ 법 제정 추진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연기연금제도 도입 ▪ 조기 연금수급 감액률 조정 ▪ 소득활동 인센티브 부여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경로연금 확대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 ★공적연금을 세분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소득인프라 확충을 통한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 자발적 보험료 납부 유도 ▪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확대 ▪ 건설업 등 일용근로자 관리강화 ▪ 4대 보험 부과기준·징수방법 일원화	-최장 종사직업 -최종 이직 시기 및 이직 이유

〈표 2-10〉 계속

구분	세부영역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항목
사적소득 보장제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퇴직연금 세제 보완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도입 ▪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제도 도입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의무화 검토 ▪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개인연금 활성화 인프라 구축 	-노후생활(경제)대책 유무 및 종류

주: ★ 추가 필요한 문항

나.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후적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필요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수준 하락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인세대를 포함한 전국민이 손쉽게 건강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에는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동하기 좋은 환경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의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부문과 실태조사항목의 비교

구분	세부영역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항목
노후건강 관리기반 조성	-사전에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건강생활양식 -체중, 신장 -시력, 청력, 씹기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식품 섭취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질병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부 -만성질환상태 및 치료 여부, 장소, 의료비 부담상태 -낙상 경험 여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 노인건강대학 운영 ▪ 방문 운동프로그램 실시 ▪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	-규칙적 운동 실시 여부 및 빈도, 운동 종류 ★규칙적 운동 장소
노인요양 보호기반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노인수발보험 법령 제정 추진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개발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조치 ▪ 시범사업 실시	-기본적/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유무 -인지기능, 문제행동, 마비 및 구축 상태 -수발 노인을 위한 정부 우선 순위 정책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인프라 종합 투자계획」 수립·시행 ▪ 질 높은 서비스인력 인프라 구축	-건강 악화시 거주형태 -수발 여부, 주수발자 관련 실태

<표 2-11> 계속

구분	세부영역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항목
노인요양 보호기반 확충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강화 ▪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 치매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비전 수립 ▪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전환지원	★우울증 측정 ★장기요양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노인인지능력(치매평가) 검사
	- 요양산업 활성화 ▪ 민간부문 참여확대 유도 ▪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관의 질 관리 ▪ 재가서비스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연구	- 노인복지시설 인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지 여부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 수요자 중심 운동공간 확충 ▪ 선진형 스포츠클럽 전환 및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 규칙적 운동 실시 여부 및 빈도, 운동 종류
	-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직장운동사업 활성화 지원 ▪ 체육(운동)전문인력 체계적 관리 및 운동처방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 제공	★가장 원하는 체육프로그램 종류

주: ★ 추가 필요한 문항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의 소범위 영역은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인요양보호 기반확충,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및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 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생활양식 관련 문항, 주관적 건강상태 및 만성질병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규칙적인 운동에 관한 세부문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표 2-11 참조).

한편 노인요양보호 기반확충영역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기존 조사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유무, 인지기능, 문제행동, 마비 및 구축상태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노인수발실태를 파악하였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인지 및 태도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인지능력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다.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이 보호와 안전 속에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여가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급증하는 만큼 타인의 조력 없이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유쾌하고 신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여가생활을 보장한다. 이에는 수요자중심의 고령자 문화·여가정책을 개발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계발과 사회봉사의 기

회를 갖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조성영역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기존조사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내용, 노후생활 계획, 사회단체참여,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정보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2 참조).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관련 영역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이용 및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사도우미 지원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영역에 대한 기초자료로는 노인 이미지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자녀·친인척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영역의 정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 주택의 개조 필요성이나 종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외출시 대중교통이용 또는 자가운전 시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항목의 추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부문과 실태조사항목의 비교

구분	세부영역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항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 설정 ▪ 고령친화적 주택설계 지침 마련 ▪ 주택개조기준 매뉴얼 제작·보급 ▪ 중장기 주거지원 계획 수립 ▪ 주거지원법령(가침) 제정 ▪ 주택개조비용 지원계획 수립	-노인가구형태 -집구조 편리성 -개인거실 유무 -부엌, 화장실, 목욕실 형태 ★주택개조의 필요성 및 개조 종류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향후 고령자 주택 유형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 이동편의시설 매뉴얼 제작·보급 ▪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인 교통 요금할인 인지 여부 및 이용경험 -외출시 교통수단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내실화 ▪ 실버마크제도 도입 및 캠페인 전개·홍보 ▪ 노인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	★자가 운전 여부 및 운전시 가장 불편한 점

<표 2-12> 계속

구분	세부영역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항목
활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조성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현재 직업 유무 및 경제 상태 - 구직 활동 여부 및 방법 - 원하는 일의 형태, 선택시 우선순위
	-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주도적 참여여건 조성 ▪ 문화예술활동의 소비자에서 생비자로서의 노인역할 제고 ▪ 노인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	- 노후생활 계획(활동 내용) - 사회단체 가입 여부 및 참여 빈도 - 평생교육 - 자원봉사활동 - 컴퓨터 이용 및 향후 정보화 교육 ★ 젊은 세대와의 교류 활동
	-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 복지정책 추진 ▪ 고령취업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지속 추진 ▪ 노인 보건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노인복지 단지 조성 여건 마련 ▪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 찾아가는 이동보건복지센터 운영	- 노인여가서비스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인지 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사도무미 지원
	-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 노인학대 예방 등 및 노인권익 증진 강화방안 마련 ▪ 교과개정 개발 등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 확대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대방안 확대	- 노인 이미지, 노인 인지 연령 - 자녀와의 관계 유지 - 자녀, 친척, 친구와의 접촉빈도 - 재산 상속 여부 및 시기 ★ 노인학대 실태 및 관련기관 인지

주: ★ 추가 필요한 문항

제3장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기본방향

선행연구 검토에 기초하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욕구의 포괄적 파악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노인의 다양한 특성과 생활양식(life style)의 파악을 통해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핵심적 요소로서, 노인 생활의 단편적 측면이 아닌 다각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형성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은 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인용할 수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적인 모델 중 대표적인 Hughes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삶의 질의 속성을 개인의 자율성, 만족감, 신체적·정신적 안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환경의 질, 일상생활, 사회적 통합정도, 문화적 속성의 8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2). 즉, 삶의 질이란 단편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건강과 경제 등의 객관적 상태 뿐 아니라 자율성과 만족감을 포괄하는 주관적 측면, 또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적인 측면이 함께 반영된 개념인 것이다.

또한 Drewnowski(1970)은 '삶의 질'은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확보된다고 볼 때(정경희 외, 2002 재인용) 삶은 다양한 욕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마슬로의 위계적 욕구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5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Lowy(1979)는 인간의 욕구를 일차적 욕구와 이차적 욕구로 분류한 뒤 일차적 욕구로는 생물학적 및 생리적 욕구,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적 욕구로 구분하고, 이차적 욕구는 사회적 욕구, 활동욕구, 여가욕구, 문화욕구, 정치욕구, 영적(종교적)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는 다양한 삶의 활동을 통해 충족되어질 것이다. 정경희 외(2002)에서 개발되어진 「노인복지지표」는 마슬로의 욕구론에 기반하여 노인의 삶의 다측면을 포괄하는 지표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활별 상태와 욕구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영역은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경제상태 및 활동,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 사회참여, 여가문화활동, 생활환경 등의 노인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하며, 각 영역별 생활 모습과 욕구를 파악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제2절 학술연구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척도의 적극적 활용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정책개발을 위한 실천적 목적 외에도 노년학, 노인간호학, 노인사회학, 노인복지학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목적을 갖고 있다. 노년학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

관련 학술연구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조사 자료의 가치를 높이며 또한 노인과 고령화 관련 연구의 깊이를 더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 주제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다양한 척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노인연구 분야에서 척도를 활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주제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노인기능상태, 노인정신건강을 파악하기 위한 우울증 또는 심리적 안녕상태 등이 보건, 복지, 의료, 심리 등의 노인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관련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로 많이 활용되는 노인의 신체기능상태 중심의 노인기능상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우울증과 치매 판정을 위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동일개념에 대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어있을 경우, 가능한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되어진 한국형을 활용하되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상황에 맞는 척도를 선정하고자 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분야에서 연구주제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참여, 종교활동, 가족관계 등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밝히거나 영향요인을 찾는 것, 특정 프로그램(예, 건강체육 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이나 활동이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등과 같이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는 노인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척도를 살펴보면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둘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삶의 질과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정경희 외, 2002). 이에

반해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요소 등이 반영된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란 삶의 질의 부분 요소로 파악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일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만족도를 통해 파악하여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생활만족도 척도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척도는 LSI(Life Satisfaction Index),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Campbell의 안녕감 지표(Index of Well-being)이다. 노인에 특화된 척도로는 노인들의 삶의 종합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Salamon & Conte(1984)의 노인생활만족도 척도(LSES: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Scale)이며, LSI-Z는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며, GQOL(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로 노인 삶의 질 척도, 한국형으로는 최성재(1986)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가 있다. 1994년도 실시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LSI-A의 항목중 일부를 택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관련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노인 삶의 만족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척도는 LSI-Z(Life Satisfaction Index)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기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노인에게 기능상태는 사회활동의 내용과 영역을 결정하는 기반이며, 보호의 필요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노인 연구에서 노인의 기능상태는 노인 장기요양관련 연구, 노인의 사회활동, 가족관계 등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많이 활용되는 변수이다. 노인의 기능상태 측정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척도는 일상생활기능상태(ADL)과 수단적일상생활기능상태(IADL)이다. 노인의 기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ADL과 IADL 척도는 2008년도 부터 실시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능판정도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K-ADL, K-IADL과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셋째, 기능상태와 함께 노인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노인에게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치

매와 우울로 나타나며, 따라서 조사에서도 노인의 치매와 우울을 판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치매로 대표되는 인지기능장애를 파악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척도는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로 나타나며, 노인 우울 판정을 위한 척도로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척도이다.

이상에서 검토된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내용과 조사에서 사용할 척도의 선택은 추후 구체적인 조사내용의 설계과정에서 타 조사내용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제3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 규모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노인인구는 약 480만명이며,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는 2018년에는 약70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렇듯 정책대상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조사-정책수립-평가'의 순환 체계가 확립되는데 출발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노인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본 조사의 기본기능으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조사내용은 기

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구하고 있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은 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사회는 생존의 욕구 충족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정책 영역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며, 사회정책의 기본 기초가 사회적 위기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국가중심으로 제공하던 최저선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민간,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동책임에 기초하여 적정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적정선으로의 정책의 수준 향상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욕구 충족 정도와 미충족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미래의 노인의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노인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은 언젠가는 모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노인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노인층과 미래의 노인층은 상이한 특성을 가질 것이므로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래의 노인들의 경우, 삶의 기회와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교육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경제적인 노후준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양식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 자신의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훈 외, 2006). 따라서 체계적으로 노인의 특성변화와 욕구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구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가구조사를 통하여 파악되는 다양한 연령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세대간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방안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제4절 고령화 적응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 확보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제특성의 변화와 더불어 낮은 수준의 출산력,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공적 서비스 욕구의 증대 등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정경희, 2002). 이혼의 증대와 낮은 수준의 출산력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가용성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가족부양의지의 저하와 덧붙여 가족만으로는 노화와 함께 발생할 다양한 부양에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한경혜, 1998). 예를 들어 가족들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하지만, 신체적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제적인 부양을 제공하기 보다는 공적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여 사회적 보호서비스에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급감 및 서비스 산업의 증가라고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수급자 비율의 증대라고 하는 거시적 변화의 와중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는 단지 신체적인 노화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배제시키는 연령차별적 노동시장의 관행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립은 점점 구매력 있는 노인의 증가를 가져와 '생산'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서의 위상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러한 발전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요구된다(조남훈 외, 2006). 그런데 우리사회의 경우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측정하는 제도적, 문화적, 공간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의 연령분리성이 높은 상태이다(정경희, 2007).

연령분리성을 약화시켜 연령통합적 사회로 원만히 변화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조사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과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국제적 흐름의 반영

고령화에 대한 UN의 입장과 원칙은 각 국가의 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 동향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노년학회는 “국제적 정책 흐름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21세기 고령화 연구 과제 개발”이라는 목표 하에 UN과 공동으로 마드리드 선언문의 취지와 방향을 반영한 21세기 고령화 연구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건강/적극적 노화, ②생

물학적 결정요인, ③육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④케어 시스템, ⑤가족·친족 및 지역사회, ⑥경제적 안정성, ⑦삶의 질, ⑧사회참여 및 통합, ⑨거시사회적 변화 및 발전, ⑩정책입안과정 및 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해 세부적으로 6개의 우선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상호 관계의 중요성이 지금까지 간과되었으며 국가 정책개발의 맥락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사회, 문화, 정신 및 경제적 자본에 대한 노인의 기여가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노인들의 생산적 기여가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 및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후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정책 옵션 및 대안에 대한 탐구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의 경우 필요한데,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 소득보장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소득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가족구조, 세대간 이전 시스템 및 가족 및 제도적 동학의 변화 패턴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부응하는 연구과제이다.

넷째, 건강한 노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건강의 이슈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다. 건강상태 및 기능의 유지는 노인 개인을 비롯해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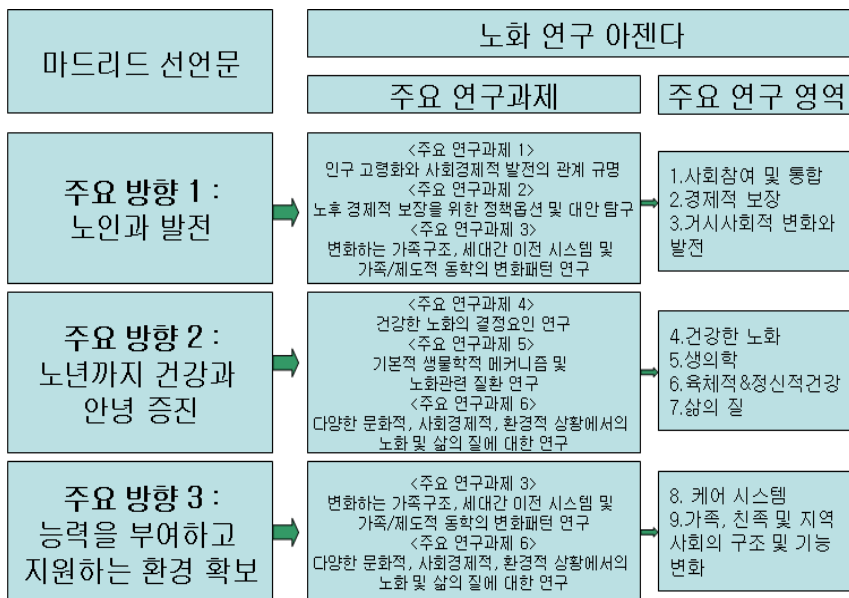
다섯째, 기본적인 생물학적 메카니즘 및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이다. 노화과정의 생물학적, 유전적, 분자적, 세포적 측면에 대한 최근의 연

구동향을 통해 이미 이러한 연구가 노화 메카니즘과 노화관련 질환의 복잡한 관계를 해명하는데 놀라운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향후 이러한 측면의 연구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삶의 질 및 다양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상황에 처한 개인들의 노화에 대한 연구이다. 무엇이 노후의 '복지' 혹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는 사회, 문화, 경제 및 전통적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노인 연구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변인들과 생애경험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셋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 우선적인 연구과제와 마드리드 선언문의 연관성,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영역은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3-1] 마드리드 선언문과 국제노년학회의 노화 연구 아젠다



UN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마드리드 선언문)과 국제노년학회의 노인 연구 주요 아젠다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함의는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극적인 경제적 보장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참여하는 주체로서 노인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점이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생물학적·의학적 변인들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적극적 규정 및 의미부여를 하는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체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조사 문항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6절 지역통계 산출이 가능한 표본설계 및 조사규모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를 특징짓는 것은 지역별 고령화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며 지역별 노인의 특성 또한 상이하다는 점이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율은 9.3%이지만,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전라남도의 경우 그 비율이 17.7%에 이르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아직 5.3%에 불과하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고령 노인의 비율도 높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높은 등 복지수요는 높으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여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6). 이러한 현실은 그러한 지역의 거주노인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와 거주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자원의 활용 등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불어 2005년도에 13개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되었고,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정책개발에서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시도별로 통계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표본 규모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조사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조사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과 노후에 대한 주민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고 조사내용 또한 전국조사(2004년 기준)와 대부분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3-1〉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시도명	총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노년부양비
전국 계	47,041,434	4,365,218	9.3	13.0
서울특별시	9,762,546	710,844	7.3	9.6
부산광역시	3,512,547	303,936	8.7	11.6
대구광역시	2,456,016	196,522	8.0	11.0
인천광역시	2,517,680	178,728	7.1	9.8
광주광역시	1,413,644	101,180	7.2	10.0
대전광역시	1,438,551	100,905	7.0	9.6
울산광역시	1,044,9334	231,322	5.3	7.4
경기도	10,341,006	752,603	7.3	10.2
강원도	1,460,770	187,994	12.9	18.7
충청북도	1,453,872	175,580	12.1	17.6
충청남도	1,879,417	267,799	14.2	21.2
전라북도	1,778,879	252,885	14.2	21.3
전라남도	1,815,174	320,750	17.7	27.8
경상북도	2,594,719	374,420	14.4	21.3
경상남도	3,040,993	329,820	10.8	15.7
제주도	530,686	55,403	10.4	15.4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2006

제4장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개선방안 및 패널화 방안

본 장은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표본설계에 있어 논의 되어야 할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조사의 특성에 상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지역별 통계산출이 가능한 표본설계 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표본설계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둘째, 국외조사 검토에서도 출된 것처럼 노인에 관한 패널조사의 중요성이 높으며, 현재 노인에 관한 포괄적인 패널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패널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1절 표본설계 개선방안

1. 표본설계 고려사항

현행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당시 조사 구당 추출확률에 따른 지역별(16개 시도별)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지역별 조사구 코드가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조사구 집락효과(cluster effect)를 분산추정 과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2004년 표본이 단순확률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추출된 것으로 가정하면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작

성된 통계의 정도(precision)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우선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조사문항을 살펴 보면 대부분은 현재 상태나 태도 또는 의향 등과 관련해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다시 말해 모비율을 추정하는 조사항목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크기를 n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모비율(P)에 대한 추정량인 표본비율의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또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RSE(p) = \sqrt{[1 + (b-1)\rho](1-P)/nP}$$

여기서 b 는 1차 추출단위(psu)당 평균 표본크기, ρ 는 1차추출단위(조사구)내에서 관심변수에 대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p 는 모집단 비율, n 은 표본크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노인실태 조사의 추정에서 지역별 표본크기가 $n = 2000$ 이고, 집락(조사구)당 평균 노인 가구 수 $b = 15$, 급내상관계수 $\rho = 0.04$ 라고 가정한 경우, 표준오차는 $P = 0.5$ 일 때 최대가 되면 이 경우 $RSE(p) = 0.012$ 이다. 다시 말해, 이런 경우 모비율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개략적으로 1.2%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집락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단순확률추출 가정) 지역별 표본크기 $n = 2000$ 이 되는 관심영역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P = 0.2$ 인 경우 4.7%, $P = 0.5$ 인 경우 2.2%수준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n = 2000$ 인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치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P = 0.2$ 일 때 0.018%p, $P = 0.5$ 일 때 0.022%p 정도이다.

따라서 2008년에 실시될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의 경우 심층조사 대상 노인을 약 7,000명 수준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⁶⁾ 대부분의 관심영역에서 모비율 추정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실태 조사에서 특정변수의 경우 추정량의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당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가구수와 노인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에 대한 추정오차를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노인가구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	CV(%)
노인가구수	2,695	0	3	1.20	0.010	0.86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	2,695	22	3,996	1,687.23	14.515	0.86

여기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전체 표본 9,282가구 중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는 2,695가구이고, 가구당 평균 1.2명의 노인이 있으며, 표준오차(standard error) 0.010이고, 상대표준오차(CV)는 0.86%로 분석되었다. 노인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경상소득은 1687.23만원이고, 표준오차는 14.515만원이며, 상대표준오차는 0.86%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단위의 경우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광역단위별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노인인구수와 월평균 경상소득에 대한 광역단위별 추정결과에 대한 표본오차를 정리해 보면

6)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도의 조사가 가능한 최대규모는 2만가구이며 그럴 경우 조사대상 노인의 규모는 약 7,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은 이러한 조사규모를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표 4-2>와 같다.

여기서 관측수는 3개 지역단위별 노인이 있는 가구가 해당 변수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변수별로 무응답 발생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별로 관측 수에 일부 차이가 있다. 두 변수에 대한 광역단위별 통계의 정도를 살펴보면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월평균경상소득에 대한 상대표준오차(CV)가 2%미만으로 나타나 상당히 정도 높은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광역단위별 노인가구에 대한 기술통계량

지역	관측수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오차	CV(%)
7대도시	857	월평균 경상소득	54	3,996	1,751.38	26.878	1.54
		노인가구	0	3	1.18	0.018	1.56
기타 시의 동	703	월평균 경상소득	22	3,994	1779.44	27.673	1.56
		노인가구	0	3	1.16	0.021	1.80
읍면지역	1,135	월평균 경상소득	27	3,497	1522.33	20.696	1.36
		노인가구	0	3	1.27	0.015	1.19

물론 여기서는 조사구 추출에 따른 집락효과(cluster effect)가 무시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상대표준오차는 제시된 결과에 비해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집락효과는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작게 할수록 작아지며,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집락효과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으로 추정치의 CV가 커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기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비해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줄임으로서 보다 정도가 높은 통계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집락 당 표본가구수의 결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증가시킬 경우 집락효과에 의해 추정치의 상대표준오차는 증가하게 됨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표 표본가구수를 2만가구로 산정하여 표본 조사구를 배분할 때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얼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표본의 집락 효과는 부분적으로 설계효과(design effect: *deff*)에 의해 측정된다. 가구단위 조사의 경우 조사구가 집락이 된다. 그러나 *deff*는 또한 층화 효과를 반영한다. 대부분의 표본설계에서는 비용을 최소로 하며, 정도를 최대로 하는 표본설계를 하고자 한다. 정도를 최대화 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설계효과를 최소로 하거나 아니면, 이를 통제해야 한다. 이 값을 어떻게 최소화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deff*의 집락부분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ff \approx 1 + \rho(\tilde{n} - 1)$$

여기서 ρ 는 집락내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만일 이 값이 크면 집락 안에서 단위들 간의 동질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tilde{n} 은 집락에서 목표모집단의 단위들의 수를 나타낸다.

설계효과는 급내상관계수(ρ)와 집락의 크기(\tilde{n})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설계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첫째 조사에서 사용한 실제 표본설계의 표본분산이 동일한 표본크기의 단순임의추출설계의 표본분산보다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인자로 사용된다. 둘째로는 실제 표본설계가 정도(precision) 면에서 단순임의추출설계보다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셋째로는 동일한 표본분산을 얻기 위해 단순임의 추출에 비해 얼마나 많은 표본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deff=2.0$ 은 단순임의 표본과 동일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2배의 표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deff$ 값이 2.5~3.0이면, 표본설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석된다.

설계효과는 통상적으로 표본조사가 완료된 후에 구할 수 있는 값이다. 표본으로부터 분산을 추정하고, 동일한 크기의 표본으로부터 단순임의 분산을 구한 후 이들의 비를 구하여 설계효과를 구하게 된다.

<표 4-3> 급내상관계수와 표본 크기에 따른 설계효과($deff$)비교

\tilde{n}	ICC(ρ)						
	0.02	0.05	0.10	0.15	0.20	0.35	0.5
5	1.08	1.20	1.40	1.60	1.80	2.40	3.00
10	1.18	1.45	1.90	2.35	2.80	4.15	5.50
20	1.38	1.95	2.90	3.85	4.80	6.65	10.50
30	1.58	2.45	3.90	5.35	6.80	11.15	15.50
50	1.98	3.45	5.90	8.35	10.80	18.15	25.50
75	2.48	4.70	8.40	12.10	15.80	26.19	38.00

집락표본추출에서 최소한의 비용 하에서 집락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설계효과($deff$)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표본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락의 크기가 20일 경우 급내상관계수가 작지 않으면 표본설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계효과를 가지게 된다. <표 4-3>으로부터 \tilde{n} 은 일반적으로 집락내 목표모집단에 있는 단위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최종 표본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가구원수를 나타낼 경우 \tilde{n} 에 집락당 평균 가구원수를 곱해야 하며, 만일 가구 수를 나타낼 경우에

는 \tilde{n} 이 최종 표본수가 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모집단을 전체 인구라고 가정하고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노인질환자의 비율을 추정하고자 할 때, 조사에서는 10가구 단위의 집락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다고 가정하면 \tilde{n} 은 집락당 평균 가구수에 10을 곱한 값이 된다. 만일 집락당 평균 가구수가 5라면 \tilde{n} 은 50이 되며, 이때 설계효과를 찾으려면 된다. 이 경우 $\rho = 0.02$ 일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우 큰 설계효과 값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설계효과를 1에 가깝게 하려면 통상적으로 인구센서스 조사구의 경우 60가구 단위의 집락을 이용함으로써 조사구당 표본가구를 매우 작게 하거나 급내상관계수가 0이 되도록 집락내 표본가구를 매우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인 이론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집락효과는 인정하면서 조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자료의 60가구 단위 조사구를 이용하고,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약 30~40가구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시도단위 통계산출을 위한 표본설계시 고려사항

가. 지역별 표본조사구수의 배분

일반적으로 시·도(6대 특광역시 및 도지역)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경우에는 먼저 조사구수가 일정규모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조사구 규모가 적은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조사구 비례에 의한 표본 조사구를 배정할 경우 10개 미만의 조사구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해당지역의 통계를 산출하는데 매우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즉, 표본조사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추정치에 대한 상대 오차가 커져 추정치가 매우 불안정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의 경우 10개 미만의 조사구가 할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0개 이상의 조사구를 강제로 배분한 후 승수 산출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구를 지역별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표본가구가 약 2만 가구 정도이므로 충분히 지역별로 안정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표본조사구 또는 표본가구를 할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지역별 표본조사구 또는 표본가구의 규모일 것이다.

한편 적정표본수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모비율 P 를 노인 인구비율이라고 하고, 허용오차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서 예상표본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전국단위와 16개 특·광역시와 도단위까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실태에 관한 시·도 단위의 통계를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를 2.8% 정도로 할 경우에는 $P=0.5$ 로 하고 표본크기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16개 특·광역시/도별 평균적인 표본크기는 가구이다.

$$n = \frac{1}{0.028^2} = 1,250$$

전국 표본크기: 20,000가구(=16개 특·광역시/도 × 1,250 가구)

목표 표본수가 2만 가구이므로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30가구로 산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667개 표본 조사구가 필요하며, 40가구로 산정할 경우 500개의 표본조사구를 산정할 수 있다.

〈표 4-4〉 모집단 동·읍·면부별 조사구 규모(90%)

구 분	전체			동부			읍·면부별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 국	237,682	141,954	95,728	191,286	107,066	84,220	46,396	34,888	11,508
서 울	49,440	32,243	17,197	49,440	32,243	17,197	-	-	-
부 산	18,165	10,817	7,348	17,759	10,557	7,202	406	260	146
대 구	12,128	7,070	5,058	11,413	6,723	4,690	715	347	368
인 천	12,713	7,076	5,637	12,449	6,839	5,610	264	237	27
광 주	6,793	2,982	3,811	6,793	2,982	3,811	-	-	-
대 전	7,268	3,812	3,456	7,268	3,812	3,456	-	-	-
울 산	5,053	2,698	2,355	4,248	2,281	1,967	805	417	388
경 기	49,803	26,311	23,492	40,786	20,519	20,267	9,017	5,792	3,225
강 원	7,871	4,852	3,019	4,790	2,405	2,385	3,081	2,447	634
충 북	7,499	4,457	3,042	4,550	2,182	2,368	2,949	2,275	674
충 남	9,869	6,504	3,365	3,498	1,629	1,869	6,371	4,875	1,496
전 북	9,275	5,545	3,730	6,204	2,751	3,453	3,071	2,794	277
전 남	9,243	6,301	2,942	4,001	1,818	2,183	5,242	4,483	759
경 북	14,025	9,529	4,496	6,980	3,846	3,134	7,045	5,683	1,362
경 남	15,857	9,561	6,296	9,179	5,028	4,151	6,678	4,533	2,145
제 주	2,680	2,196	484	1,928	1,451	477	752	745	7

지역별 표본 조사구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의 조사구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인구센서스자료의 90% 조사구 분포(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조사구제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집단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중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사구 수 비율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광역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약 26%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지역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역시 중 광주, 대전, 울산 지역과 도지역의 강원 도와 충청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구 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동·읍·면부별 가구수 분포(90%)

구 분	전체			동부			읍·면부별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 국	14,260,103	8,378,179	5,881,924	11,567,849	6,360,644	5,207,205	2,692,254	2,017,535	674,719
서 울	3,005,559	1,937,041	1,068,518	3,005,559	1,937,041	1,068,518	-	-	-
부 산	1,074,589	623,668	450,921	1,052,411	610,218	442,193	22,178	13,450	8,728
대 구	738,953	422,825	316,128	696,314	403,510	292,804	42,639	19,315	23,324
인 천	737,976	399,023	338,953	722,054	384,745	337,309	15,922	14,278	1,644
광 주	416,208	180,490	235,718	416,208	180,490	235,718	-	-	-
대 전	434,710	224,936	209,774	434,710	224,936	209,774	-	-	-
울 산	308,537	162,328	146,209	260,251	138,114	122,137	48,286	24,214	24,072
경 기	3,021,932	1,547,053	1,474,879	2,505,031	1,225,549	1,279,482	516,901	321,504	195,397
강 원	462,601	286,812	175,789	285,326	143,046	142,280	177,275	143,766	33,509
충 북	450,291	267,315	182,976	279,771	134,390	145,381	170,520	132,925	37,595
충 남	588,216	385,980	202,236	216,568	100,425	116,143	371,648	285,555	86,093
전 북	544,563	317,258	227,305	369,987	158,310	211,677	174,576	158,948	15,628
전 남	544,741	367,739	177,002	234,729	101,893	132,836	310,012	265,846	44,166
경 북	830,597	558,120	272,477	419,252	226,562	192,690	411,345	331,558	79,787
경 남	940,076	565,284	374,792	553,025	302,719	250,306	387,051	262,565	124,486
제 주	160,554	132,307	28,247	116,653	88,696	27,957	43,901	43,611	290

주: 지역별 총 조사구에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조사구는 제외함.

지역별 가구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구 분포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가구수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가구 비중은 약 26%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지역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분포를 동부와 읍·면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부는 82% 읍·면부별은 18%를 차지하고 있고, 동부에 비해 읍·면부별의 가구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 전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의 읍·면부별의 노인인구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동·읍·면부별 표본조사구 배분결과

구 분	전체			동부			읍·면부별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 국	502 ¹⁾	300	202	325	201	124	177	99	78
서 울	104	68	36	104	68	36	-	-	-
부 산	38	23	15	20	14	6	18	9	9
대 구	26	15	11	14	9	5	12	6	6
인 천	27	15	12	13	8	5	14	7	7
광 주	14	6	8	14	6	8	-	-	-
대 전	15	8	7	15	8	7	-	-	-
울 산	11	6	5	11	6	5	-	-	-
경 기	105	55	50	53	28	25	52	27	25
강 원	17	10	7	8	5	3	9	5	4
충 북	16	10	6	8	5	3	8	5	3
충 남	21	14	7	11	7	4	10	7	3
전 북	20	12	8	9	5	4	11	7	4
전 남	19	13	6	9	6	3	10	7	3
경 북	30	20	10	15	11	4	15	9	6
경 남	33	20	13	17	11	6	16	9	7
제 주	6	5	1	4	4	0	2	1	1

주: 1) 표본 조사구 배분과정에서 소수점 처리에 의해 2개 조사구가 늘어남.

따라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위해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과대 표집하기 위해서는 충남, 전남 지역의 읍·면부별에서 표본가구의 비율을 높게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조사구수에 비례하여 500개 조사구를 지역에 따라 배분한 결과 경기지역이 105개 조사구로 가장 많이 배분되었고,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104개 조사구가 배분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통계산출에는 별 문제가 없을 듯 하지만,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게 배분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지

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분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6개 조사구가 표본으로 배분되었는데, 이는 제주지역에 대한 추정치 산출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구당 40가구를 조사한다고 상정할 경우 최소한 500개 가구정도가 표본으로 배분되는 것이 안정적인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P=0.5$ 라 할때 허용오차를 5%이하로 하고자 할 경우 95% 신뢰 수준하에서 약 500개 표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표 4-7〉 지역별 조사구 유형별 동·읍·면부별 표본가구 배분결과
(조사구당 40가구)

구 분	전체			동부			읍·면부별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 국	20,080 ¹⁾	12,000	8,080	13,000	8,040	4,960	7,080	3,960	3,120
서 울	4,160	2,720	1,440	4,160	2,720	1,440	-	-	-
부 산	1,520	920	600	800	560	240	720	360	360
대 구	1,040	600	440	560	360	200	480	240	240
인 천	1,080	600	480	520	320	200	560	280	280
광 주	560	240	320	560	240	320	-	-	-
대 전	600	320	280	600	320	280	-	-	-
울 산	440	240	200	440	240	200	-	-	-
경 기	4,200	2,200	2,000	2,120	1,120	1,000	2,080	1,080	1,000
강 원	680	400	280	320	200	120	360	200	160
충 북	640	400	240	320	200	120	320	200	120
충 남	840	560	280	440	280	160	400	280	120
전 북	800	480	320	360	200	160	440	280	160
전 남	760	520	240	360	240	120	400	280	120
경 북	1,200	800	400	600	440	160	600	360	240
경 남	1,320	800	520	680	440	240	640	360	280
제 주	240	200	40	160	160	0	80	40	40

주: 1) 표본 조사구 배분과정에서 소수점 처리에 의해 2개 조사구가 늘어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추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500개 조사구 2만 가구는 충분한 표본 규모로 볼 수 있지만,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표본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7>에서 알 수 있듯이 500가구 이하로 배분되는 지역이 울산과 제주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표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만일 허용오차를 약 3.0% 이하로 낮추고자 할 때는 지역별로 1,200가구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게 되며, 이렇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규모의 표본가구를 강제로 배분한 후 지역별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시 고려사항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가구조사 보다 표본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개인조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정수준이상의 노인이 표본으로 확보되지 않게 되면 노인실태에 대한 시도별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응답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로부터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이에 비례하도록 표본수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배분결과와 노인인구 비에 따른 표본배분결과를 비교해보면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지역에서는 노인인구비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상대적으로 표본규모가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배분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 과대표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노인인구비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 경우에도 일정 규모이하로 표본이 배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 할당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8〉 인구비율과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비교

구 분	인구배례에 의한 표본배분		노인 인구비에 의한 표본배분		
	조사구	표본가구	노인 인구비	조사구	표본가구
전 국	502	20,080	1.000	501	20,000
서 울	104	4,160	0.163	81	3,257
부 산	38	1,520	0.069	35	1,393
대 구	26	1,040	0.045	23	900
인 천	27	1,080	0.041	20	819
광 주	14	560	0.023	12	464
대 전	15	600	0.023	12	462
울 산	11	440	0.013	6	256
경 기	105	4,200	0.172	86	3,448
강 원	17	680	0.043	22	861
충 북	16	640	0.040	20	804
충 남	21	840	0.061	31	1,227
전 북	20	800	0.058	29	1,159
전 남	19	760	0.073	37	1,470
경 북	30	1,200	0.086	43	1,715
경 남	33	1,320	0.076	38	1,511
제 주	6	240	0.013	6	254

주: 표본 조사구 배분과정에서 소수점 처리에 의해 조사구수와 표본가구수가 약간 차이가 있음.

즉, 지역별로 최소 표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20개 조사구를 우선 할당할 후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 조사구와 표본가구를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일정규모 표본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출현 비율이 적은 표본을 조사할 경우에 우선할당에 의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표본수를 배분한 후 나머지 표본을 지역별 모집단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표 4-9〉 우선 배정 후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구 분	우선배정		비례배분		계		
	조사구	표본가구	조사구	표본가구	조사구	표본가구	목표허용 오차 (%)
전 국	192	7,680	308	12,320	500	20,000	0.71
서 울	12	480	50	2,000	62	2,480	2.00
부 산	12	480	21	840	33	1,320	2.75
대 구	12	480	14	560	26	1,040	3.10
인 천	12	480	13	520	25	1,000	3.16
광 주	12	480	7	280	19	760	3.63
대 전	12	480	7	280	19	760	3.63
울 산	12	480	4	160	16	640	3.95
경 기	12	480	53	2,120	65	2,600	1.96
강 원	12	480	13	520	25	1,000	3.16
충 북	12	480	12	480	24	960	3.23
충 남	12	480	20	800	32	1,280	2.79
전 북	12	480	18	720	30	1,200	2.89
전 남	12	480	23	920	35	1,400	2.67
경 북	12	480	26	1,040	38	1,520	2.57
경 남	12	480	23	920	35	1,400	2.67
제 주	12	480	4	160	16	640	3.95

<표 4-9>로부터 지역별로 최소 표본가구수를 640가구로 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별 허용오차는 95%신뢰수준 하에서 최대 4%이내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강제배분에 의해 추출률이 상향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추정과정에서 승수작업을 통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노인조사의 특성상 일반조사와는 달리 노인 개인의 특정한 환경에 따른 조사항목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집단 분석을 통해 특정조건에 따른 노인인수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분화된 모집단 자료를 얻기가 어렵고, 표본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조사항목에 따른 층화를 고려하게 되면, 그만큼 표본 수의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건별 대분류 정도까지 층화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특히 취업노인의 비율이나, 수발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등에 대한 통계의 산출은 모집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고려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통계산출과정에서 외부 자료를 통해 승수보정을 통한 가중치 조정 작업인 보정(calibration) 또는 래킹(raking)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 광역단위 통계산출을 위한 표본설계시 고려사항

지역별 통계산출이 예산이나 표본 수의 부족으로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통계산출의 단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이다. 즉, 지역별로 실현표본수가 작을 경우 추정치가 불안정하거나 대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광역단위로 지역을 병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경기/인천/강원),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 호남권(전북/전남/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 등으로 광역단위로 통계를 산출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

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표 4-10>으로부터 광역단위별로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배분한 결과 단위별 목표허용오차를 2%이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도 높은 통계 생산이 가능하다.

<표 4-10> 광역단위별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구 분	조사구	가구	목표허용오차(%)
전 국	500	20,000	0.71
서 울	81	3,240	1.75
수도권	128	5,120	1.39
영 남	144	5,760	1.32
호 남	85	3,400	1.72
총 청	62	2,480	2.00

이와 같이 지역을 병합하여 통계를 산출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 통계 생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정도 높은 통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설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정해진 목표 표본수 보다 작게 추출해도 높은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패널화 방안

1. 2008년 조사표본의 일부 패널화 가능성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 횡단면 조사(cross-sectional survey)를 통해서 노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노인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조사와 같은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필요에 의한 패널화는 예산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패널조사로의 변경에 따른 다양한 변동성을 고려하고, 반드시 패널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각종 조사를 패널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패널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패널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매 3년간 주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가 수행되는 해에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횡단면적인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해에는 횡단면 표본으로부터 일정규모의 패널가구를 부차표집(subsampling)하여 이들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를 지속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조사를 위한 설계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패널 구축의 장점은 첫째, 서로 다른 시점에서 모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둘째, 시점 간 평균 변동율과 같은 모수를 추정할 수 있고,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 변동(net change)을 평가할 수 있으며, 넷째, 시점 간 자료를 취합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며, 다섯째, 출현빈도가 낮은 개

체들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의 증가에 따른 통계적 분석의 안정화가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패널표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널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 표본설계에 따라 패널구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표본단위들이 응답부담과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이유로 패널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널의 구축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는 만큼 모집단 또는 부차모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가구의 형태,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의 인구학적인 정보 등이 패널구축의 필수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엄밀성을 갖춘 패널표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차표본추출을 통한 패널구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구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노인패널(가칭)의 표집방법



패널 표본으로 선정된 약 5,000가구는 지역별 노인가구비에 따라 층화 확률비례계통 추출에 의한 추출이 가능하다. 5,000가구를 표본규모로 선정한 이유는 지역별 통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규모 또는 광역단위별 통계의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서 패널 탈락률을 고려한 것이다.

〈표 4-11〉 노인패널(가칭) 조사의 체계

	인구주택 총조사(90%)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 패널조사
조사구	23만여개 조사구	500개 조사구	500개 조사구
가구 수	14백만여 가구	20,000 가구	5,000 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추출	이중층화계통추출
대표성	-	전국	전국

기존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병행하여 패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3년마다 새로운 표본이 생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앞에서 제시한 표본 수 보다는 적은 수의 표본(약 3,000가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단기간의 패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패널 탈락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대표성을 유지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계를 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 부담은 수년간 지속되는 패널에 비해 매우 낮아지게 되며, 패널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매우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대규모 횡단면 조사와 패널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목적성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4-12〉 횡단면 조사와 병행한 패널조사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사방법	대규모 횡단면조사	패널조사	패널조사	대규모 횡단면조사
표본규모	20,000가구	3,000가구	3,000가구	20,000가구
통계산출물	횡단면통계	횡단면통계	종단면 통계	횡단면 통계
표집틀	인구센서스	표본자료(이중추출)		인구센서스

이와 다르게 만일 2008년 조사 이후 횡단면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패널조사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패널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전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약 10%정도로 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패널 설계 보다는 3~5년 주기로 재표집이 가능한 패널설계가 바람직 할 것이며, 특별히 인구센서스 주기에 따라 5년 주기로 재표집하는 패널 설계가 패널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가 될 것이다.

또한 보다 빠른 주기로 노인인구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한다면, 연동 표본(rotation sampling survey)설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표본을 연동하여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역동성 측면에서 보다 빠르게 통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표본설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동 표본설계의 단점인 상시 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설문 문항 구성시 고려사항

패널조사는 일반 횡단면 조사와는 달리 표본단위의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는 지속적인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문항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패널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횡단면 조사와 달리 패널조사는 먼저 노인 인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만일 해당 표본가구에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노인 개인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표본 조사를 통해 노인 가구를 파악한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 노인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 사회 조사와는 달리 특정 타겟그룹(노인, 아동, 장애인등)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해당 가구에 조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패널 조사문항을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문항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오차 관리방안

횡단면 조사와 마찬가지로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에서도 표본조사이므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구별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이러한 오차의 측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표본오차

표본오차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이러한 표본오차의 측정은 대체로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하거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본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표본오차의 산정공식은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며, 통상적으로 표본변동계수(CV)로 측정된다.

나. 비표본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

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지역별로 조사구내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이므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함께 발생한다. 조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오차들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 모든 오차를 동시에 관리하기는 어렵다. 표본설계 시에는 추출방법에 따라 표본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표본오차는 측정 가능하여 관리가 수월하지만 비표본오차는 그렇지 않다. 표본오차와는 달리 비표본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어려워서 사전에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조사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비표본 오차로서는 패널가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에서 탈락하는 탈락오차 또는 마모오차(attrition error)이다. 본 절에서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서 비표본오차를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1) 포함오차

포함오차(coverage error)는 추출틀이 노후화 되었거나 불완전해서 목표 모집단의 모든 단위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포함 오차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정에 편향이 생긴다. 포함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목표모집단의 일부 단위가 추출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과소포함(undercoverage) 또는 미포함(noncoverage)이라 부른다.
- 추출틀에 있는 일부 단위가 목표모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이들은 부적격 또는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표본 추출 전에 확인하고 이들을 추출틀에서 제거한다.
- 추출틀에서 두 개 이상의 단위가 목표모집단에서 동일한 단위와 대응이

될 때, 이러한 경우를 과대포함(overcoverage)이라 한다.

본 조사에 사용되는 추출틀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시점과 인구센서스 종료시점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포함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조사구의 변동은 조사현장에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조사구내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추정에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포함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추출틀을 제공하는 통계청의 역할이며, 본 조사에서는 가장 최신의 추출틀을 사용하여 포함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제공된 추출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무응답오차

최근 조사환경의 변화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가 생긴다.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하고, 조사에 응한 가구에서 일부 조사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라 한다⁷⁾. 가구 단위의 무응답은 무응답 가구를 다른 가구로 교체(substitution)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만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하

7)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¹⁾의 경우 단위 무응답의 경우는 가구조사 완료율이 89.9%, 노인조사 완료율이 94.0%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가중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한편 항목무응답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무응답율이 0.2% 이하로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강구할 정도는 아니다. 일부 항목만이 0.5% 이상의 무응답율을 보이고 있다(부록 4 참조). 이들 항목은 크게 과거 회상 항목 중 월 단위의 정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관련 항목, 노인이미지 관련 항목, 마비 및 구축 관련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나 가중치를 조정해 준다. 표본에 결측이 생기더라도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주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된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이러한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의 형태가 각각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작업과 함께 대체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종단면적인 관점에서 차수가 증감함에 따라 패널가구로서 조사에 참여와 탈락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은 항목무응답의 형태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횡단면적 관점에서는 해당 연도의 조사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단위무응답형태로서 무응답가구에 대한 조정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구와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이사나 분가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무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무응답을 조정하거나 또는 대체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패널가구의 대표성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패널가구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패널에서 탈락하게 되는 마모오차는 특정 차수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패널마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널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다양한 형태의 패널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패널가구에 대한 조사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응답오차

과거 조사에 의하면 일부 표본가구의 응답자들이 조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본가구에서 제공된 자료가 조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 다른 경우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응답의 오류는 가구의 실제 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데,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설문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응답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거나 조사원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응답자가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응답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응답을 요구해서 응답자들이 진실되게 응답하지 않고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오히려 추정치의 편향과 분산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설문의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민감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 확률화응답기법과 같은 방법들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5장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개선 방안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조사 설문지와 노인개인조사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선행 연구 고찰에서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설문지의 수정안을 마련한 결과는 주요 영역별로 수정의 기본방향과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수정안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실시될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구성에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4년도 조사에 비하여 추가된 영역이나 추가된 질문 항목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제안한 설문지 개선방안에 기초한 설문지 개요는 부록 5에 정리하였다.

제1절 가구조사 설문지

기존의 가구조사 설문지는 가구의 일반특성,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노인 및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개선안은 그에 자신의 노후준비라는 1개의 영역을 추가하여 4개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1. 가구의 일반특성

가. 기본방향

가구조사는 노인가구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비노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노인인구가 갖고 있는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에 처음 실시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2006년 처음 실시된 고령화연구패널 등 노인과 관련된 타 조사의 경우도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된 항목은 가구원 관련 사항과 주거관련 사항, 지출 및 소득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상세한 항목들은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도 1998년도와 2004년도 조사 수행시 가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경제적 특성, 거주 실태 등을 파악한 바 있다. 2008년도 조사의 경우 2004년도에 실시되었던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되 가구의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개선안 개요

가구의 일반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구원 사항과 가구주 관련사항, 그리고 가구의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이다. 우선 가구원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조사와 같이 가구원 성명과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생년월일 및 띠, 결혼상태, 노인과의 관계 등이다. 거주구 관련 사항도 기존의 조사와 같이 가구주의 형제·자매수, 생존 형제·자매 기준의 장남/장녀, 교육수준,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에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인데, 주택 소유여부 및 소유주 구분,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수입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및 경제상태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표 5-1〉 가구의 일반특성 영역 설문지 개선안

조사내용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1) 가구원사항	-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생년월일 및 띠, 결혼상태, 노인과의 관계	-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생년월일 및 띠, 결혼상태, 노인과의 관계
2) 가구주 관련 사항	- 가구주 형제·자매수 - 생존 형제·자매 기준 장남/장녀 - 교육수준 - 취업여부 - 종사상 지위	- 가구주 형제·자매수 - 생존 형제·자매 기준 장남/장녀 - 교육수준 - 취업여부 - 종사상 지위
3) 주택소유 여부 및 경제상태	- 주택 소유 여부 - 수입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 개인 재산·금융·연금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주관적 계층의식	- 주택 소유여부 - (신규)주택의 소유주 - (신규)주택가격 - (신규)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 (신규)금융자산 - 수입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 개인 재산·금융·연금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기타소득 ▪ 월 총 가구소득(계) - 주관적 계층의식 - (신규)경제상태 만족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통하여 그 가구내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중심가구원이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택가격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 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상태에 대

한 만족도의 경우는 타연령층과의 비교 및 타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도 조사에서는 노인 개인조사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이한 연령군간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할 수 없었다.

2.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 기본방향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서고 있고 동거부양보다는 별거부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설문지 내용 중 별거부양 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행하고 있는 부양실태를 이해함으로써 장기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선안 개요

2004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비동거 부모에 대한 신체, 경제, 정서적 부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2004년도에 노인 개인조사에서 실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항목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인 부양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노인 개인을 중심의 부양교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령구성원의 세대간 부양의 교환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세대간 부양교환실태의 포괄적인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세대관계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2〉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가구주 부모 및 가구주 배우자 부모의 생존, 부모의 건강상태, 동거여부, 부모 건강악화 시 수발 계획 -부모 동거 및 별거 동기 및 어려움 (결혼상태별로 분류)	-가구주 부모 및 가구주 배우자 부모의 생존, 부모의 건강상태, 동거여부, 부모 건강악화 시 수발 계획 -(신규) 비동거 부모에 대한 신체, 경제, 정서적 부양 실태 -부모 동거 및 별거 동기 및 어려움 (결혼상태별로 분류)

3. 노인 및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기본방향

우리사회가 인구고령화에 적합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구조적·문화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갖고 있는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다. 2004년도 조사의 경우 노인과 노년기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으로 규정되는 생물학적 연령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 세대관계에 대한 인식,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 등이 조사되었다. 증대되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각 항목의 구체성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설문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한다.

또한 가족의 변화에 따른 부모부양 의무감의 약화와 세대관계보다는 부부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들(김승권 외, 2003; 한경혜, 1998)에 기초하여 볼 때 전 연령층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의 정도와 중요시하는 가족관계의 단위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자원의 분배 유형에,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노인만을 대상

으로 한 정책에 대한 호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개선안 개요

기존의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 및 부모 및 노년기에 대한 태도조사 항목을 유지하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더불어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규범과 관련해서는 Palmore 등(2005)의 연구가 있으며 개발된 한국형의 37개 항목의 기존 도구가 있으므로(이금룡, 2005) 이를 수정 보완하여 조사가능한 항목으로 재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이는 가족 내, 고용상, 사회내의 연령차별에 대한 조사항목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복지지표체계(정경희 외, 2002)에 의하면 가치관 영역에 하위영역으로 연령차별이 구성되어 있으나, 가용한 자료원이 없는 상태이다. 연령차별과 함께 우리사회의 주요 사회적 관심사인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시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5-3〉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되는 시기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 세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 여유돈 소비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되는 시기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 (신규)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 (신규)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 (신규)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세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 (신규)부모에 대한 책임의 범위 ▪ (신규)가족관계 중 가장 관심을 두는 관계 - 여유돈 소비 우선순위

한편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전 연령층에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한 태도와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관계는 무엇인지 조사하도록 한다.

4. 노후준비

가. 기본방향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현 젊은 층의 ‘노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기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는 약 78.2세, 여자는 84.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중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평균 약 20여년의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에 대한 적극적 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게 제기되며, 개인적 및 사회적 복지 증진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다 건강한 노후와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 및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증가를 수반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후준비는 단지 ‘경제적 노후준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 이외에도 건강, 자아실현, 성취, 취미, 취향, 개인의 가치관 등과 관련되는 다측면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제도적 차원에서도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후준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으며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공감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해 개인의 바람직한 노후설계를 뒷받침하고 촉진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해 가야 할 것이다.

나. 개선안 개요

무엇보다 2008년도 노인조사에서는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인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취미, 목표, 성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민적 인식과 준비실태 및 욕구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기존 2004년도 조사의 경우 노후 경제대책 유무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건강 악화를 대비한 준비, 유배우 혹은 무배우 상태의 거주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이에 덧붙여 노후 준비의 영역을 보다 다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노후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표 5-4〉 노후준비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경제대책 유무 - 노후대책: 공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저축, 기타 - 최선의 노후생활비 마련 - 건강 악화시 생활방법 - 거주형태: 유배우시 거주형태, 무배우시 거주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 및 신규) 각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상생활, 경제, 건강, 주거 등 - (보완 및 신규)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방법 - (신규)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신규)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있어 향후 필요한 정책적 보완

제2절 노인 개인조사

기존의 노인 개인조사 설문지는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구형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직업 및 경제상태, 사회활동, 부양의 교환실태, 건강상태,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영역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노후 준비라는 2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직업 및 경제상태의 영역은 경제상태, 소비, 경제활동의 3개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정책적·학술적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심사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개선안은 총 1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인의 일반특성

가. 기본방향

조사대상의 일반특성에 관한 조사도 가구의 문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조사에서 실시된다.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도 마찬가지로 1994년도 조사부터 2004년도 조사까지 성별, 연령, 결혼상태 및 무배우 기간, 학력 등 노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노인의 생활현황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나. 개선안 개요

2004년도 조사에서는 노인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및 무배우 기간, 학력을 조사한 바 있다. 2008년도 조사는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면서 노인의

배우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배경변수인 배우자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형태를 추가하도록 한다.

〈표 5-5〉 노인의 일반특성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¹⁾ -연령¹⁾ -교육수준 -결혼상태¹⁾ -해혼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¹⁾ -연령¹⁾ -교육수준 -결혼상태 / 해혼연령 -(신규) 배우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연령¹⁾ ▪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형태

주: 1) 해당사항은 가구조사에서 파악됨.

2.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 기본방향

노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도 조사에서는 노인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 친척, 친구, 이웃의 접촉 및 연락빈도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자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하는 일차적인 비공식적 관계, 친구·이웃과 같은 이차적인 비공식적 관계, 동료, 단체성원 등과 같은 공식적인 관계가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는 Cantor(1985)의 사회적 후원체계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친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설문 내용에서는 삭제하고, 노인의 삶에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갖는 의미와 기대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삶에 각 사회적 관계가 갖는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 및 주관적인 관계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사회관계 구성요소가 노인의 삶에 있어 갖는 의미와 기대를 파악 하도록 한다. 즉 노인의 비공식적 지지망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노인의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조와 작동을 밀도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나. 개선안 개요

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및 연락 빈도에 관한 기존설문 문항을 유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파악이 구조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관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 관계에 대해 노인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만족도를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의 일반적인 사회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6개월간 중요한 문제를 의논했던 5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표 5-6〉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의 성, 형제·자매순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유무, 배우자의 취업유무, 거주거리, 접촉 및 연락빈도 ▪ 노인(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건강상태, 접촉 및 연락빈도 ▪ 손자녀수, 접촉 및 연락빈도 ▪ 형제자매수, 접촉 및 연락빈도 ▪ 친척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 수, 접촉 및 연락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의 성, 형제·자매순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유무, 배우자의 취업유무, 거주거리, 접촉 및 연락빈도 ▪ 노인(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건강상태, 접촉 및 연락 빈도 ▪ 형제자매수, 접촉 및 연락빈도 ▪ 손자녀수, 접촉 및 연락빈도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 수, 접촉 및 연락 빈도 ▪ (신규)각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노인의 기대 ▪ (신규)가장 가까운 관계 5인 ▪ (삭제)친척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3. 노인의 가구형태

노인의 가구형태는 2004년 조사와 동일하게 기혼자녀와의 거주형태(동거 및 별거)별 거주형태 결정 이유 및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이유를 조사하도록 한다.

〈표 5-7〉 노인의 가구형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기혼자녀와의 동거/별거 이유 -현 가구형태를 유지한 기간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 불만시 그 이유	-기혼자녀와의 동거/별거 이유 -현 가구형태를 유지한 기간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 불만시 그 이유

4.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이 주위사람들과 주고 받는 경제적, 신체적, 도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부양의 교환을 파악하는 2004년도 조사내용을 그대로 파악하며, 부양자로서의 선호에 대한 내용 또한 1998년도 설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제부양자와 선호부양자간의 일치여부를 살펴봄과 동시에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5-8〉 노인의 부양교환 실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경제적 부양 주/부 제공자, 수혜자 -도구적 부양(간병/수발,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시장보기, 교통편의) 주/부 제공자, 수혜자 -정서적 부양 주/부 제공자, 수혜자	-경제적 부양 주/부 제공자, 수혜자 -도구적 부양(간병/수발,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시장보기, 교통편의) 주/부 제공자, 수혜자 -정서적 부양 주/부 제공자, 수혜자

5.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구조사에서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되, 노인 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연령차별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현세대 노인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즉 2004년 조사에 비하여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와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및 연령차별의 경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고령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재산상속에 관한 태도와 행태 파악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표 5-9〉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일반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되는 시기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노인임을 인식하는 계기	-일반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되는 시기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노인임을 인식하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신규)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신규)연령차별의 경험 여부
-세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 노후의 자녀부양에 대한 태도 	-세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 노후의 자녀부양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노후생활 영위방법 -여유돈 소비 우선순위	-선호하는 노후생활 영위방법 -여유돈 소비의 우선순위
-재산상속 행태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보유의 필요성 ▪ 재산상속 행태 ▪ 재산 상속 계기 ▪ 재산상속 시기 	-(신규)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재산상속 행태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보유의 필요성 ▪ 재산상속 행태 ▪ 재산상속 계기 ▪ 재산상속 시기

6. 노후준비

가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 노인집단의 다수에게 ‘노후준비’라는 용어는 생소하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조사시 포함된 내용 중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항목만을 조사내용에 포함하도록 한다.

〈표 5-10〉 노인의 노후준비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경제대책 유무 및 방법 -건강 악화시 생활방법 -거주형태: 유배우시 거주형태, 무배우시 거주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 및 신규) 각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상생활, 경제, 건강, 주거 등 - (보완 및 신규)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경제대책 유무 및 방법 ▪ 건강 악화시 생활방법 ▪ 거주형태 유지여부

7. 경제상황

가. 기본방향

본 조사에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 기준에서 노인의 경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노령은 소득상실을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사회적 위험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인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선안 개요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조사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정교해져 왔다. 경제상태는 곧 노인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11〉 노인의 경제상황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소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 주된 수입원(유무/월 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수입금액 ▪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개인연금 ▪ 공적연금 ▪ 기타 사회보험급여 ▪ 경로연금 ▪ 교통수당 ▪ 친인척의 보조금 ▪ 사회단체의 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참전명예수당액 ▪ 기타소득 ▪ 월평균 총수입 - 생활비 이외의 월평균 용돈(원) -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경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소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 (신규)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소유, 임대/임차) ▪ 사업체/농장(소유, 임대/임차) - 주된 수입원(유무/월 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개인연금 ▪ 공적연금 ▪ 기타 사회보험급여 ▪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 교통수당 ▪ 친인척의 보조금 ▪ 사회단체의 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참전명예수당 ▪ 기타소득 ▪ 월평균 총수입 - 기타 수입 및 소득 - 생활비 이외의 월평균 용돈(원) - (신규)부채상황 - 주관적 경제상황 -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경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난해와 비교했을때의 주관적 경제상황 ▪ (신규)저축과 자산에 대한 주관적 충분성 정도

2004년도 조사에서는 가구 및 노인 개인의 소득원 구성 및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의 필요 용돈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조사한 바 있다. 2004년도에 조사된 내용 외에도 2008년도 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경제상태 파악을 위하여 항목에 변화된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관련 사항, 주관적 계층의식 및 경제상황, 지난 1년간 노인의 총소득, 기타 수입 및 소득, 상속/증여/부채 등의 항목을 조사하도록 한다.

8. 소비

가. 기본방향

소득이 노인의 경제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소비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를 궁극적인 경제적 복지(economic welfare)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는 주어진 예산제약, 즉 소득의 범위 내에서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 선택한 생활양식(life-style)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들의 소비구조와 그 변화양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대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걸맞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나. 개선안 개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구조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는 큰 틀에서 가구의 총소비, 가계소비, 소비지출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소비항목에 대한 조사는 소비항목을 크게 10대 비목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중범위 소비항목으로 구분하는 품

목별 분류 방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0대 비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기타 소비지출 등이며 이같은 (도시)가계조사의 항목구분은 소비를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도 10대 비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조사하고, 전체적인 월평균 소비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 경향과 조사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외식, 경조사비, 레저비용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12〉 노인의 소비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 소비에 관한 조사항목 없음	- 월 평균 소비지출액 - 10대 비목에 대한 대략적 지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 주거비 ▪ 광열수도 ▪ 교육 ▪ 교양오락 ▪ 교통통신 ▪ 보건의료 ▪ 가구집기가사용품 ▪ 피복 및 신발 ▪ 기타 소비지출 - 특별 항목(예: 외식, 경조사비, 레저비용) 등을 특화시켜 조사

9. 경제활동

가. 기본방향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의미이다.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고 1988년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개막된 이래 현재까지 제도의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화두로 급박하게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현 중장년층 이상 및 노인인구의 다수는 개별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현업에서 퇴직한 이후인 노후에도 경제활동은 다수의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계 활동의 일환으로 기능하게 된다. 2004년도에 실시된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 중 취업중인 노인의 비율이 30.8%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약 70%는 취업 사유를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노후 경제활동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노후 경제활동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사회활동'의 의미이다. 청장년기의 직업활동이 경제적 독립 및 생존과 직결된다면 노년기 직업활동의 속성은 청장년기와는 상이한 측면을 갖게 된다. 역시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취업 이유 가운데 전술했듯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70%를 제외한 나머지 약 25% 정도는 실제 노후의 경제활동 이유를 자아실현, 보람, 의미, 건강 등에 돌리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6.5%가 '일이 좋아서', 9.6%가 '건강유지를 위해서', 4.9%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6%가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0.2%가 '사회적 지위·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0.6%가 '기타'로 응답했다. 이는 생계 이외에도

광범한 의미의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직업활동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8년도 노인조사에서는 이같은 특성에 근거해, 노인의 경제활동이 가지는 '사회활동'의 속성이 있음을 감안하고, 경제활동 자체가 노인의 복지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사항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 개선안 개요

2004년도 노인조사는 크게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현 직업관련 문항, 비취업중인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 문항,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경우 현 종사직종·종사기간·취업이유·계속 취업희망여부 등을 조사하며, 취업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취업희망 유무 및 희망 직종의 항목 등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노인의 경제활동을 광범한 의미의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보았을 때 여타의 사회활동 유형들(자원봉사, 문화, 운동, 사교, 정치 등)과 동일한 비교선상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008년도 조사는 시계열적 연속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2004년도의 문항을 참조하면서, 기타 사회활동 유형과 동일한 형식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문항 및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일환으로서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

〈표 5-13〉 노인의 경제활동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 직업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직업 유무 ▪ 현 직업, 근무형태 ▪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총 종사기간(년), 총 종사기간(월) ▪ 현취업 이유 ▪ 취업 만족 여부, 직업 불만 이유 ▪ 향후 계속 취업희망, 현직장 이직 여부 ▪ 최근 퇴직 년도, 최근 퇴직월 ▪ 총실업기간(년), 총실업기간(개월) ▪ 최근 직장퇴직 이유 ▪ 현 미취업 이유 ▪ 향후 취업희망 여부, 향후 취업 이유 	- 직업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직업 유무 ▪ 현 직업, 근무형태 ▪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총 종사기간(년), 총 종사기간(월) ▪ 현취업 이유 ▪ 취업 만족 여부, 직업 불만 이유 ▪ 향후 계속 취업희망, 현직장 이직 여부 ▪ 최근 퇴직 년도, 최근 퇴직월 ▪ 총실업기간(년), 총실업기간(개월) ▪ 최근 직장퇴직 이유 ▪ 현 미취업 이유 ▪ 향후 취업희망 여부, 향후 취업 이유
-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 구직방법 ▪ 구직활동하지 않은 이유 ▪ 원하는 일 형태 ▪ 일자리 우선 순위 ▪ 노인취업을 위한 정부지원 	-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 구직방법 ▪ 구직활동하지 않은 이유 ▪ 원하는 일 형태 ▪ 일자리 우선 순위 ▪ 노인취업을 위한 정부지원
- 최장 종사직업	- 최장 종사직업 (신규) - 근로경력 - 퇴직 이후 근로 경력 - 일에 대한 만족 사유(혹은 취업으로 인해 좋은 점)

10. 사회활동

가. 기본방향

노인의 사회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은 각각 노인의 활동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범이 상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단언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은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사회참여란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광의의 정의에 의하면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 등이 포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금룡, 2002 재인용).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취업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참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한편 노인의 사회활동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와 지향은 무엇보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은 사회관계가 유지·지속시키게 되고, 사회활동 과정에서 속하게 되는 단체·집단 등은 개인에게 역할과 소속을 부여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excluded)되고 주변화(marginalised)된 노인들로부터 새로운 잠재력을 끌어냄으로써

8)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제2조 2항에서는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3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효용의 차원에서도 유익하다. 더욱이 향후 노인인구의 비율이 보다 높아지고, 노인의 전반적 복지수준 및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도 소극적인 노후가 아니라 적극적인 노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활동에 대한 조사영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와 만족도, 욕구 등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수단적 측면, 예컨대 사회활동에 이르게 되는 경로, 활용 인프라, 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개선안 개요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조사는 전술한 기본방향에 근거해 크게 다음의 측면에서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역의 포괄성을 기해야 한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크게 사회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의 하위 항목으로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의 활동 여부가 조사되고 있다. 또한 상기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중첩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의 참여 여부는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노인 사회활동의 영역을 통합해 일관된 조사 항목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활동의 형태에 대한 개방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측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각 사회활동 영역간의 비교 혹은 상관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활동 영역별 자료수집에 있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 단위를 연속변수화 시킴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노인의 사회활동 전반과 관련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사회활동들간, 혹은 사회활동과 여타 변수들 간의 인과적인 구조를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은 자료가 연속변수의 수준에서 수집될 때 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 이같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사회활동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된 동기, 접근 경로, 활용 제도 등 수단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강화시키고, 만족도 및 향후 욕구와 같은 질적 측면에 대한 정보 역시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4〉 노인의 사회활동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 사회활동: 즐거움(보람), 종교/문화활동/운동/사교/정치단체 가입여부·월참여빈도·향후 희망 - 평생교육: 경험여부, 실시기관, 향후희망, 참여여부, 미참여 이유 -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기본활동비 지급, 향후 활동여부, 향후 참여빈도, 향후 참여 영역, 향후 미참여 이유 - 정보화: 컴퓨터 이용 여부 - 정부사업(프로그램): 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인지여부, 경험, 향후이용	-(보완)사회활동의 실태: 각 사회활동 유형을 총망라해서 제시, 각 사회활동 유형의 현재 및 과거 참여여부, 참여빈도(주단위, 시간단위), 참여이유, 미참여 이유, 향후지속여부 -(신규)만족도 조사: 각 사회활동 유형별 만족여부, 만족 사유, 불만족 사유, 장애요인, 향후 개선 사항 -(신규)사회활동의 수단적 측면: 사회활동 경로, 이용한(혹은 도움을 받은) 제도,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정부의 역할.

11. 보건의료

가. 기본방향

1995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며, 2005년도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목표를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 등 4개로 나누었다(서미경 외, 2005).

본 연구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상태, 예방 및 만성질환상태, 기타 건강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 3년 주기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 의식행태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활동 및 만성질환상태를 중심으로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보건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과 관련된 일상생활습관이 노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여 사망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흡연 및 음주 여부, 생활체육, 식생활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의 평가 항목으로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여부, 건강·영양교육 참여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노인의 운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증진시켜 생활 장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요한 건강생활실천행위이다. 또한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식사함으로써

써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일간 하루 세 번 식사 여부 및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독감예방접종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생긴 심한 병을 막기 위하여 예방주사를 맞는 것으로, 노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는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는 주요 만성질병상태, 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낙상사고 및 약물 오·남용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만성질병상태는 조사 기준 일에서 3개월 이전부터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이 무엇인지, 그 만성질병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앓고 있는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의료비의 부담 정도 및 의료비 부담자 등을 파악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동년배와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노인은 신체적 약화로 인해 가벼운 사고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 후의 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안전사고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매우 위험한 요소이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사고는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주로 언급되는 것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교통사고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낙상은 주로 가정에서 잘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낙상 여부를 알아보고 그 발생장소가 가정 내인지 또는 외부에서의 사고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낙상의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한편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적절한 음식섭취보다 약 등을 통한 건강유지에 관심이 많아 약 또는 건강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노인들의 약물 오남용 및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실태를

파악하고자 최근 3개월간 치료 및 건강을 위하여 복용한 약·건강식품의 종류, 섭취 이유 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나. 개선안 개요

보건의료영역은 시계열적 연속성을 위해 2004년 조사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강증진활동,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상태, 낙상사고, 약물 오남용 및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그리고 신체계측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추가된 문항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영양교육 참여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실태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이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구체적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15> 노인의 보건의료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건강증진활동 ▪ 흡연 및 음주 여부 ▪ 운동여부, 빈도 및 종류 ▪ 끼니별 식사 여부, 규칙적 영양섭취 여부 ▪ 독감 예방 접종 여부 ▪ 건강검진 여부 및 이용 경로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명, 의료비 부담정도, 질병으로 힘든 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관 종류 -낙상사고 경험 및 장소 -약 복용 또는 건강식품 섭취 유무 및 종류 -체중과 신장	-건강증진활동 ▪ 흡연 및 음주 여부, 빈도 ▪ 생활체육 빈도 및 종류, 장소 ▪ 끼니별 식사 여부, 규칙적 영양섭취 여부 ▪ 독감예방접종 여부 ▪ 건강검진 여부 및 이용경로 ▪ (신규) 건강·영양교육 참여 여부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명, 의료비 부담정도, 질병으로 힘든 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관 종류 -낙상사고 경험 및 장소 -약 복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유무 및 종류 ▪ (신규)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유 -체중과 신장

12.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가. 기본방향

노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조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기능상태는 노인보호와 노인이 행하는 사회활동의 형태 등을 둘러싼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도 1994년 이후 계속적으로 노인기능상태와 노인의 신체적 부양에 대한 영역이 조사되었다. 노인의 기능상태 영역에서 조사된 영역은 시력, 청력, 씹기, 걷기 상태 및 보조기 사용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다. 정신건강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은 1994년에는 인지기능평가(MMSE)와 우울증 검사(CES-D), 치매노인 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에는 1994년도에 실시되었던 인지기능평가, 우울증 검사, 치매노인행태조사가 삭제되어 노인의 정신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었다. 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어진 ‘노인기능평가도구’에 대한 신뢰성 검토, 노인기능평가도구를 활용한 전국 노인의 기능수준에 대한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노인생활실태조사 내에 노인기능평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활용할 ‘노인기능평가도구’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노인기능평가도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 재활욕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3차에 걸친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노인의 기능상태는 신체적 기능상태에 대한 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신적 기능상태 조사는 1994년 조사 이후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이전 연구와의 시계열적 비교분석과 외국에서의 노인생활실태와의 비교를 위한 조사 설계를 요구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증가, 노인의 정신건강 중요성 증가 등을 고려한 노

인기능상태 조사 내용 구성을 필요로 한다.

신체·정신적 기능상태에 따른 노인수발 실태 현황은 1994년 조사부터 이루어졌다. 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성, 연령, 직업, 수발시 어려움 등이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수발내용별 평균 빈도항목이 추가되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장기요양 보호대상자로 판정된 노인에게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 따라서 2008년 조사에서는 가족 외의 수발자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수발 서비스에 대한 욕구, 서비스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나. 개선안 개요

노인의 기능상태 파악은 신체적 기능상태와 정신적 기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진다. 신체적 기능상태는 시력, 청력, 씹기, 걷기 상태 및 보조기 사용여부, 보조기 착용시 상태, ADL, IADL를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노인의 정신적 기능상태는 우울증 검사와 노인치매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한국형으로 개발되어진 도구를 활용하여 K-ADL(12항목)와 K-IADL(10항목)으로 구성한다. 우울증 검사는 1994년 조사와의 시계열비교와 국제적 활용도가 높은 CES-D를 활용하도록 한다. 인지기능은 1994년도와의 시계열비교와 국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MMSE-K를 활용하도록 한다. 기능조사에서 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의 항목 중 인지 및 문제행동, 간호욕구, 재활욕구는 2008년 조사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는 인지 및 문제행동은 MMSE-K를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간호 및 재활욕구는 ADL과 질병상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표 5-16〉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시력, 청력, 씹기, 걷기 상태 및 보조기 사용여부, 보조기 착용시 상태 -ADL 12항목 -IADL 10항목 -간호처치 11경험 -인지기능및 문제행동 31항목 -수발자와 노인과의 관계, 성, 연령, 직업 -수발기간, 수발시 어려움, 수발내용별 평균 빈도	<기능상태> -시력, 청력, 씹기, 걷기 상태 및 보조기 사용여부, 보조기 착용시 상태 -ADL 12문항 -IADL 10문항 -(신규)우울증 검사: CES-D -(신규)MMSE-K -(신규)수발 필요성(본인 인지) <보호실태> 1) 가족보호 -수발자 여부 및 부양충분성 -수발자 현황: 노인과 관계, 성, 연령, 직업, 수발시 어려운 점 -수발기간, 수발내용별 평균빈도 2) (신규)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경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양, 지불 비용 (삭제) -장기요양대상자 선정을 위한 항목 일부: 간호처치욕구, 재활(구축)욕구, 인지장애, 문제행동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1998년도에서는 ADL과 IADL 항목 중 1개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호 수발과 관련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ADL과 IADL, 인지 및 문제행동, 간호욕구, 재활욕구에 1개 이상 보호를 필요할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에서는 객관적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욕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노인 본인이 느끼는 수발의 필요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는 수발실태 파악을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고려하여 가족 외의 수발자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따

라서 기존 가족수발자에 대한 항목인 수발노인과의 관계, 성, 연령, 직업, 수발부담, 수발행태를 비롯하여,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경로, 서비스 종류 및 양, 지불비용을 조사하도록 한다.

13. 생활환경

가. 기본방향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을 둘러싼 환경이 고령친화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이다. 노인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교통, 지역사회 생활용품 및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의시설 등을 의미한다. 노인의 정주성(aging in place)은 노인 복지가 지향하는 이념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생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교통부는 노인주택이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서 정주성(aging in place), 범용성(universal design), 안전성(safety), 자립성(independence), 편리성(convenience), 쾌적성(comfort)을 제시하였다(건설교통부, 2007). 노인의 주택관련 조사내용은 1994년 노인소유 개인방 여부, 주택구조의 편리성, 2004년도에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환경의 쾌적성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노인이 거주 주택에서 누려야 할 권리로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 편리, 쾌적성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비롯하여 교통수단, 의료·생활용품 구매·복지서비스 등의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 생활시설이 주택 가까이 있거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994년도 조사에서는 생활시설물(병원, 시장 등) 이용시 교통수단과 편리성을 조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외출시 불편을 주는 환경을 조사하였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1994년도와 2004년도의 항목을 포괄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교통사고 경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감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이 생활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뿐 아니라 자가 운전은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가 낮아짐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자가운전관련 조사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개선안 개요

생활환경은 노인의 주택과 지역사회 환경의 고령친화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노인의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주관적 만족도, 노인이 인지하는 주택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주택개조의 욕구를 조사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생활환경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주요 생활시설물(병원, 시장, 관공서 등)별 교통수단과 편리성, 외출시 불편한 환경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5-17〉 노인의 생활환경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 노인 개인방 소유 여부 - 생활환경의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방, 부엌, 화장실, 목욕탕 -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외출시 불편을 주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 (신규)노인이 인지하는 편리성, 쾌적성 평가: 방, 화장실, 부엌, 거실 등 - (신규)주택개조 필요성 -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주요 생활시설물(병원, 시장 등)별 교통수단과 편리성 - 외출시 불편을 주는 환경 - (신규)노인자가운전여부, 운전경험, 운전 그만둔 이유 - (신규)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교통사고 경험
	(삭제) - 노인 개인방 소유 여부

노인의 자가운전과 관련해서는 자가운전 여부, 이전 운전경험, 운전을 그만하게 된 이유로 구성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조사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교통사고 경험 등이다.

단, 노인의 개인방 여부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증가로 인하여 노인방 확보율이 높음으로(2004년 조사: 96.1%) 삭제하도록 한다.

14.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 이용욕구

가. 기본방향

실제 조사가 실시되는 2008년은 노인복지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두 제도는 노인의 생활에 있어 노인의 건강과 소득 측면에 기존의 소극적 노인복지정책에서 적극적 노인복지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영역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실시되었던 복지서비스별 인지도, 이용여부, 향후 이용희망율과 함께 실시될 제도에 초점을 두어 조사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으므로, 서비스별 인지도, 이용자에 대한 내용, 빈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1998년 조사에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조사항목이 구성되었으나 2004년도에 조사대상이 크지 않아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조사는 조사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이용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최근 노인복지 관련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노인 정책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노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소는 앞 장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성되며, 객관적 요소는 전 조사항목의 영역별 객관적 상태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진 척도는 LSI(Life Satisfaction Index), GQOL(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 최성재(1998)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등 여러 척도가 개발되어 있다.

나. 개선안 개요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는 본 영역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추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성한다. 우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별 인지도, 이용경험여부, 향후 이용 희망률을 조사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업,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노인여가서비스, 기타 노인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경험여부, 향후 이용희망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또는 고령자 인재은행, CSC, 고령자취업우선업종 선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간호서비스, 노인주간보호서비스, 노인단기보호서비스, 치매상담센터, 치매병원, 노인식사배달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로 한다. 노인여가서비스는 노인교육기관(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기타제도에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독거노인돌봄미파견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정책영역에서 초점이 되는 정책분야는 최근 정책적 이슈를 받고 있거나 2008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2008년도 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업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여가복지서비스, 그 외의 노인서비스 등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별 인지도와 이용경험 여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2008년도 조사에서 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이후에 제공되는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하도록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경험, 참여한 일자리 유형, 참여 기간, 일자리로 인한 월급,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로 구성한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신청여부, 수급여부, 수급액수, 이전 경로연금 대상여부로 구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지, 판정제도에 대한 인지, 향후 이용의향으로 구성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 외에는 정부의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 이유, 노인복지사업의 발전에 대한 인식,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파악을 위해 1994년도 조사시 활용하였던 LSI 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표 5-18〉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 이용욕구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서비스별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사업 ▪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 노인여가서비스 ▪ 기타 노인우대제도 - 경로당 이용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의 이용여부와 빈도, 이용 만족도와 그 이유,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 교통 수단 예산의 용도변경 및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서비스별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희망 여부 - 이용서비스별 구체적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빈도, 만족도 - 신규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문제점(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 정부사업에 대한 만족도 -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체감도 -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사 추가 - 노인 삶의 만족도(LSI) - (삭제) 경로당, 교통수당에 대한 조사 내용

15. 새로운 관심사들

가. 기본방향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치매와 우울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밖의 정신적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최근 노인의 성(sexuality), 죽음, 자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1994년, 1998년, 2004년 조사는 물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조사에서도 위 문제에 관한 항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인의 성, 죽음, 자살 등 관련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의 추가는 점차 다변화되는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잠재적 노인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노인의 성(sexuality)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측면에서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폐쇄성, 특히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은 노인 매춘과 성 질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해, 그리고 노인생활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의 성 욕구 및 태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노인은 한정된 수명 속에서 죽음에 가장 직면하고 있으며, 죽음과 관련된 불안감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정신·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죽음의 의미, 죽음에 관한 태도 등 체계적인 죽음불안(death anxiety) 척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준비하는 노인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인이 느끼는 죽음불안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노인이 선호하는 장례문화를 파악하여, 복지수요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지난 1993년 21.5명이었지만,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 72.5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노인 자살의 증가는 노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노인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또 다른 표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살은 사후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따라서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에 대한 조사 및 설계가 필요하다.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조사는 노인생활 전반의 질을 가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 학대 역시, 성, 죽음, 자살과 함께 주요 노인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할수록, 노인 학대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 학대는 그 유형 및 성격이 너무 다양하고, 인권은 물론 법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복잡한

형태의 노인 학대를 제한된 설문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노인 학대의 경우 별도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노인 학대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를 기대하기로 한다.

나. 개선안 개요

노인의 성은 성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다. 노인의 성생활 여부 및 빈도, 그리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노인의 성욕구 및 태도를 확인한다.

죽음은 국내외적으로 죽음불안(Death Anxiety)을 측정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는 Templer(1970)의 DAS(Death Anxiety Scale)의 15개 문항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죽음에 대한 의미 및 태도가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해당 분야의 국제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또, 노인의 죽음준비와 관련하여, 준비여부와 선호하는 장례방식을 조사한다.

노인의 자살은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에 대한 언급, 자살계획, 자살 시도 등으로 구성된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척도를 통해 측정한다.

〈표 5-19〉 새로운 관심사 영역 설문지 개선안

2004년도 조사	2008년도 조사(안)
※ 해당사항 없음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생활 여부, ▪ 성 만족도 ▪ 성욕구 ▪ 성에 대한 태도 -죽음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불안 척도(DAS) ▪ 선호 장례문화 -자살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생각 척도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최초의 법정 조사실시를 앞두고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기본방향과 표본 및 조사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아래에서는 제시한 개선방안을 정리해보고, 제안된 개선방안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와 그러한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실천적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제1절 연구결과 요약

국제기구의 기본방향, 국내외 노인관련 조사,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이슈 등의 검토에 기초하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노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과 욕구의 포괄적인 파악, 학술연구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척도의 적극적 활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고령화 적응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 확보, 국제적 흐름의 반영, 지역통계 산출이 가능한 표본설계 및 조사규모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표본관련 개선방안과 조사내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표본설계 개선방안

2008년도에 실시될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기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비해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줄임으로써 보다 정도가 높은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사구당 표본

가구수를 증가시킬 경우 집락효과에 의해 추정치의 상대표준오차는 증가하게 됨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정수준의 집락효과는 인정하면서 조사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2008년도 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자료의 60가구 단위 조사구를 이용하고,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를 약 30~40 가구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도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2008년도 조사의 경우 전체 표본가구가 약 2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므로 충분히 지역별로 안정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표본조사구 또는 표본가구를 할당하도록 한다.

만일 지역별 통계산출이 예산이나 표본수 부족으로 산출할 수 없을 경우는, 광역단위로 지역을 병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경기/인천/강원),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 호남권(전북/전남/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 등으로 광역단위로 통계를 산출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을 병합하여 통계를 산출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 통계생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정도 높은 통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대로 의미가 있는 설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 횡단면 조사를 통해서만 노인의 복지 실태 및 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노인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패널조사와 같은 종단면 조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조사가 수행되는 해에 대규모 조사를 통해 횡단면적인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약 5,000가구를 부차표집(subsampling)하여 가구 및 개인 조사

를 지속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병행하여 패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먼저 3년마다 새로운 표본이 생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정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앞에서 제시한 표본수보다 적은 수의 표본(약 3,000가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기간의 패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패널 탈락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어느 정도 대표성을 유지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계를 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 부담은 수년간 지속되는 패널에 비해 매우 낮아지게 되며, 패널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매우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대규모 횡단면 조사와 패널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목적성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방안은, 만일 2008년 조사 이후 횡단면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패널조사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패널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전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약 10%정도이므로 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패널 설계 보다는 3~5년 주기로 재표집이 가능한 패널 설계가 바람직 할 것이며, 인구센서스 주기에 따라 5년 주기로 재표집하는 패널 설계가 패널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가 될 것이다. 보다 빠른 주기로 노인인구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연동 표본설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표본을 연동하여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역동성 측면에서 보다 빠르게 통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표본설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동 표본설계의 단점은 상시 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조사가 가능할 경우 이러한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지는 확보된 예산의 규모와 관리 능력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2. 설문내용 개선 방안

제시된 설문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조사
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방안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전 연령층
의 부모세대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과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행태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2004년도와 달리 제3자로
부터의 노인의 인지기능 및 행동에 관한 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도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

전 연령층의 세대관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비동거 부모와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의 교환 상황을 파악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연령통합사회로의 진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연령규범이나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강화하였다.

한편,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측면, 즉 경제,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의 세 측면에 대한 준비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노후준비의 어려운 점, 향후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개인조사의 경우 가구형태, 부양의 교환실태는 2004년도 조사내용
과 동일하며, 일반특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경제상황, 경제활동, 건강상
태 등은 몇 개 항목이 추가되는 변경만이 이루어졌다. 즉, 일반특성영역의
경우 배우자 관련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는 노인
이 가깝게 느끼는 관계가 무엇이며, 그러한 관계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경제상태에서 부채와 주관적 경
제상황 평가 항목이 보강되었으며, 경제활동의 경우는 퇴직 이후의 근로
경력, 일에 대한 만족 사유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도 있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경우, 연령규범 및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관련 항목이 추가되었고, 노후준비에 관한 항목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설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사회활동의 경우 사회활동 관련 항목의 체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하게된 경로 및 정보원, 정책적 요구사항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생활환경의 경우도 기존의 주택내부에 대한 질문항목에 더하여 주거환경에 관한 항목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주택개조 사업의 맥락에서 주거개조의 필요성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다. 한편, 전기노인들 사이에서 자가 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자가운전 관련 항목도 추가하였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판정도구 개발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당시 검토 중이던 노인기능판정도구가 조사되었었지만, 본 조사에서는 그런 정책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평가인 치매진단(MMSE-K)을 실시하도록 한다.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인식 및 태도는 2004년 조사 이후 발생한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인의 소득뿐 아니라 소비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소비 영역이 신설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의 성, 노인 자살, 학대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6-1〉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구조사 설문지 개선안 개요

2004년도	2008년도 개선안	비고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일반특성 1. 가구원사항 2. 가구주 관련 사항 3.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일반특성 1. 가구원사항 2. 가구주 관련 사항 3.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	* 동일 <추가> - 주택소유주 - 주택가격 -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 금융자산 - 경제상태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 세대간 부양교환 파악 강화 <추가> - 비동거 부모/배우자 부모의 신체, 경제, 정서적 부양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 장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종합적 태도 파악 <추가> -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 부모에 대한 책임의 범위 - 가족관계중 가장 관심을 두는 관계 - 고령화 인식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노후준비	* 신규 영역으로 구분 *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양상 주목 <보완> - 각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세부 내용: 경제,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 -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방법 <추가> -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있어 향후 필요한 정책적 보완
<input type="checkbox"/> 인지기능 및 행동	삭제	기능상태 파악 방법의 변화에 따라 가구조사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조사원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조사원 확인사항	

〈표 6-2〉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개인조사 설문지
개선안 개요

2004년도	2008년도 개선안	비고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일반특성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일반특성	<추가> - 배우자 관련 사항 (건강상태,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추가> - 각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삶에 갖는 의미와 기대 - 가장 가까운 관계 5인 <삭제> - 친척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input type="checkbox"/>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가구형태	동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 교환실태	<input type="checkbox"/> 부양의 교환실태	동일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input type="checkbox"/>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장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인 및 노년기에 대한 종합적 태도 파악 <추가> -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 연령차별의 경험 -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input type="checkbox"/> 노후준비	* 신규 영역으로 구분 * 노후준비 다차원적 양상 주목 <보완> - 각 영역별 노후준비 여부 및 세부내용: 경제, 건강, 일상생활, 주거 등 -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방법

〈표 6-2〉 계속

2004년도	2008년도 개선안	비고
□ 직업 및 경제상태	□ 경제상태	<추가> -부채상황 -다각적인 주관적 경제상황 평가 파악
	□ 소비	* 신규영역으로 설정 -10대 비목에 대한 지출구성 -특별항목에 관한 조사
	□ 경제활동	<추가> -퇴직 이후 근로경력 -일에 대한 만족 사유
□ 사회활동	□ 사회활동	* 사회활동 만족도 및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항목 대폭 추가
□ 보건의료	□ 보건의료	<추가> -건강·영양교육 참석 여부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유
□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 기능상태 측정 항목 수정 * 정서적 건강 측정을 위한 우울도 측정 추가
□ 생활환경	□ 생활환경	* 주거환경관련 항목 대폭 추가 <추가> -주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주택개조 필요성 -자가운전관련 항목
□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신규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
	□ 새로운 관심사	* 성, 죽음 및 자살에 관한 조사 실시
* 확인사항	* 확인사항	

제2절 향후 과제

제안한 개선방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준비 작업이 요구되며, 적절히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조사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체계적인 조사준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표본설계 개선방안과 설문지 구성안에 기초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별 통계가 산출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권역별 통계산출을 염두에 둔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규모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사 일정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조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된다.

한편,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설문지 구성안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와 정책계획 및 집행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설문내용의 구체화, 영역간의 균형 확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조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정책입안이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기술통계로서는 거의 모든 출판물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자료의 심층분석 등 학술적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6 참조).

지금까지 진행된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는 1998년도 이후 총 37건의 구매가 이루어졌으나 구매자가 직접 자료를 활용하여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없으며, 구매자 외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한편, 국회도서관의 자료검색을 통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학위논문을 파악한 결과, 1998년도 및 2004년도 보고서를 활용한 학위논문은 석사논문 177개, 박사논문 19개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확인과정을 통해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실시될 조사에서는 그 학술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술대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처음 실시된 후 현재 제8차년도 조사까지 완료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는 매년 2월 초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2007년 2월 현재 제8회까지 진행되었다. 완성단계의 패널자료를 생산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학술대회에서는 1차적 데이터 클리닝이 진행된 (전년도)패널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술대회 참가자는 이를 통해 생생한 데이터를 보다 빨리 손쉽게 접하여 활용할 수 있고, 기관의 경우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에러의 심화체크가 가능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패널 역시 2003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통하여 자료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의 모색도 요구된다. 학술대회 이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한국노동패널데이터, 사업체패널데이터,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는 코드북과 유저가이드 무료다운로드 및 구입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데이터 무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노후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만들기』, 2007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목표와 비전』, 2004.
- 고양곤·김동배·임춘식·모선희·원영희·이금룡·박준기,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2001, pp.147-166.
- 고효진·최지욱·이홍표,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006, pp.315-328.
-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II)』,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 및 보건복지부, 2004.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7.
- 국토개발원,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2007.
- 김 옥,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2002, pp.97-118.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영숙·김명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전문대학 논문집』, 24, 1996, pp.33-56.
- 김완석·김영진,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

- 리학회지: 사회문제』, 3(1), 1997, pp.61-81.
- 김의숙, 2001, 「저소득 노인의 우울에 관한 내러티브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돈·남철현,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3(2), 1997, pp.173-192.
- 김창수·정성덕, 「불안·우울 통합척도의 임상적 적용」, 『신경정신의학』, 28(6), 1989, pp.1000-1008.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II)」, 『한국노년학』, 19(1), 1999, pp.61-81.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998, pp.150-169.
-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2002, pp.159-172.
- 박경숙,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2003.
- 박병식, 「국정운영 평가시스템의 재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2003.
- 박성복, 「노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삶의 질」, 『한국정책학회보』, 6(2), 1997, pp.153-172.
-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4.
- _____,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7.
- _____,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병관리본부, 2006.
- 보건복지부·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

- 서미경·김혜련·서동우·선우덕·신윤정·최은진·최정수·황나미,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석재은, 「노인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2000, pp.51-78.
- 석재은·김태완, 『노인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선우덕·석재은·최병호·신윤정·원장원·노용균·김옥수·조소영·임정기·이윤경·유원선,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노인기능평가도구의 개발·적용, 시설기능 재정립 및 재원운용계획 중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선우덕·정경희·오영희·조애저·석재은,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신승철·김만권·윤관수·김진학·이명선·문수재·이민준·이호영·유계준,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4), 1991, pp.752-767.
- 염형욱·정성덕·서완석·구본훈·배대석, 「노년기 영성과 불안·우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영남의대학술지』, 22(1), 2005, pp.27-42.
- 오승환·윤동성,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2006, pp.119-147.
- 원영희,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8, 1996, pp.77-90.
- _____,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2004, pp.187-206.

- 이가옥, 권중돈, 권선진, 안혜영, 정운자,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 이금룡,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2005, pp.143-159.
- 이삼식·정경희·신인철·김정연,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승미, 『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이형석·김도관·고혜정·구형모·권의정·김지혜, 『노인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2003, pp.859-881.
- 장하진·박영란, 『고령화 시대의 여성정책』,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 자료집』, pp.89~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주최, 200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06a.
- _____,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b.
- 전경구·이민규,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992, pp.65-76.
- 정경희,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2, 2001, pp.31-40.
- _____,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2002, pp.29-40.
- _____,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2002, pp.67-73.

- _____,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저출산고령
사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저출산·고령사회의 미래와 비전』 정책
포럼 자료집』, 2007. 10. 8.
- 정경희·김미혜·정순들·이윤경,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정경희·오영희·이윤경,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3.
- 정경희·이윤경·오영희·김상철·노명우·박신영·설재훈·방효정, 『고령화 수준
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용찬·변재관·문현상,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정경희·조애저·오영희·선우덕,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
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정영숙, 『노인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 및 예
비노인 집단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0(1), 1999, pp.43-107.
- 정인파·곽동일·신동균·이민수·이현수·김진영,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997,
pp.103-112.

- 정인과·곽동일·조숙행·이현수,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7(2), 1998, pp.340-351.
- 조남훈·김태현·이삼식·오영희·김용현·김정석·구성열·선우덕·은기수·장혜경·정경희·김승권·강혜규·이숙진·김경래·유혜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조맹제·김계희,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1993, pp.381-399.
- 조맹제·박임순·신영민·김무진·정희연·정은기·최용성·조성진·서국희·함봉진, 『노인정신장애 평가척도(Psychogeriatric Assessment Scale)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9(1), 2000, pp.128-141.
- 조추용,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2003, pp.7-34.
- 진기남·이규식, 『노인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질』, 『노건과 사회과학』, 6·7, 2000, pp.35-53.
-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 5개년계획』,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최상진·양병창,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2001, pp.59-76.
-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 1986, pp.233-258.
- 최성재,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최순인, 『입원 노인 환자의 영적 안녕과 우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2.

통계청, 『고령자 사망원인 분석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05.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a.

_____, 『도시가계조사』, 2007b.

_____,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c.

한경혜,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1998, pp.46-58.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6, <http://www.klosa.re.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2007 노인일자리사업 매뉴얼』, 2007.

한형수,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2004, pp.113-142.

허준수·유수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2002, pp.7-35.

홍현방,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05, pp.203-235.

日本 内閣府, 『高齢社會白書』, 平成 16年版

日本 總務廳, 『高齢社會白書』, 平成 10年版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齢社會對策室, 『高齢者の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中央法規, 1997.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齢社會對策室, 『高齢者の 生活과 意識』, 第4回 國際比較調査結果 報告書, 中央法規, 1997.

日本 厚生勞動省, <http://www.mhlw.go.jp/toukei/>

AARP, *The Grandparent Study 2002 Report*, 2002.

- AARP, *The State of 50+ America*, 2007.
- B. J. Small, Y. Jang & W. E. Haley, "Cross-cultural comparability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comparison between older Koreans and older Americans," *Aging and Mental Health*, 5(1), 2001, pp.31-37.
- Canter, M. H., "The Informal Support System: Its Relevance in the Lives of the Elderly", pp.131-144, in Borgatter, E. and MaCluskey, N. (Eds.), *Aging and Society*, Berverly Hills, CA:Sage, 1980.
- Cantor, M. H. & V. Little, "Aging and Social Care", in R. H. Binstock & E. Shanna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ition)*, NY., 1985, pp.745-780.
- Cantor, M. H.,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1979)", *Research on Aging*, 1, 1979, pp.435-463.
- Cherlin, A & Furstenberg, F., "The Modernization of Grandparenthood", in Skolnick and Skolnick (Eds.), *Family in Tradition*, pp.105-112, 1987.
- Cox, Donald and George Jakubson,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 1995, pp.129-167.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eion", *the second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trieved from

<http://www.cdc.gov/nchs/about/about/otheract/aging/lsoa2.html>

- Dorahy, Martin J., Christopher Alan Lewis, John F. schumaker, Robert Akuamoah-Boateng, M. C. Duze, & Thokozile E. Sibiya,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ustralian, Ghanaian, Nigerian, Norther irish and Swazi Universu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4), 2000, pp.569-580.
- Farns van Dijk, "Private Support and Social Secur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1998, pp.345-371.
- Friedman, Bruce, Marnin J. Heisel & Rachel L. Delavan, "Psychometric Propeties of the 15-Item Geriatric Depression Scale in Functionally Impaired, Cognitively Intact, Community-Dwelling Elderly Primary Care patients,"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3, 2005, pp.1570-1576.
- Goldscheider, F. K. & C. Goldscheider,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in F. K. Goldscheider & C. Goldscheider (Eds.),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Boulder, CO: Westview, pp.185-197, 1989.
- Gronovetter, M. S.,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P. Marden &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1982.
- Hareven, T. K., "Changing Images of Ag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Life Course", pp.119-134, in Featherstone, M. and Weernick, A. (Eds.), *Images of Aging*, Routeledge, 1995.

- Houser, S. & L. Kahn,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pp.83-108, FL: Academic Press, 1985.
- ICPSR, *Americans' Changing Lives: Waves I, II, III, and IV*, 1986, 1989, 1994 and 2006, 2007.
- Japan Aging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jarc.net/aging/jp/04jan/index.shtml>
- Kadushin, C., "Social Density and Mental Health", in P. Marsden and N. L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pp.147-158 CA: Sage, 1982.
- Laws, Gloria,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1), 1995, pp.112-118.
- Lelito, R. H., L. O. Palumbo & M. Hanley,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brief geriatric depression screen," *Aging and Mental Health*, 5(4), 2001, pp.387-393.
- Litwak, E.,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Y, 1985.
- Magrabi, F. M., Y. S. Chung, S. S. Cha, & S. J. Yang,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cations, 1991
- Michell, Deborah, *Income Transfers in Ten Welfare States*, Avebury, 1991.
- Palmore, E. B., L. Branch & D. K. Harris (Eds.), *Encyclopedia of Ageism, the Haworth Pastoral Press*, 2005.
- Perreira, Krista M., Natalia Deeb-Sossa, Kattleen Mullan Harris, & Kenneth A. Bollen, "What Are We Measuring? An Evaluation of

the CES-D Across Race/Ethnicity and Immigrant Generation," *Social Forces*, 83(4), 2005, pp.1567-1602.

Rainwater, Lee, Martin Rein, & Joseph Schwartz, *Income Packaging in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Income*, Clarendon Press, 1986.

Rein, Martin & John Turner,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2(3), 1999, pp.93-106.

Rowe, John W. & Robert L. Kahn, *Successful Aging*, NY: Random House, 1998.

Silverstein, M. & V. L. Bengtso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1997, pp.429-460.

Simpson, Paul L., J. F. Schumaker, M. J. Dorahy, & S. N. Shrestha,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Nepal and Australi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6), 1996, pp.783-790.

Templer, D. I.,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970, pp.165-177.

United Nations,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University of Wisconsin-Institute on Aging, *Documentation of Scales in MIDUS I*, 2004.

Wellman, B. & Berkowitz, S. D., *Social Structure: A Network Approach*,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부 록 】

- 부록 1. 국내 주요 노인 대상 전국조사 설문내용 비교
- 부록 2. 특정 영역의 노인 관련 전국조사 설문내용
- 부록 3. 일부 노인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타 전국 조사의
설문내용
- 부록 4. 2004년도 조사 무응답률 0.5% 이상 조사항목
- 부록 5. 조사표 개선안 개요
- 부록 6.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활용 논문

부록 1. 국내 주요 노인 대상 전국조사 설문내용 비교

〈부표 1-1〉 국내 주요 노인 대상 전국조사 비교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1) 노인의 일반특성	- 교육수준, 해혼연령	-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 배우자연령, 교육 등 - 종교	- 혼인관계
2) 가족관계	-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의 성, 형제·자매순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유무, 배우자의 취업유무, 거주거리, 접촉 및 연락빈도 - 노인(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건강상태, 접촉 및 연락 빈도 - 손자녀 수 접촉 및 연락빈도 항목 - 친척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 친인척과의 친밀성 - 현존자녀수, 자녀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지리적 거리, 접촉정도, 경제적 의존/지원여부 및 정도 - 손자녀수 - 돌보는 손자녀 여부, 돌봄시간 - 형제자매수, 성, 관계, 연령, 혼인상태	- 자녀관계 ▪ 생존자녀, 경제적 도움자녀, 손자녀, 손자녀 육아 등 - 부모관계 ▪ 생존부모, 건강상태, 경제상태, 동거여부, 간병여부 등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 수와 접촉 및 연락빈도	-부모 기본정도, 동거여부 -자녀동거여부, 부모와의 근접성, 접촉빈도, 경제적 상호도움	
3) 가구형태	-가구형태 ▪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 별거 이유 및 기간 ▪ 현재의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유		
4) 직업 및 경제상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고용현황 ▪ 현재 종사 직업, 근무형태, 근무시간, 종사기간, 이직고려 여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을 그만둔 시기와 이유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취업 희망 여부와 그 이유 -이직을 고려하는 노인의 고용욕구 ▪ 구직활동 여부 및 경로, 구직활동을	-현재 고용상태(노동여부, 주된일자리, 노동제한 원인, 구직활동, 노동경험, 은퇴) -사업장(사업체이름,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취업시기 -개인 일자리에 대한 사항 ▪ 일의종류, 직위/직책, 임명시기, 관리직원수	<지출> -가구지출 ▪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내구재 구입비, 자녀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기타 가구원의 가구 소득 ▪ 취업여부, 주된일자리, 근로소득, 부업소득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4) 직업 및 경제상태	<p>하지 않은 이유, 희망 근무형태, 일자리 고려 시 우선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정부지원 사업 - 장기간 종사한 직업 - 주관적 경제상태, 월평균 이용 용돈 -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삭제 - 수입원, 수입액 ▪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기타 사회보험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친인척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참전명예수당, 기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상용, 임시, 일용직) ▪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 ▪ 현재 직장에 대한 기대 (노동지속가능성, 기간) ▪ 임금의 출처 ▪ 은퇴/퇴직(공식적 정년, 정년연령, 관행적 퇴직 및 연령) ▪ 근로시간, 근로일수 ▪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근로소득, 시간조정) ▪ 정기휴무 ▪ 임금결정방식/월평균 임금액 ▪ 4대보험 ▪ 노동조합 ▪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향후 희망일자리 ▪ 은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급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여부 및 총계, 봉급/보너스 소득, 농림어업 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 금융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적금 이자/국공채권의 이자, 주식등의 배당금, 주식 매매 이익, 사적으로 빌려 준 돈에 대한 이자 - 부동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세, 각종임대료, 부동산 매매 이익, 권리금, 기타 부동산 소득 - 사회보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4) 직업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업 및 아르바이트 - 근로소득(임금소득, 자영업 소득, 농어업 소득, 부업소득) - 연금소득(국민연금소득, 특수직역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 사회보장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장소득여부 및 종류 ▪ 실업급여, 산재급여 및 보상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일반/자활 급여) ▪ 보훈연금급여 ▪ 사회복지수당 급여 - 기타 수입 및 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원의 총 소득 - 거주주택(소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소유, 임대/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 현금지원금 및 현물지원금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족지원금, 비동거가족 지원금, 친인척지원금, 이혼전 전배우자 지원금,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기타 - 현금지원금 및 현물지원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족지원금, 비동거가족 지원금, 친인척지원금, 이혼자 전배우자 지원금,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 종업원퇴직보험 및 개인연금등의 정기적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퇴직보험, 개인연금보험 및 개인연금 저축, 기타 정기적 수입 -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나 상속, 기타 소득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4) 직업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농장 -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현금 및 은행예금, 저축성예금, 주식/투신/뮤추얼펀드, 채권) ▪ 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 빌려준 돈, 껌돈, 기타 금융자산 - 기타자산(운송수단, 기타 비 금융자산) - 상속/증여, 부채, 가구원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등 예적금 저축, 적립식펀드 납부금, 개인연금저축 및 저축성 보험료, 보험기관 총 납부보험료, 기타 계납입금 등 저축, 저축목적 - 개인의 근로 및 소득활동 여부 - 개인의 주된 일자리 <직장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내용, 하는 일, 종업원수,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근무기간, 월평균소득 - 현재 일자리 직전의 근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일자리,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근무기간, 중단이유, 1년 평균 근로개월수, 월평균소득, 퇴직금 -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 적용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4) 직업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현재 일자리의 퇴직금 제도 및 정년제 적용 ▪ 퇴직금수령, 중간정산, 수령가능액, 사용처, 정년적용여부 및 정년년도 <p><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내용, 하는 일, 사업특성, 전체 종업원수, 사업기간, 월평균소득 - 현재 일자리 직전의 근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경험,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근무기간, 중단이유, 1년 평균 근로개월수, 월평균소득, 퇴직금 -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4) 직업 및 경제상태			<p><비취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1년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 경험여부 - 근로 및 소득활동 마지막 년도 - 마지막 직장 근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일자리,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종업원수, 고용형태, 종사상 직위, 근무형태, 근무기간, 퇴직이유, 월평균소득, 퇴직금 - 마지막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일자리 근로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내용, 했던 일, 사업특성, 전체 종업원수, 사업기간, 월평균소득 - 마지막 일자리 이전 근로경력 - 자산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 임차주택, 사업체, 기타부동산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4) 직업 및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등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총불입액, 보험, 저축, 신탁, 주식 우리사주 포함/주식형 적립펀드, 회사채, 국공채등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 타지 않은 계돈 등, 기타 금융자산 - 기타자산의 가치 총액 - 주채무 잔액
5) 부양의 교환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부양 주/부 제공자, 수혜자 - 도구적 부양(간병/수발,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시장보기, 교통편의) 주/부 제공자, 수혜자 추가 - 정서적 부양 주/부 제공자, 수혜자 - 부양의 충분성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L 어려운 사람, 간병수발자, 수발시간, 수발기간, - IADL 어려운 사람, 수발시간, 수발기간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6)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증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연여부, 음주빈도, 운동여부, 빈도 및 종류, 규칙적 영양섭취 여부, 독감 예방 접종 여부, 건강검진 여부 및 이용 경로 -낙상사고 경험 및 장소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명, 의료비 부담정도, 질병으로 힘든 점,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종류 -약 복용 또는 건강식품 섭취 유무 및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건강상태 -의사의 장애판정, 장애종류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 제한 -만성질환 진단여부, 진단시기, 약복용, 치료활동, 일상활동 어려움 -교통사고 외상, 낙상 및 골절, 비뇨기관질환, 안과 -통증부위, 부위별 통증정도, 일상활동 어려움 -기타 질병 및 건강문제 -신체계측(체중, 신장) -운동(여부, 빈도, 시간, 규칙적 시간) -영양(식사여부) -흡연(흡연력, 흡연여부, 흡연량 등) -음주(음주습관, 기간, 종류, 량) -우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6)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장과 시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장 종류 ▪ 건강보험료 부담자,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체납기간 ▪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보험수, 보험료 ▪ 건강검진 - 의료시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횟수, 기관, 기간, 비용, 간병인, 간병일수 및 시간, 간병비용 지불액) ▪ 치과 ▪ 보건소, 한방병원, 기타 외래진료 ▪ 처방약(정기적 처방약 복용, 처방약값 지불비용) ▪ 기타 의료기구(구입, 지불비용)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7) 기능상태 및 수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력, 청력, 씹기, 걷기 상태 및 보조기 사용여부, 보조기 착용시 상태 -ADL, IADL -간호처치 경험 유무 -수발자와 노인과의 관계, 성, 연령, 수발기간, 수발시 어려움, 수발내용별 평균 빈도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이용 여부, 장래 서비스 이용욕구 및 희망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능력(ADL) -도구적일상생활능력(IADL) -인지기능(지남력, 기억력, 소지품의 용도, 따라 말하기, 명령수행) -신체기능측정(악력측정, 부축여부) -일상생활수행을 위한간병수발자(간병자, 관계, 간병일수, 시간, 비용지불 여부) -둘째, 셋째, 간병수발자 -간병비용, 간병비용 지원자 -미래에 가능한 간병수발자유무, 응답자와의 관계 	
8)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보람을 느끼는 여가활동 -단체 활동 -평생교육참가경험, 향후 참가의향 여부, 선호프로그램, 실시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활동참여여부 및 정도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참가경험 및 참가의향, 희망 빈도 및 종류 - 컴퓨터 이용여부, 필요성, 정보화교육 참가 의향 		
9)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서비스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사업 ▪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 노인여가서비스 ▪ 기타 노인우대제도로 정리하여, 각 범주에 속하는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 여부 및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 희망여부 - 경로당 이용 욕구에 관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의 이용여부와 빈도, 이용 만족도와 그 이유,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상황(유산증여, 유산상속, 예상 근로기간, 앞으로의 근로활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 - 연령별 기대수명 - 생활수준 및 정부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자녀의 사회·경제적 수준, 노후보장, 남북통일, 경기불황, 부동산 시장 안정, 소비성향)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수당 예산의 용도변경 및 차등지급에 대한 의견에 대한 항목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사 		
10)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시기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노후 부모부양(자)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노후생활비 대책 -재산보유에 대한 태도 -노후의 시간활용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책 여부, 종류,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건강 악화 시 선호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만족도(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자녀 관계, 상대적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여부 및 은퇴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근로 경험여부 및 은퇴유형, 은퇴시기, 향후 예상 은퇴시기, 완전·부분·자발적 은퇴여부, 은퇴당시 상황, 은퇴결정 원인, 은퇴의 나쁜점 및 좋은점 경험정도, 은퇴후 생활 만족도 -노후준비 및 노후보장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및 저축 고려기간, 기대수명, 공적연금 개정방향, 노후생활비,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조사내용	노인실태조사(2004년)	기타 노인(고령자) 관련 조사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상속 여부, 계기, 방식, 계획 -삶의 만족도 -노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종업원 퇴직보험, 노후준비 연금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11)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노인 개인방 소유 여부 -생활환경의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방, 부엌, 화장실, 목욕탕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외출시 불편을 주는 환경 		

부록 2. 특정 영역의 노인 관련 전국조사 설문내용

〈부표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

구분	설문내용
가구용	<p>< 가구 일반사항 > - 가구주와의 관계 - 성별, 태어난 년도 - 장애종류 및 등급, 중복장애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p> <p><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인식여부, 신뢰도, 상담, 신청여부 -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급 가구원 및 월평균 수급급여 - 생계 어려울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 및 도움</p> <p><사회정책 관련 의식과 태도> - 사회정책 관련 의식 및 태도</p> <p><가구재정 여건> - 지난 1년간 저축의 주목적 - 현 가구부채의 이유 및 금액비율 - 주관적 빈곤정도 - 과거 빈곤경험 - 과거 2년간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 - 향후 2년간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p> <p><금융소외> - 지난 10년간 신용불량 경험 - 신용불량 판정전 대출상환시도 - 가구원 신용불량상태에 대한 태도 - 신용불량 가구원의 판정시점 및 현재상태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경험 유무, 시점 및 승인여부, 태도, 신청안한 이유, - 신용불량 문제에 중요한 정부대책</p> <p><기타 가구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 주생계책임자의 교육수준, 직업 - 별거 가족구성원 - 경제적 형편이 나은 가구의 가구원 ▪ 가구원, 월평균 소득, 총재산액, 물질적 지원/금액/이유 -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p>

구분	설문내용
	<p><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위치(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 방개수, 전용면적 ▪ 구조·성능 및 환경 ▪ 주거시설의 종류 및 사용형태 ▪ 난방방법, 난방비용 - 이사횟수 및 이유 - 주택선택시 고려사항 -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 정부의 주택문제 우선과제 - 장애인·노인 가구원을 위한 주거시설 <p><건강(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가구원 및 질병 - 입원한 가구원, 입원일수, 입원비용 - 입원 가구원 간병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여부, 기간, 비용, 이용하지 않은 이유 - 의료기관 외래방문한 가구원, 기간, 의료비용 - 지난 1년간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가계부담, 총당방식 - 의료치료 제약 및 중단경험, 이유 - 지난 1년간 보건소 이용여부, 이유 - 40세 이상 가구원 건강검진·장소·비용 <p><평생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프로그램명, 운영이관, 수강료부담주체, 월평균 수강료 <p><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및 문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내 주여가생활, 희망여가생활 ▪ 여가생활 함께 하는 사람 ▪ 여가생활관심 및 비중 ▪ 상대적 여가생활 수준 ▪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문화생활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참여가 어려운 원인, 정보원 - 여가 및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구분	설문내용
	<p><자녀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고교 졸업 후 진로 - 자녀 교육비 마련의 어려움 - 자녀 교육비 마련방법 - 자녀의 대학진학 희망여부 및 그 이유
아동가구원용 (만18세 미만)	<p><아동(만18세 미만) 공통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건강 및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일상생활 제약여부, 식사여부, 끼니 거르는 이유 -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 가능한 자녀교육수준 - 월평균 사교육비 - 병원치료 안전사고 경험 - 자녀의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p><미취학 자녀(만6세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 및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형태 및 금액 ▪ 보육문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친인척이 돌볼경우 월평균 금액 - 아동양육 복지육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시설 희망여부, 희망시간대, 시설형태 및 이유, 장애요인 ▪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도움 <p><초·중·고생 자녀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교육 및 진로관련 활동 - 자녀의 학교에 대한 태도 <p><초등학생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방과후 시간 보내는 곳 -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도움 -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자녀의 학업성취도 <p><중·고등학생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도움 - 자녀의 학업성취도 - 자녀의 무단결석 및 등교거부 경험
노인가구원용 (만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수행능력 - 노인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여부, 주부양자, 간병비용, 가족구성원의 어려움

구분	설문내용
노인가구원용 (만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복지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간병인, 가정 및 시설 내 수발시간, 간병비 지불 용의 및 금액 - 운동여부 -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종사여부, 근무시간, 소득, 만족도, 일 안하는 이유, 향후 지속여부 - 자원봉사경험유무 - 사회단체참여유무
장애인가구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능력 - 장애인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주 부양자, 부양비용, 다른 가구원들이 겪는 어려움 - 장애인 복지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부양자, 도움시간, 비용지불 용의 및 금액 - 활동보조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요부, 이용경험, 이용의사, 비용지불 용의 - 장애인가구원 지원사업의 이용경험

〈부표 2-2〉 국토개발연구원 「2007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 가구주’,
‘노인가구 노인개인’

구분	설문내용
노인가구 가구주	<p><가족 및 가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결혼여부, 동거여부 - 노인동거이유 <p><주거 및 경제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 소유여부, 거주기간, 면적, 건설년도 ▪ 주택 방수, 시설별 사용형태 및 종류, 노후정도, ▪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여부 및 필요성여부 -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세 및 임차료 ▪ 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 ▪ 가구자산, 가구부채 ▪ 기초생활수급여부 <p><배경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소득유무
노인가구 노인개인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자녀 ▪ 독거 및 자녀 별거기간, 자녀와 거주거리, 동거 희망자녀 - 가족구성원별 만족도 - 이웃과의 친분정도 <p><노후 생활 및 경제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경제, 배우자, 자녀, 삶의 질 -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여부, 종사직업, 근무형태 ▪ 일을 하는 이유 및 만족도 ▪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경로, 취업희망여부, 희망근무형태, - 소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p><주택 및 주거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개인방 사용여부, 주택시설 만족도 ▪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유무, 안전사고 원인

구분	설문내용
노인가구 노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개조 욕구 및 희망공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불만 이유 ▪ 주요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희망소요시간 <p><상황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형태, 지역, 생활양식, 시설, 비용, 면적, 그 이유 및 고려사항 - 노인주택 적정층수 - 노인주거단지 구성방식 <p><역모기지 및 주택연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모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여부, 주택소유여부, 활용의향 및 이유, 예상효과, ▪ 역모기지 정착을 위한 중요사항 - 주택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연금 인지여부, 활용의향 -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정부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구입융자, 전세금융자 ▪ 월세보조, 주택 개보수 보조 ▪ 노인전용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일반분양주택 우선권 ▪ 3세대 동거형 주택,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생계비보조 <p><건강 및 여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수행능력 ▪ 건강유지활동 - 간호 및 수발 경험 및 대상, 향후 희망수발대상 -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주된 활동, 즐거운 활동 ▪ 자원봉사활동 분야 - 가장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 - 지역사회 제공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사회적, 주거지원 서비스 <p><배경문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부표 2-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07

구분	설문내용
고령층 부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무기간 ▪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이직시기 ▪ 이직사유 -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취업의사 ▪ 일자리 선택기준 ▪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희망임금수준

부록 3. 일부 노인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타 전국 조사 설문내용

〈부표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

구분	설문내용
가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년월일,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결혼상태, 학력 - 직업 및 종사상 지위 - 건강보험 가입여부, 월 지역의료보험료 -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이유·금액 - 월평균 가구총소득, 총가구원수
성인용 건강면접조사	<p><이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지난 2주간 아팠던 날 및 치료받은 날 - 지난 1년간 앓거나 앓고 있는 질환, 의사진단여부, 완치여부 - 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 관절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부종경험여부, 부종경험일, 통증유무, 관리교육 - 당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혈당조절 방법, 안저검사 여부, 소변검사 여부, 관리교육 - 고혈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약물복용 여부, 혈압측정회수, 혈압조절상태 - 고지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약물복용 여부, 마지막 측정시기 - 뇌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후유증 경험여부, 후유증 유형, 재발방지 진료 - 심장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최초 심장발작, 약물복용 여부, 재발방지 진료 -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약물복용 여부, 치료기관 - 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약물복용·흡입 여부, 천식·발작여부, 응급진료 횟수, 관리교육 - 만성폐쇄성폐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기침(담) 경험 및 연속년수, 약물복용·흡입 여부 ▪ 빨리걸거나 오르막에서의 호흡, 폐렴예방접종 여부

구분	설문내용
	<p><활동제한 및 삶의 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및 손상으로 누워 있던 날 - 질병 및 손상으로 결석·결근했던 날 - 기능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이상, 청력이상, 청력보조기구 사용 ▪ 지난 1년간 음식을 씹기 힘들었던 경험 - 활동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활동 제한여부, 활동제한의 이유 및 기간 - 장애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여부, 등록장애유형, 등록장애급수 ▪ 지난 1년 대비 오늘의 건강상태 <p><사고 및 중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받은 사고 및 중독 <p><의료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지연 및 제한, 그 이유 - 의료이용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외래서비스, 약국, 의료용구 ▪ 한방서비스 및 향후 이용여부
아동 및 청소년 건강면접조사표	<p><이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아프거나 불편했던 날 -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날 - 질병 진단여부 - 당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혈당조절 방법, 안저검사 여부, 소변검사 여부, 관리교육 - 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약 복용·흡입여부, 천식·발작여부, 응급진료횟수, 관리교육 -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나이, 약물복용 여부, 결핵 치료기관 - 전문가 발달장애 진단여부 및 기관 - 전문가 학습장애 진단여부 - 감정, 집중력, 행동, 사회성 등의 주관적 판단 및 전문가 판단 <p><활동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이나 손상으로 하루종일 누워서 보낸 날

구분	설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이나 손상으로 결석 및 결근을 했던 날 - 청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력이상여부, 청력보조기구 사용여부 - 시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이상여부, 전문가의 시력진단, 시력교정 및 치료여부 - 보행제약 여부 - 활동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 문제로 사회활동 제한여부, 활동제한 이유 및 기간 - 장애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록여부, 등록장애 유형, 등록장애등급 <사고 및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및 중독 경험 <아동의 건강행태(만12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여부 - 교통안전 - 구강보건 - 비만 및 체중조절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의 제한이나 지연, 그 이유 - 의료이용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이용여부(입원이용조사표) ▪ 외래서비스 이용여부(외래이용조사표) ▪ 약국 이용여부(약국이용조사표) ▪ 의료용구 구입여부(의료용구조사표) ▪ 한방관련서비스 이용여부 및 향후 이용여부 <아동에 관한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 기본정보
<p>성인용 보건 의식행태 (만19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 음주 - 비만 및 체중조절 - 정신건강 - 휴식 - 신체 활동 및 운동 - 구강건강 - 건강검진 - 안전의식

구분	설문내용
청소년용 보건의식행태 (만12-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및 운동 -휴식 -정신건강 -안전의식 -음주 -흡연 -구강건강

〈부표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구분	실문내용
가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 가구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가구소비 -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재산(동산+부동산), 가구부채 및 원인, 가구경제의 어려움, 경제자립 정도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p><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년월일 - 혼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날짜, 초혼여부 및 초혼날짜, 이혼/별거/사별 날짜 및 이유 ▪ 이혼/별거 제의자, 미성년 자녀유무, 현 자녀 미성년유무 ▪ 미성년 자녀 주양육자, 양육비 제공자 및 기관 <p><가족주기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출생아수(현존, 사망), 자녀 연령 및 생년월일, 성별 - 자녀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자녀수, 혼인당시 자녀나이, 부모나이, 자녀 혼인희망 나이 - 가족주기단계 <p><응답자와 배우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전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장유형, 근무지속 여부, 그만둔 시기 및 이유 - 배우자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부, 취업기간, 종사상 지위, 직장유형, 평균근무시간 ▪ 월평균 근로소득, 일하는 이유, 근무만족도 ▪ 일-가정 양립애로사항, 근무지속 여부 - 일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취업희망여부 및 이유 <p><가족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부모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여부, 동거여부, 접촉 및 연락 빈도 ▪ 연령, 혼인상태, 교육, 취업여부, 건강상태 ▪ 교환관계(신체·정서·경제적)

구분	설문내용
	<p><가치관 및 가족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p><가족생활의 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 - 가족생활 변화 및 이유 - 가족의 사회적 지위 - 가족생활 만족도 <p><가족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제의 책임 - 우선순위 가족정책 - 건강가족을 위해 중요한 점 - 정부 우선정책

부록 4. 2004년도 조사 무응답률 0.5% 이상 조사항목

〈부표 4-1〉 2004년 무응답률 0.5% 이상 조사항목표

항목	무응답률(%)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의 배우자 직업	0.5
기혼자녀와 별거시작 월	0.8
총 종사기간(월)	1.5
최근 퇴직 월	0.8
총실업기간(개월)	0.7
평생교육 미 참여 이유	1.4
자원봉사활동: 향후 참여빈도	0.9
교통수당 폐지	0.6
교통수당 차등지급	0.6
노인수발 관련 정책	1.3
사회적 관심사	1.4
노인 이미지(건강)	0.3
노인 이미지(지적)	2.0
노인 이미지(정서적)	1.7
노인 이미지(경제적)	0.8
노후생활비 마련	0.5
재산 보유 여부	0.2
재산 상속 시기	0.6
재산 상속 방법	1.4
삶의 질(행복감)	0.5
우측상지 마비	0.1
좌측상지 마비	3.0
우측하지 마비	4.7
좌측하지 마비	4.8
어깨관절	3.1

항목	무응답률(%)
팔꿈치관절	3.0
손목 및 수지관절	3.0
고관절	6.4
무릎관절	4.3
발목관절	4.1
마비 및 구축 검사확인	0.4
검사 미시행 이유	0.5
체중 (kg)	7.6
체중 측정여부	0.6
신장 (cm)	3.0

부록 5. 조사표 개선안 개요

1. 가구조사

1. 가구의 일반특성

<가구원 사항>

- 1-1. 가구원 성명
- 1-2. 가구주와의 관계
- 1-3. 성별
- 1-4. 연령
 - 1-4-1. 생년월일 및 띠
- 1-5. 결혼상태
- 1-6. 노인과의 관계

<가구주의 일반특성>

- 1-7. 가구주의 형제·자매 순위
- 1-8. 생존 형제·자매기준
 - 1-8-1. 장남·장녀 여부
- 1-9. 가구주의 교육수준
- 1-10. 취업여부
- 1-11. 종사상 지위

<주택소유여부 및 경제상태>

- 1-12. 가구의 주택소유여부
 - 1-12-1. 소유주 구분
 - 1-12-2. 주택가격
- 1-13.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소유 여부
- 1-14. 금융 자산/금액
- 1-15. 수입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여부 및 금액

- 1-15-1.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금액
- 1-15-2. 개인 재산소득/금액
- 1-15-3. 개인 금융소득/금액
- 1-15-4. 개인 연금소득/금액
- 1-15-5. 공적이전소득/금액
- 1-15-6. 사적이전소득/금액
- 1-15-7. 기타소득/금액
- 1-15-8. 월 총 가구소득(계)
- 1-16. 현재 가구의 생활정도(주관적 계층의식)
- 1-17.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2. 가구주의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 2-1. 가구주 부모 및 가구주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
 - 2-1-1. 부모의 건강상태
 - 2-1-2. 동거여부
 - 2-1-3. 부모 건강악화 시 수발 계획
- 2-2. 비동거 부모에 대한 부양실태
 - 2-2-1. 신체적 부양실태
 - 2-2-2. 경제적 부양실태
 - 2-2-3. 정서적 부양 실태
- 2-3. 부모님 동거 및 별거 동기, 어려움
 - 2-3-1.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 부모의 거주형태
 - 2-3-2. 가구주가 기혼으로 부모와 동거중인 경우
 - 2-3-2-1. 동거기간
 - 2-3-2-2. 동거이유
 - 2-3-2-3. 동거상의 어려움
 - 2-3-3. 가구주가 기혼으로 부모와 별거중인 경우
 - 2-3-3-1. 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부모/배우자의 부모)
 - 2-3-3-2. 부모와의 별거 이유(부모/배우자의 부모)

2-3-3-3. 현재 부모의 주거형태(부모/배우자의 부모)

3. 노인 및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3-1. 노인이 되는 시기
- 3-2.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 3-3.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 3-4. 연령차별에 대한 인지
 - 3-4-1. 가족내의 연령차별
 - 3-4-2. 고용상의 연령차별
 - 3-4-3. 사회 내의 연령차별
- 3-5. 고령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3-6. 세대관계
 - 3-6-1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 3-6-2. 부모에 대한 책임의 범위
 - 3-6-3. 노후의 자녀부양에 대한 태도
 - 3-6-4. 관심을 두는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관계 중)

4. 노후준비

- 4-1. 노후 생활에 대한 계획 유무
 - 4-1-1. 계획을 세운 경우 계획의 내용
 - 4-1-2. 세우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4-2. 노년기 이전의 경제적 노후대책 마련 유무
 - 4-2-1. 마련한 경우 대책의 내용
 - 4-2-2. 마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4-3. 건강 악화시 생활대책
- 4-4. 거주(주거) 관련 노후준비: 현재의 거주형태의 유지 여부
 - 4-4-1. 변경할 예정인 경우, 그 내용

※ 참고 1: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한국형 연령규범: 이금룡, 2006)

하위영역	연령규범 문항
일	노인은 발전하는 신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젊은이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젊은이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노인들은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없어진다
가족	노인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과 함께 사는 것은 손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노인은 필요이상 가족문제에 관여해서는 않된다 노인은 손자녀 양육 및 가사일을 도와주어야 함 노인은 가족안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어 살아간다 노인들은 자녀들의 도움없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성/혼인	노년기에 성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노년기에 혼자가 될 경우, 주변사람들을 생각해서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노년기 이성교제는 삶의 활력이 된다 노년기 이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욕구와 성적기능이 없어진다
세대 교류	노인도 시대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과 젊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현대와 맞지 않다
사회 활동	평생을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에 사회활동은 즐기고 자신을 위해서 쉬어야 한다 노년기에 집에만 있으면 빨리 늙고 건강에 좋지 않다 사회활동보다 손자녀들의 뒷바라지가 우선이다 노인들에게는 여가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일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노인이 되면 사회활동 영역이 줄어든다 노인이 되어도 공부해야 하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 노인이 즐길만한 노인문화가 없다 노년기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노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면 주변사람들에게 눈치 보인다
성역할	대부분의 노년기 사회활동은 남성노인에게 더 적합하다 노년기 여가활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활발하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들보다 가족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한다 여성노인들은 성인자녀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손자녀를 돌봐야 한다

II. 노인 개인조사

1. 일반특성

1-1. 노인의 일반특성

1-1-1. 교육수준

1-1-2. 해혼연령

1-2. 배우자의 특성

1-2-1. 배우자 교육수준

1-2-2. 배우자 건강상태

1-2-3. 배우자 근로형태

2.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1. 생존자녀 수

2-1-1. 동거여부별 생존자녀 수

2-1-2. 성별 생존자녀 수

2-1-3. 결혼상태별 생존자녀 수

2-2. 접촉이 많은 자녀

2-2-1. 성

2-2-2. 형제·자매순위

2-2-3. 연령

2-2-4. 결혼상태

2-2-5. 교육수준

2-2-6. 근로형태

2-2-7. 배우자의 근로형태

2-2-8. 자녀 거주지까지의 소요시간

2-2-9. 방문빈도

2-2-10. 연락빈도

- 2-3. 노인본인 부모와의 관계
 - 2-3-1. 생존여부
 - 2-3-2. 건강상태
 - 2-3-3. 방문빈도
 - 2-3-4. 연락빈도
- 2-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2-4-1. 생존여부
 - 2-4-2. 건강상태
 - 2-4-3. 방문빈도
 - 2-4-4. 연락빈도
- 2-5. 생존 손자녀와의 관계
 - 2-5-1. 생존 손자녀수
 - 2-5-2. 방문빈도
 - 2-5-3. 연락빈도
- 2-6. 생존 형제·자매와의 관계
 - 2-6-1. 생존 형제·자매수
 - 2-6-2. 방문빈도
 - 2-6-3. 연락빈도
- 2-7. 친구·이웃과의 관계
 - 2-7-1. 친구·이웃수
 - 2-7-2. 방문빈도
 - 2-7-3. 연락빈도
- 2-8.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노인의 기대
 - 2-8-1. 배우자
 - 2-8-2. 아들
 - 2-8-3. 손자녀
 - 2-8-4. 형제·자매
 - 2-8-5. 친구
 - 2-8-6. 이웃

2-9.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는 관계의 5인

3. 가구형태

3-1. 기혼자녀와의 거주형태 결정 이유

3-1-1.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

3-1-2. 기혼자녀와의 별거 이유

3-2. 기혼자녀와의 별거 기간

3-3. 거주형태 만족도

3-3-1. 거주형태 불만 이유

4. 부양교환 실태

4-1. 경제적 지원

4-1-1. 도움 수혜 여부

4-1-1-1. 주제공자

4-1-1-2. 부제공자

4-1-2. 도움 제공 여부

4-1-2-1. 주수혜자

4-1-2-2. 부수혜자

4-2. 간병/수발

4-2-1. 도움 수혜 여부

4-2-1-1. 주제공자

4-2-1-2. 부제공자

4-2-2. 도움 제공 여부

4-2-2-1. 주수혜자

4-2-2-2. 부수혜자

4-3. 손자녀 돌보기

4-3-1. 도움 수혜 여부

4-3-1-1. 주제공자

- 4-3-1-2. 부제공자
- 4-3-2. 도움 제공 여부
 - 4-3-2-1. 주수혜자
 - 4-3-2-2. 부수혜자
- 4-4.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 4-4-1. 도움 수혜 여부
 - 4-4-1-1. 주제공자
 - 4-4-1-2. 부제공자
 - 4-4-2. 도움 제공 여부
 - 4-4-2-1. 주수혜자
 - 4-4-2-2. 부수혜자
- 4-5. 시장보기
 - 4-5-1. 도움 수혜 여부
 - 4-5-1-1. 주제공자
 - 4-5-1-2. 부제공자
 - 4-5-2. 도움 제공 여부
 - 4-5-2-1. 주수혜자
 - 4-5-2-2. 부수혜자
- 4-6. 교통편의
 - 4-6-1. 도움 수혜 여부
 - 4-6-1-1. 주제공자
 - 4-6-1-2. 부제공자
 - 4-6-2. 도움 제공 여부
 - 4-6-2-1. 주수혜자
 - 4-6-2-2. 부수혜자
- 4-7. 걱정거리나 문제점 등 상담
 - 4-7-1. 도움 수혜 여부
 - 4-7-1-1. 주제공자
 - 4-7-1-2. 부제공자

4-7-2. 도움 제공 여부

4-7-2-1. 주수혜자

4-7-2-2. 부수혜자

5.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1. 노인이 되는 시기(연령)

5-2.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5-3. 노인임을 인식하는 계기

5-4. 연령규범에 대한 태도

5-5. 연령차별에 대한 태도

5-5-1. 가족 내의 연령차별

5-5-2. 고용상의 연령차별

5-5-3. 사회 내의 연령차별

5-6. 연령차별의 경험 여부

5-6-1. 경험한 연령차별의 내용

5-7. 세대관계

5-7-1 바람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

5-7-2. 노후의 자녀부양에 대한 태도

5-8.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5-9. 재산상속에 대한 행태 및 태도

5-9-1. 재산 보유의 필요성

5-9-2. 재산 상속 행태

5-9-3. 재산 상속 계기

5-9-4. 재산 상속 시기

6. 노후준비

6-1. 노후 생활에 대한 계획 유무

6-1-1. 계획을 세운 경우 계획의 내용

- 6-1-2. 세우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6-2. 노년기 이전의 경제적 노후대책 마련 유무
 - 6-2-1. 마련한 경우 대책의 내용
 - 6-2-2. 마련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6-3. 건강 악화시 생활대책
- 6-4. 거주(주거) 관련 노후준비: 현재의 거주형태의 유지 여부
 - 6-4-1. 변경할 예정인 경우, 그 내용

7. 경제상황

- 7-1. 거주주택 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 7-2.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 7-2-1. 부동산(소유, 임대/임차),
 - 7-2-2. 사업체/농장(소유, 임대/임차)
- 7-3. 주된 수입원관련 사항
 - 7-3-1. 근로소득 유무 / 월 수입금액
 - 7-3-2. 사업 및 부업소득 유무 / 월 수입금액
 - 7-3-3. 재산소득 유무 / 월 수입금액
 - 7-3-4. 금융소득 유무 / 월 수입금액
 - 7-3-5. 개인연금 유무 / 월 수입금액
 - 7-3-6. 공적연금 유무 / 월 수입금액
 - 7-3-7. 기타 사회보험급여 유무 / 월 수입금액
 - 7-3-8. 경로연금 유무 / 월 수입금액
 - 7-3-9. 기초노령연금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0. 교통수당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1.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2.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4. 참전명예수당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5. 기타소득 유무 / 월 수입금액

- 7-3-16. 월평균 총수입 / 월 수입금액
- 7-3-17. 기타 수입 및 소득
- 7-4. 한 달 용돈
- 7-5. 부채사항
- 7-6. 주관적 경제상황관련 사항
 - 7-6-1.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경제상황
 - 7-6-2. 지난해와 비교했을때의 주관적 경제상황
 - 7-6-3. 저축과 자산에 대한 주관적 충분성

8. 소비

- 8-1. 월평균 소비 지출액
- 8-2. 10대비목의 대략적 지출에 관한 사항
 - 8-2-1. 식료품
 - 8-2-2. 주거비
 - 8-2-3. 광열수도
 - 8-2-4. 교육
 - 8-2-5. 교양오락
 - 8-2-6. 교통통신
 - 8-2-7. 보건의료
 - 8-2-8. 가구집기가사용품
 - 8-2-9. 피복 및 신발
 - 8-2-10. 기타소비지출
- 8-3. 특별항목의 지출사항
 - 8-3-1. 외식비
 - 8-3-2. 경조사비
 - 8-3-3. 레저비용 등

9. 경제활동

- 9-1. 과거 및 현재의 근로 경력
 - 9-1-1. 퇴직 전 경험해 본 직종 나열
 - 9-1-1-1. 각 직종의 근로 년수(월)
 - 9-1-2. 퇴직 이후 근로 경력
 - 9-1-2-1. 각각의 근로 년수(월)
- 9-2. 직업 및 경제상태
 - 9-2-1. 현 직업 유무
 - 9-2-2. 현 직업
 - 9-2-3. 근무형태
 - 9-2-4. 주당 평균 근무시간
 - 9-2-5. 총 종사기간(년) / 총 종사기간(월)
 - 9-2-6. 현 취업 이유
 - 9-2-7. 취업 만족 여부
 - 9-2-7-1. 취업 만족 사유(혹은 취업으로 인해 좋은점)
 - 9-2-8. 직업 불만 이유
 - 9-2-9. 향후 계속 취업 희망
 - 9-2-10. 현직장 이직 여부
 - 9-2-11. 최근 퇴직 연도/월
 - 9-2-12. 총 실업기간(년/개월)
 - 9-2-13. 최근 직장 퇴직 이유
 - 9-2-14. 현 미취업 이유
 - 9-2-15. 향후 취업 희망 여부
 - 9-2-16. 향후 취업 이유
- 9-3. 구직활동
 - 9-3-1.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 9-3-2. 구직방법
 - 9-3-3.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 9-3-4. 원하는 일자리 형태

- 9-3-5. 일자리 우선순위
- 9-3-6. 노인취업을 위한 정부지원
- 9-3-7. 최장 종사직업

10. 사회활동

- 10-1. 노인의 사회활동
 - 10-1-1.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정의
- 10-2. 사회활동의 유형 및 정도
 - 10-2-1.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유형(종교단체/문화활동단체/운동단체/사교단체/정치단체/자원봉사활동/평생교육/노인대학/경로당)
 - 10-2-2.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주당 참여 시간(일수)
- 10-3. 사회활동 만족도
 - 10-3-1. 사회활동 참여 이유
 - 10-3-2. 사회활동 미참여 이유
 - 10-3-3. 향후 지속 여부
 - 10-3-4. 만족 여부
 - 10-3-5. 만족 사유
 - 10-3-6. 불만족 사유
 - 10-3-7. 장애요인
 - 10-3-8. 향후 개선사항(건의사항)
- 10-4. 사회활동 수단
 - 10-4-1. 현재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
 - 10-4-2. 현재의 사회활동 참여과정에서 이용한 제도 혹은 도움유형
 - 10-4-3.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0-4-4.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11. 보건의료분야

<건강증진활동>

- 11-1 흡연 여부 및 빈도
- 11-2 음주 여부 및 빈도
- 11-3. 생활체육활동 여부, 빈도 및 종류, 실시 장소
- 11-4. 지난 2일간 끼니별 식사 여부,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
- 11-5. 규칙적 영양식 섭취 노력
- 11-6 지난 1년간 독감예방접종 여부
- 11-7.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이용 경로
- 11-8. 건강·영양교육 참석 여부
- 11-9.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인식
- 11-10. 만성질병상태
 - 11-10-1. 주요 만성질병별 3개월 이상 지속된 본인 인지 만성질병 여부, 의사 진단 여부
 - 11-10-2. 만성질병으로 인한 힘든 점 여부 및 그 이유
 - 11-10-3. 만성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기관 종류, 의료비 부담 여부 및 의료비 부담자
- 11-11. 낙상사고 경험 및 장소
- 11-12. 약 복용 또는 건강식품 섭취 유무 및 종류, 건강식품 섭취이유
- 11-13. 신체계측
 - 11-13-1 체중(kg)
 - 11-13-2 신장(cm)

12. 기능상태

<기능상태>

- 12-1. 시력, 청력, 씹기의 상태: 시력, 청력, 씹기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보조기 사용여부, 보조기 착용후 기능상태
- 12-2.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문항별 ①완전자립, ② 부분도움 ③

완전도움으로 표시

12-3.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문항별 ①완전자립, ② 부분도움 ③ 완전도움으로 표시

12-4. 인지기능 평가(MMSE-K)

12-5. 우울증 검사: KCES-D 20문항 또는 CES-D 30문항

<수발관련 조사내용>

12-6. 노인이 느끼는 수발(도움) 필요여부 및 종류

12-7. 현재 수발 여부 및 주수발자

12-7-1. 가족원에 의한 수발

12-7-2. 주수발자와 부수발자와의 관계, 주수발자의 성, 연령, 직업

12-7-3. 수발시 어려운 점

12-7-4. 수발의 내용과 빈도

12-7-5. 수발 만족도

12-8. 수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2-8-1. 수발서비스를 받게 된 경위

12-8-2. 수발의 내용과 빈도

12-8-3. 수발비용과 수발

12-8-4. 수발의 충분성 또는 만족도

※ 참고 2: ADL 12문항

- ① 옷벗고 입기
- ② 세수하기
- ③ 양치질하기
- ④ 목욕하기
- ⑤ 식사하기
- ⑥ 체위변경하기
- ⑦ 일어나 앉기
- ⑧ 옮겨타기
- ⑨ 방밖으로 나오기
- ⑩ 화장실 사용하기
- ⑪ 대변조절하기
- ⑫ 소변조절하기

※참고 3: IADL 10문항

- ① 몸단장하기
- ② 집안일(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하기
- ③ 식사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하기
- ④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하기
- ⑤ 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없이)
- ⑥ 교통수단 이용하기
- ⑦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사기
- ⑧ 금전관리하기
- ⑨ 전화사용하기
- ⑩ 약챙겨먹기

※참고 4: 인지기능 평가(MMSE-K)

질문내용		배점	
1	오늘은 몇 년 몇 월 몇 일 무슨 요일입니까? _____년(1점)	01	
	그리고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_____월(1점)	01	
	(음력인 경우에도 된다.) _____일(1점)	01	
	_____요일(1점)	01	
	_____계절(1점)	01	
2	할아버지/할머니가 현재 사시는 집주소는? 도(특별시, 광역시) (1점)	01	
	할아버지/할머니가 사시는 구·시·군(도시) 이름은? (1점)	01	
	할아버지/할머니가 사시는 읍·면·동 이름은? (1점)	01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가정집, 학교, 시장, 병원 등) (1점)	01	
3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마당, 안방, 화장실 등) (1점)	01	
4	3가지 물건의 이름(예: 1. 나무, 2. 자동차, 3. 모자)을 한 단어당 1초가 걸리게 똑박똑박 불러주고. 끝이어서 반복해보도록 시킨다. (각 1점/총 3점)	01	
	* 조사원은 다음의 <질문 8> 회상능력의 검사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6회까지 반복하여 이야기해 준다.	01	
		01	
5	100 - 7 = _____ (1점)	93	01
	- 7 = _____ (1점)	86	01
	- 7 = _____ (1점)	79	01
	- 7 = _____ (1점)	72	01
	- 7 = _____ (1점) (총 5점)	65	01
위 계산을 응답거부하는 피검자에게는 “삼천리강산” 을 거꾸로 이야기하게 하시오.			
6	시계와 연필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물어본다. 시계 (1점)	01	
	연필 (1점)	01	
7	“간장 공장 공장장”을 따라하기 (1점)	01	
8	(질문 4에서) 조금 전에 불러드린 세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각 1점/총 3점)	01	
		01	
		01	
9	다음 3단계의 명령을 따라하도록 한다		
	- “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 (1점)	01	
	- “그것을 반으로 접어서” (1점)	01	
- “무릎위에 놓으세요” (1점)	01		
10	5각형 2개를 겹쳐 그리게 하시오.	01	
11	“웃은 왜 빨아(세탁해)서 입습니까?”라고 질문하십시오.	01	
12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십시오.	01	
점수합계		점	

※참고 5: 우울증 검사

1) KCES-D (전검구 외, 2001)

- 각 항목에 대하여 ①극히 드물게(1일 이하), ②가끔(1-2일),
③자주(3-4일), ④거의 대부분(5-7일)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①	②	③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4. 다른 사람들 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5. 모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6. 우울했다.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2. 행복했다.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6. 생활이 즐거웠다.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2) CES-D (2001년도 조사에서 활용 기분평가척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응답
1. 평소 내 생활에 기본적으로 만족한다.	예 아니오
2. 활동과 흥미가 많이 줄었다.	예 아니오
3. 사는 게 허전하다.	예 아니오
4. 자주 따분해진다.	예 아니오
5.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예 아니오
6.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주 떠올라 괴롭다.	예 아니오
7. 몸과 마음이 가뿐하다.	예 아니오
8.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예 아니오
9.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예 아니오
10.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예 아니오
11. 안절부절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12. 밖에 나가기 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예 아니오
13.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예 아니오
14. 기억력이 많이 약해졌다.	예 아니오
15.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예 아니오
16. 기분이 처지고 울적할 때가 있다.	예 아니오
17. 지금 내 처지가 참 불품없다고 느낀다.	예 아니오
18. 지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예 아니오
19.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예 아니오
20.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예 아니오
21. 기운이 넘치는 것 같다.	예 아니오
22.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예 아니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지내는 것 같다.	예 아니오
24.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 때가 많다.	예 아니오
25.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예 아니오
26.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아니오
27.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예 아니오
28.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가 싫다.	예 아니오
29. 결정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예 아니오
30.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예 아니오

13. 생활환경

<주택의 편리성>

- 13-1. 주택사용의 불편한 영역: 화장실, 부엌, 현관
- 13-2. 현 주택 거주기간
- 13-3. 주택개조의 의향 및 개조희망 내용
- 13-4. 적합한 냉난방기 설치

<지역환경의 적합성>

- 13-5. 지역의 주요 생활시설물과의 거리와 이동수단, 이동의 편리성
(병원, 약국, 보건소, 시장,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 13-6. 주거환경 만족도
 - 13-6-1. 시장·대형마트 등 접근 용이성
 - 13-6-2. 병원·의료복지시설 등 이용 편의성
 - 13-6-3.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 13-6-4. 문화시설 공원 이용편의성
 - 13-6-5.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 13-6-6. 도둑 등 치안문제
 - 13-6-7. 이웃과의 유대감
 - 13-6-8. 청소·쓰레기 처리상태
 - 13-6-9. 거주환경 전반적 만족도

<주 교통수단>

- 13-7.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13-8. 자가운전여부
- 13-9. 운전지속기간 및 예상 운전가능연령
- 13-10. 자가운전의 어려운 점 또는 불안감
- 13-11. 최근 교통사고 경험 여부

14. 새로운 관심사들

<성>

- 14-1. 성생활 여부,
- 14-2. 성 만족도
- 14-2. 성욕구
- 14-3. 성에 대한 태도

<죽음불안>

- 14-5. 죽음불안 척도(DAS) 15문항
- 14-6. 선호 장례문화: 화장, 매장 등

<자살생각>

- 14-7.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Scale) 5문항

※참고 6: 죽음불안 척도(DAS) 15문항(고효진 외, 2006)

문항	응답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예 아니오
나는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	예 아니오
지금 죽는다고 해도 별 미련이 없다	예 아니오
만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	예 아니오
죽은 사람의 몸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예 아니오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말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예 아니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에 심란할 때가 있다	예 아니오
인생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예 아니오
심장마비가 일어날까봐 겁이 난다	예 아니오
전쟁에(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 들어도 겁이 난다	예 아니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예 아니오
고통스럽게 죽을까봐 두렵다	예 아니오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심란하지는 않다	예 아니오
나는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참고 7: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Scale) 5문항(김형수, 2002)

- ① 죽고 싶다는 생각
- ② 자살에 대한 생각
- ③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경험
- ④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
- ⑤ 자살시도

부록 6.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활용 논문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연구결과물
 - 학술지 12건, 석사논문 3건, 국책연구기관 1건.
 - 1998년 이후 37건의 구매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없음.
 - 실제 구매와 활용도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
 - 공식적인 구매 없이 또는 구매자 외의 사람이 활용하는 경우 존재.
- 국회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학위논문을 파악한 결과, 석사논문 177개, 박사논문 19개가 파악됨.
 - 석사: 1998년 보고서 164개
 - 2004년 보고서 10개
 - 1998 & 2004년 보고서 함께 3개
 - 박사: 1998년 보고서 16개, 2004년 보고서 3개
 - 보고서 발간된 시점으로부터 활용되는 시점까지 약간의 시차 존재
- 연구 내용별
 - 조사 영역별로 다양하나, 복지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음.
 - 특정대상(독거노인, 여성노인, 장애인, 치매노인, 환자노인)등 30개
 - 특정지역에 초점을 둔 연구에 인용 44개, 국제비교시 활용 3개
- 이 외 정부간행물 등에 보고서에 분석하여 남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1. 석사학위 논문 총 177편

1) 1998년도 보고서 사용 -164편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논문수	5	22	29	34	34	22	16	2

2) 2005년도 보고서 사용 -10편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논문수	2	8	-	-	-	-	-	-

3) 1998, 2005년도 보고서 함께 사용 -3편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논문수	-	3	-	-	-	-	-	-

2. 박사학위 논문 총 19편

1) 1998년도 보고서 사용 -16편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논문수	2	2	4	4	2	1	1	-

2) 2005년도 보고서 사용 -3개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논문수	1	2	-	-	-	-	-	-

〈부표 6-1〉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제별 활용목록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연도
2005년도 보고서 활용 석사 학위논문(10편)		
수발실태	노인과 가족 수발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연구	2005
정부사업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2005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재가노인복지의 활성화 방안	2006
	고령화와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2005
	재가노인복지 확충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중심으로-	2005
일반의견	가정 봉사원 파견 서비스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5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와 만족에 관한 연구	2005
조사연구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5
생활환경	노인여가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2005
1998, 2005년도 보고서 함께 활용 석사 학위논문(3편)		
건강생활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2005
정부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일반의견	여성노인 노동력의 배제와 통합에 대한 연구	2005
1998년도 보고서 활용 석사 학위논문(164편)		
일반특성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선교 방안 연구 -전북 익산시를 중심으로-	2006
	여성노인 여가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및 일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	2004
	노인의 성생활 보호활동에 관한 연구	2004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2001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2001
가족관계	노년설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1999
	현대가족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3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2000
	노인부양 복지정책에서의 가족역할 제고에 대한 비교연구	2000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 연도
직업활동	여성노인의 취업형태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 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2006
	노인 의료비에 관한 고찰	2006
	노인취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2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고용 활성화 방안	2002
구직활동	중년기 직장여성의 퇴직 후 재취업 욕구에 미치는 영향 요인	2005
	한국의 노인 재취업 정책 연구	2004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2003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직업교육 및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2003
	고령자 취업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노인취업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미취업 고령자의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2
	경피신경전기자극이 노인요통환자의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2002
	고령자 창업 욕구에 관한 연구	2002
	경제상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빈곤노인의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에 관한 연구		2005
노인환자 입원진료비의 구조적 특성과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연구		2004
여성노인의 빈곤원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002
건강생활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2001
	만성질환주간 생활체조 프로그램 참여가 여성노인의 체력과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	2003
일반특성	노인성 난청인에 관한 연구-대처유형 요인을 중심으로-	2005
만성질환	농촌노인의 만성질환 실태와 보건·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구 익산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2001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생활	2002
	노래방기기를 이용한 집단 음악활동 프로그램요법이 만성내과 질환 노인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2005
기능상태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정도와 생활만족도의 비교	2001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신체적 건강상태, 간호 요양원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연구	2003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 연도
의료실태	한국의 외래노인환자에서 약물사용의 경향 및 explicit criteria에 의한 적절성 분석	2004
	광주지역 노인들의 질병 및 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2002
인지기능	일부 노인의 건강인식에 따른 양생수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2004
	전북지역 독거여성노인의 치매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2002
수발실태	주간보호서비스 지지기능이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2004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부양실태 비교연구	2000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2000
	노인 뇌졸중 환자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2004
	노인부양의 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노인부양	노인부양시설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2003
	한국대학생과 중국조선족대학생간 노인부양의식의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2002
	한국의 수발 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	2002
	가족부양자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1
가족관계	노년기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2
	며느리의 시모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2004
평생교육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교육만족도와 교육욕구 -대전시를 중심으로-	2005
	주요국의 노인교육 비교분석	2000
자원봉사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정보화	안양시 노인들의 사회복지정보 활용을 위한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2000
정부사업	농촌지역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상주시를 중심으로-	2006
	중년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노후재취업을 중심으로-	2005
	가족지원서비스 개선에 관한 실증 연구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중심으로-	2005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연도
	전라남도 노인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실태	2005
정부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노인 주간보호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고령화사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	2005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지원에 관한 연구	2004
	지방복지행정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200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4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2004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2003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실태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군산시를 중심으로-	2003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영국,일본을 중심으로-	2003
	한국과 선진국가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2003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서울,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2003
정부사업	교회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03
	농촌지역 재가노인의 욕구와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전북 화순군을 중심으로-	2003
	재가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003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해남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3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개선방안 -해남군을 중심으로-	2003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 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남 진도군을 중심으로-	200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연도
정부사업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에 대한 연구	2002
	고령화사회에서의 한국 실버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	200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2002
	실버타운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수원시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를 중심으로-	2002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에 관한 연구	2002
	농촌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익산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200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연구 -노인의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2002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행위와 자아존중감 비교	2002
	한국 실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2002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2001
	교회 노인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조직특성과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중심으로-	2001
	고령화사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 방안	2001
	노인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1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000
	생산적 복지 관점에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노인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2000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노인욕구분석을 통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	2000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남구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	2000
	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한국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1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연도
정부사업	재가노인의 케어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수원지역 재가 복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2001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1999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재가노인복지사업 발전방안 연구 -주간,단기보호시설을 중심으로-	2000
	농촌지역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일반의견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재택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2004
생활환경	대도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그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경로당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독거노인을 위한 Group Home Care에 관한 연구	2002
	경로당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일반의견	농촌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양주시를 중심으로-	2004
일반의견	교회 출석 노인들의 노인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2004
	교회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랑구 지역을 중심으로-	2004
	농촌 노인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장성군을 중심으로-	2003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비교 중심-	2002
	입원한 중년기 환자의 건강증상 정도와 간호요양원에 대한 인식 조사	2004
	노인의 신체활동과 삶의 질	2004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상황 및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군위군을 중심으로-	2004
조사연구	노인환자의 중간요양시설 욕구조사 연구	2000
	중년기 남성의 생활불안과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2005
	노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2005
	노년기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005
	농촌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 -충남 청양군을 중심으로-	2005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 연도
조사연구	노인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도 조사 -노인여가시설 이용자 중 심으로-	2005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비교 연구: E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2003
생활환경	재가,시설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및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5
	노인 시설 내부공간의 조명계획에 관한 연구	2005
	노인 복지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참여 실태 및 생활만족 에 관한 연구	2002
	위험군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연구-대전지역 가정간호서비스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2002
	농촌거주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전남 강 진군을 중심으로-	2002
생활환경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생활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2001
마비구축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연구	2004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실버단지조성을 위한 전망과 개방방향에 관한 실증적연구 부 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03
	한국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2002
기타	노인문제의 실태분석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원주시 사례를 중 심으로-	2005
	종합병원 간병인의 태도와 직무만족도 조사	2005
	음악치료가 노인 우울증 환자의 학습된 무기력감에 미치는 영향	2005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04
	유료노인요양시설 생활보조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2004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2004
	노인의료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수요자 욕구에 기초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방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2004
	한국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2003
	재가노인 복지의 실태와 과제	2003
	농촌교회에 당면한 노인문제의 목회적 해결 방안	2003

주제구분	논문제목	발행연도
기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200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시설보호 국가부담 경감방향 중심으로 -	2003
	장기요양보호에 있어서 교회자위의활용에 관한 목회자의 인식 연구-인천지역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2002
	한국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2002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전광역시·충남 무료 양로시설을 중심으로 -	2002
	우리나라 간호요양원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노인케어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케어복지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2001
	가톨릭 본당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체계적접급법에 의한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2001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에 관한 연구	2001
	노인의 사회참여육구 현황에 관한 경험적 연구 -노인복지센터 및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2001
	노인학대의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경주시를 중심으로-	2001
	재가노인복지활성화를 위한 간호사의 자원봉사 활용방안	2001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실태와 발전방안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2001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충남 서산시를 중심으로-	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2000
	2005년도 보고서 활용 박사 학위논문(3편)	
직업경제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2005
노인부양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	2005
정부사업	생활무용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006

주제 구분	논문제목	발행 연도
1998년도 보고서 활용 박사 학위논문(16편)		
일반특성	퇴임교원의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욕구 분석	2004
	노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4
	한국 노인의 노인되어감에 대한 문화기술지	2003
가족관계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관계	2002
	단독거주 노부부의 돌봄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2001
친척관계	중년층의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실버타운 입주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	2004
건강생활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2004
	일부지역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0
평생교육	수도권 여성노인의 평생학습욕구에 관한 연구	2005
정부사업	노인에게 적용된 운동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2006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05
	RUG-III를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지불제도의 타당성 검증	2003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주거정책의 특성과 유관집단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3
경로당	주거공간 기능측면에서 본 경로당 이용노인의 인식도 및 만족도 연구	2003
생활환경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 -시설의 공급체계 및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2006
기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통합 방법에 관한 연구	2002

연구보고서 20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발행일	2007년 12월 일	값 7,000원
저 자	정 경 희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ISBN 978-89-8187-469-8 93330